

결과 보고서

VC (Venture Capital) 트렌드 리포트 2023

prepared for



KVIC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
한국벤처투자

2023.09

opensurvey

CONTENTS

| | |
|---------------------------------|----|
| PART 1. 조사 개요 | 2 |
| PART 2. VC 트렌드 리포트 2023 SUMMARY | 6 |
| PART 3. 조사 결과 | 11 |
|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11 |
|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30 |
| • 투자 방식 트렌드 | 51 |
| • 기업 분석 트렌드 | 69 |
|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80 |

PART 1

조사 개요

- 조사 개요 및 설계
- 조사 내용
- 정량조사 응답자 구성

조사 개요 및 설계

본 조사는 벤처 투자 시장 내 참여자들의 객관적인 인식 및 현실을 파악함으로써, 시장 친화적 벤처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실시됨

정량 조사

| | |
|-------|--|
| 조사 방법 | 모바일 정량조사 한국벤처투자에서 제공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문자/카카오톡 채널 / 이메일을 통해 설문 참여자 모집 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베이로 응답 수집 |
| 조사 대상 | 국내 벤처캐피털 근무자 |
| 응답자 수 | 총 654명 (표본오차 ±2.51%) |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4일 ~ 7월 12일 |

정성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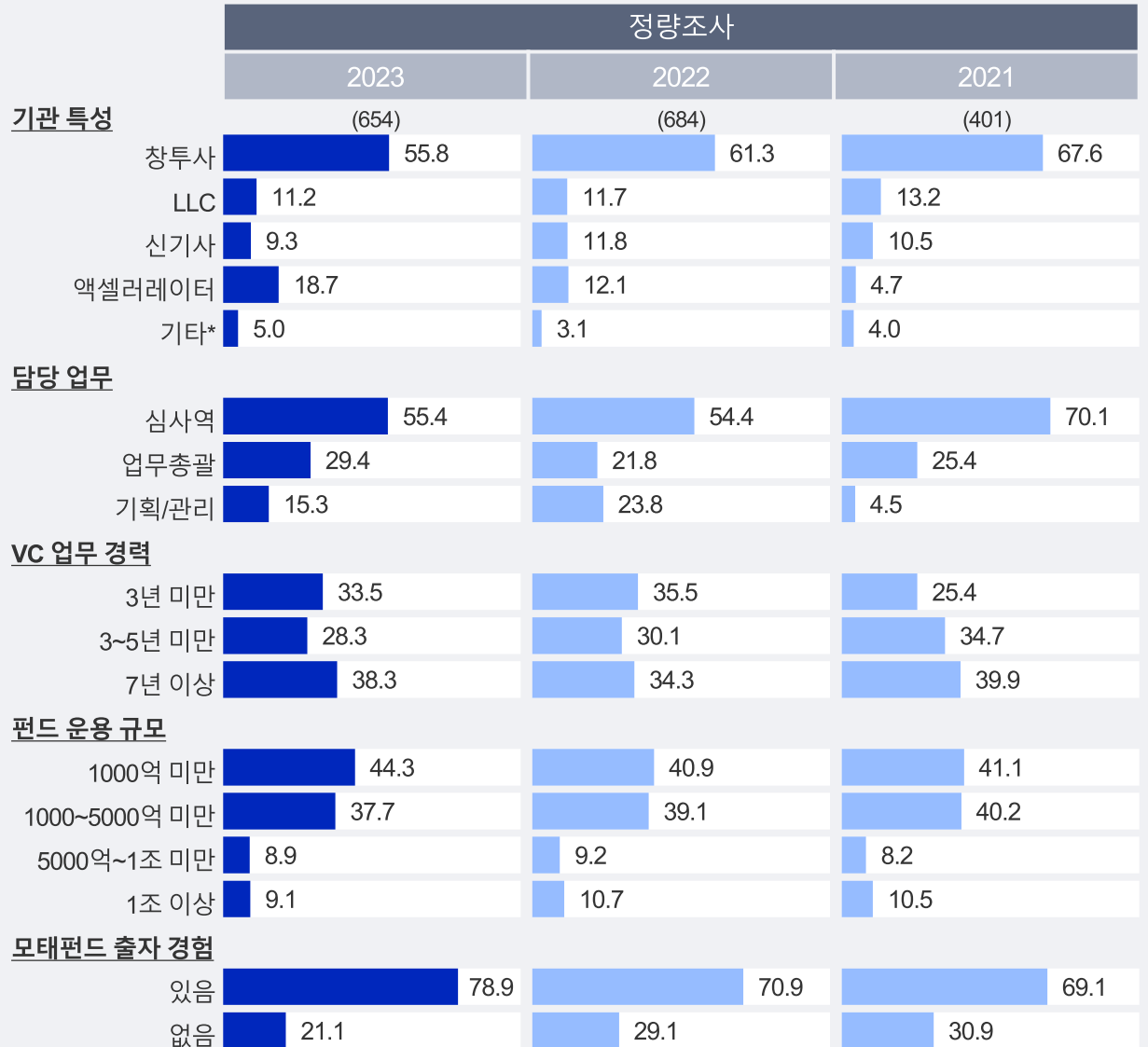
| 일대일 심층면접 (IDI) 진행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량조사 참여자 중 심층면접 참여 의향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VC 경력</th> <th>담당업무</th> <th>기관</th> <th>직급</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년 미만</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td> </tr> <tr> <td>2</td> <td>5~7년 미만</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수석심사역/ 팀장</td> </tr> <tr> <td>3</td> <td>5~7년 미만</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상무</td> </tr> <tr> <td>4</td> <td>7~10년 미만</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상무</td> </tr> <tr> <td>5</td> <td>7~10년 미만</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td> </tr> <tr> <td>6</td> <td>10~15년 미만</td> <td>심사역</td> <td>LLC</td> <td>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td> </tr> <tr> <td>7</td> <td>15년 이상</td> <td>심사역</td> <td>창투사</td> <td>이사</td> </tr> <tr> <td>8</td> <td>3년 미만</td> <td>업무총괄</td> <td>신기사</td> <td>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td> </tr> <tr> <td>총 인원</td> <td colspan="4">8명</td> </tr> </tbody> </table> | 구분 | VC 경력 | 담당업무 | 기관 | 직급 | 1 | 3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2 | 5~7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수석심사역/ 팀장 | 3 | 5~7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상무 | 4 | 7~10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상무 | 5 | 7~10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6 | 10~15년 미만 | 심사역 | LLC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7 | 15년 이상 | 심사역 | 창투사 | 이사 | 8 | 3년 미만 | 업무총괄 | 신기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총 인원 | 8명 | | | |
| 구분 | VC 경력 | 담당업무 | 기관 | 직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5~7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수석심사역/ 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5~7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 7~10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상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 7~10년 미만 | 심사역 | 창투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10~15년 미만 | 심사역 | LLC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15년 이상 | 심사역 | 창투사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 3년 미만 | 업무총괄 | 신기사 | 전무/ 부사장 임원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인원 | 8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년 7월 25일 ~ 8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 내용

| | |
|-------------------------|-----------------------------|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이유 |
| | 2023년 하반기 벤처 투자 시장 투자 규모 예상 |
| | 2023년 벤처투자사간 경쟁수준 인식 및 이유 |
| |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 지속 예상 전망 |
| | 2024년 벤처 투자 시장 전망 및 이유 |
| | 2024년 벤처 투자 규모 전망 및 이유 |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최근 1년 투자 업종 |
| | 주 투자 업종 및 현재 투자 고려 업종 |
| | 투자 업종 키워드 |
| 투자 방식 트렌드 | 선호 투자 단계 |
| | 투자 검토 진행 기업 수 |
| | 딜 소싱 경로 |
| |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정도 및 투자 지역 |
| |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
| | ESG 고려 정도 및 이유 |

| | |
|------------------------------|-------------------------------|
| 기업 분석 트렌드 | 기업 가치평가 중요 요소 |
| | 기업 실무진/ 팀 역량 평가 고려사항 |
| | 기업 성공 및 실패 영향 요소 |
| | VC의 투자 기업 성장을 위한 기여 내용 |
| | 기업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 |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기대 사항 |
| | 벤처투자생태계 흑한기에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필요 요소 |
| | 주목적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한 분야 |
| | 사회공익에 기여하기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 |
| | 10대 초격차 분야 중 투자 확대 필요 분야 |
| |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
| | KVIC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 평가 |
| | VC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 정도 |
| | KVIC 모태펀드 출자의 긍정/ 부정 영향 요소 |
| KVIC 건의사항 | |
| KVIC의 벤처 투자 시장 기여 내용 | |

정량조사 응답자 구성



(기관 특성 기타*: PE, CVC)

PART 2

VC 트렌드 리포트 2023 SUMMARY

01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2023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거시 경제 환경속에서 LP들의 자금 운용 보수화로 인한 신규펀드 조성 어려움, 회수시장에 대한 기대감 하락과 후속 투자의 지연, 올 초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 방침 발표 등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나타남

하지만,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들이 증가하고 기술특례 상장의 소부장 업종 확대와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 시그널, 펀드 투자기간 만료 시기를 맞추기 위한 투자 움직임으로 인해 투자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23년 하반기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져 LP 모집과 회수시장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 주도로 회수시장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 존재함

2024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와 정책자금 규모의 확대, 경기 활황에 따른 펀딩 및 투자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형성되고 있음

02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투자 업종은 ICT 서비스(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와 바이오/의료(의료용물질/의약품/의료기기), 다음으로 ICT 제조(반도체), 소부장 순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ICT 서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각광을 받았으나, 국내 기업들의 기술 원천성 부족, 기술 트렌드의 혁신성과 빠른 변화속도로 인한 사업실패의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매력도가 다소 하락하고 있는 한편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와 같은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영역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바이오/의료 업종은 기술특례 상장제도 가이드라인의 변화로 회수가 지연되고,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부진으로 인해 시장에서 실망감이 형성됨. 바이오 기업들은 후속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VC들은 평가기준을 강화하고 확실한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에는 더 이상 투자 매력을 느끼지 않음. 반대로, 업종이 갖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낙관론과 현재의 낮아진 기업 밸류에이션은 초기투자의 기회가 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의 적극적인 투자도 일어나고 있음

유통커머스 플랫폼은 기대 대비 실적과 수익이 좋지 않아 매력도가 하락하고 있으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이 지배적임. 유사한 아이템과 서비스 모델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명확한 비즈니스 수익모델과 혁신적인 서비스 아이템의 접목이 있는 벤처기업 발굴을 기대하고 있음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2차전지와 반도체 부품 중심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의 소부장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 완화정책으로 단기적 밸류에이션 상승 및 회수 가능성이 높아졌고, 전기차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투자열기가 고취되고 있음

03 투자 방식 트렌드

시리즈 A와 시드 : 최근 밸류 조정과 회수시장 불확실성 및 펀드 조성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낮은 밸류에이션 투자와 Long Term 투자를 기대하고 있는바, 시리즈 A와 시드 단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음. 전반적으로 원래 선호하던 투자단계보다 한 단계 낮춰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임

시리즈 C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후속 투자 성격이 많으며 투자기업들 중에 후속 투자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혹독한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VC들은 **세컨더리**에 집중하고 있음

투자 시 서류 검토 기업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었으나 투자 심의회 및 계약은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딜 소싱은 여전히 직접 발굴과 동료 투자자를 통한 비중이 높으나, 업체의 콜드콜이 늘어남. 이는 과거 대비 벤처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VC들의 **투자에 대한 보수적 관점과 신중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임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 중인 VC는 25%,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는 VC는 37%로, 아직 해외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투자 국가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많으며, 미국은 New Innovation 영역에 대한 기대, 동남아시아는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해외 스타트업 투자의 어려움은 해외 VC 네트워크의 부재, 기업 실사와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임. 해외 스타트업 투자 관련 KVIC에 기대하는 사항은 해외 LP 출자 시 가점제,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연결, 한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임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VC들은 해외 진출 기업 투자 시 주목적 투자의 인정 및 해외 진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정립을 희망함

해외 VC의 국내기업에의 투자도 활발한 투자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바, 데모데이의 개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해외 VC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마련, 모태펀드 출자 비율 및 규모의 조정, 달러화 출자 제한의 해결을 기대함

투자기업 발굴/심사에서 **ESG를 도입**한 VC는 39%이며, 도입계획이 있는 VC는 41%임. VC들은 ESG의 필요성과 가치는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사업화 단계가 낮고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의 평가나 사후관리에 ESG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당장의 기업의 생존과 수익을 더 중시하고 있음

04 기업 분석 트렌드

투자기업 가치평가 시 성장 가능성, CEO 및 핵심 인력, 제품/서비스 경쟁우위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음. 작년 대비 투자기업의 시장/산업군과 회수 가능성의 중요도가 소폭 상승한바, 이는 투자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수익모델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졌기 때문임

과거에는 정책성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업종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투자 위험성이 증가하고 펀딩이 어려운 최근의 시장위축 상황에서는 업종보다는 투자 대상기업의 체력 즉, 자금 없이 버틸 수 있는 생존가능성 여부를 보고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하고 있음

CEO는 기업 가치평가지 여전히 중요한 요소이나 CEO의 열정보다는 구체적인 관련 경험과 네트워크를 더 자세히 검증하고 있으며, 팀원은 초기 창업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으며 사업화 단계별로 CEO의 역할과 해당단계에 맞는 역량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미래 성장가능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함

기업의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은 자금 확보 > 매출 제고 및 사업화 성공 > 고급 인력 채용 > 고객 확보 및 유지이며, 최근 3년간 자금확보와 매출 제고/사업화를 매년 더 큰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음

05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개선 기대사항으로 IPO/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신규 LP 증가,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최근 3년 연속 IPO/M&A 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기대사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는 매년 그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벤처투자생태계의 촉한기에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모태펀드 증액 등 긍정적 시장 시그널 전달 > 민간 모펀드 등 다양한 투자 Vehicle 도입 > 벤처 대출 등 다양한 선진 벤처금융 기법 도입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사회 공익을 위해 주목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창업 초기, 세컨더리, 소재/부품, ICT 등이며, 10대 초격차 분야 중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는 빅데이터/AI, 친환경/에너지, 로봇,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이며 그 밖에 미래 모빌리티, 양자 기술 등도 응답됨. VC들은 10대 초격차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야로서 의미 있고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할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있음

출자자 모집 시 어려움은 출자 경쟁의 심화 > 외부 출자의 축소 > 달성하기 어려운 주목적 투자 대상 순으로 나타남

KVIC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76%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VC들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 정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69%로 높음

KVIC 모태펀드가 출자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타 LP에게 펀드의 신뢰도 제고, 펀드의 목표금액 결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운용사의 신뢰성 제고, 기존 LP외 추가투자자 유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높음

KVIC에 대한 건의 및 기대 사항으로 출자 비율 및 규모 확대 > 제도/규제의 유연화 > 사후관리 개선 > VC 친화 > 투자 환경조성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 규모의 유지 및 확대, 투자확약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정성지표의 반영 및 정량 평가 기준에 대한 재점검,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유인 요소의 발굴, 국내기업과 해외 VC 간의 네트워크 마련, 취약 분야 펀드에 대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운영, 취약 분야 VC에 대한 평가 시 배려 필요, 모태펀드 사후관리 기준 완화, VC와의 교류 및 교육의 장 확대 등임

PART 3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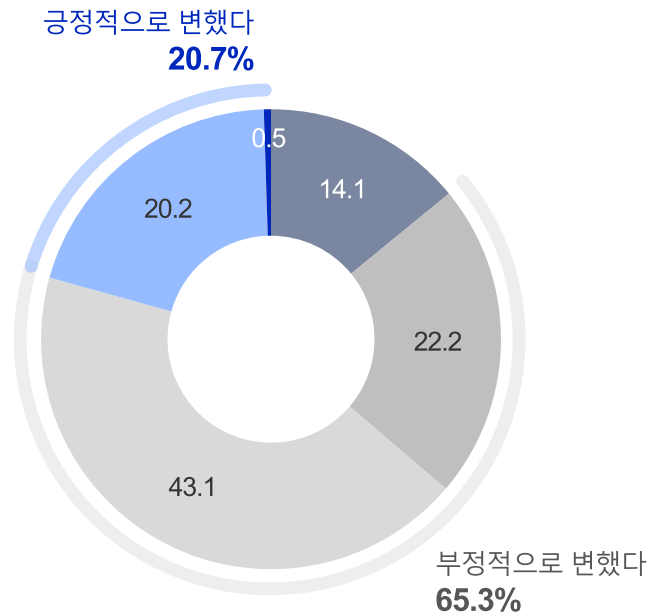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투자 방식 트렌드
- 기업 분석 트렌드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인식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 65.3%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함

2023년 벤처 투자 시장은 금리 안정화가 되지 않는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 하에서 LP들의 자금 운용 보수화로 펀드 조성이 안 되고, 상장도 지연되는 등 회수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후속 투자도 일어나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 모두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 매우 긍정적
- 약간 긍정적
- 약간 부정적
- 매우 부정적
- 전년과 동일



"VC시장은 작년보다 더 힘들어졌어요. 금리도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아직 다운 턴이 이어지고 있기에 시장 참여들 모두 아직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LP가 출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펀드 결성이 작년만큼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시장의 문도 좁아져서 회수도 어렵습니다. 상장이 지연되고 어려워니 후속 투자도 막히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유하고 있는 펀드 자금이 아직 남아있지만 다 소진한 후에 펀드 조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까지는 보수적인 투자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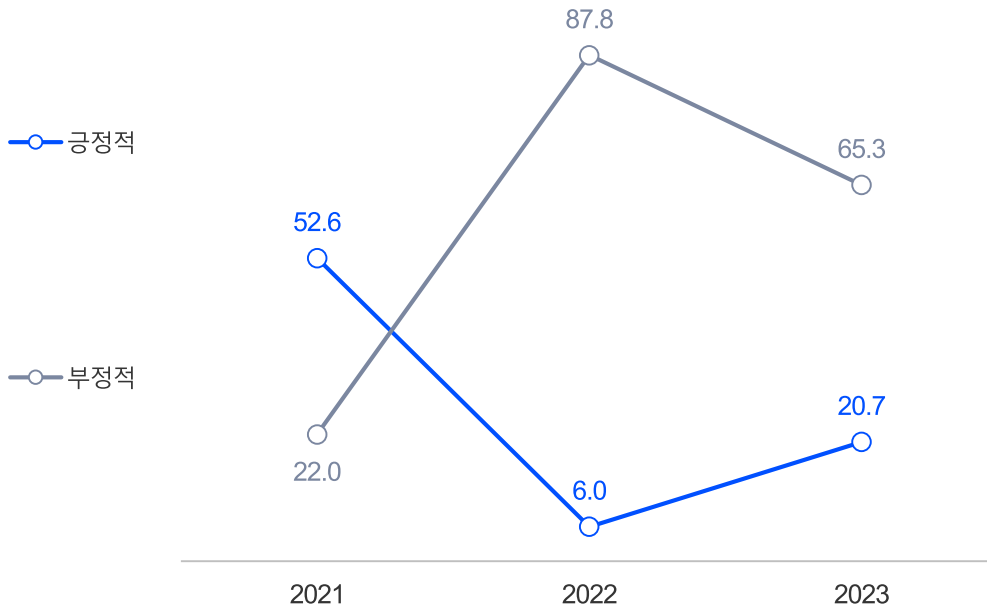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연도별 변화

2021년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2022년 부정적 인식이 87.8% 압도적으로 확산됨. 2023년에도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과반수(65.3%)로 높으나, 작년 대비 상당히 누그러진 추세임.

펀딩의 경우 2023년 올해에도 계속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으나, VC들은 펀드 만기가 다가오고 있어 투자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가치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 많고 기업가치의 협상 또한 수월한 점과 소부장에 대한 규제 개선과 같은 정부의 지원 기조를 체감하고 있기에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



“작년까지는 자금경색과 시장 불투명성으로 멈춰 있었다면, 올해는 앞으로 곧 투자기간이 만료 되는 펀드 소진을 위해 계속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LP들도 여전히 자금 여력이 없고 출자에 보수적이라서 펀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에 대한 규제개선이 있었고, 과거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 많고, 창업자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VC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좋아졌다기 보다는 흐름상 시장이 멈춰 있을 수는 없는 요인들이 있기에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Base : 2021 (N=401), 2022 (N=684), 2023 (N=654), Unit : %]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긍정적 인식 항목

올해 벤처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7%이며, 펀드 운용규모 1조 이상의 하우스에서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선호 투자 단계 후기로 갈수록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내용은 관계 법령 및 규제의 개선,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 수 증가, 기업들의 질적 성장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긍정적으로 인식 | 20.7 | 22.5 | 19.2 | 23.0 | 16.4 | 22.7 | 19.6 | 16.5 | 17.6 | 21.3 | 25.7 | 33.3 | 20.2 | 18.2 | 25.8 | 31.9 |
| 관련법령 및 규제 개선 | 12.2 / 21.9 | 22.2 | 19.2 | 13.1 | 27.9 | 13.8 | 16.3 | 48.9 | 18.9 | 13.0 | 11.9 | 14.8 | 18.9 | 14.7 | 9.3 | 4.3 |
| 투자를 고려할만한 기업 수 증가 | 10.2 / 21.4 | 21.6 | 21.9 | 16.4 | 25.4 | 23.5 | 24.8 | 12.2 | 23.6 | 25.5 | 18.8 | 29.6 | 25.9 | 23.1 | 17.5 | 29.8 |
| 기업들의 질적 성장 | 10.2 / 21.1 | 18.9 | 24.7 | 21.3 | 27.0 | 22.7 | 22.2 | 15.8 | 26.4 | 24.3 | 14.9 | 14.8 | 24.1 | 18.9 | 23.7 | 23.4 |
|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6.9 / 17.1 | 20.0 | 11.0 | 19.7 | 11.5 | 17.7 | 17.0 | 15.8 | 9.5 | 16.3 | 27.7 | 33.3 | 13.2 | 14.0 | 22.7 | 38.3 |
|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확대 | 5.8 / 12.5 | 11.0 | 11.0 | 16.4 | 16.4 | 11.3 | 9.8 | 18.7 | 15.5 | 7.5 | 10.9 | 14.8 | 14.0 | 9.8 | 7.2 | 6.4 |
| 벤처투자시장 내 인적자원 개선 | 4.1 / 12.2 | 9.3 | 13.7 | 14.8 | 18.9 | 12.2 | 11.1 | 13.7 | 16.2 | 10.0 | 6.9 | 22.2 | 14.0 | 9.8 | 9.3 | 12.8 |
| 경기활황에 따른 펀딩 및 투자 확대 | 4.0 / 10.7 | 11.0 | 11.0 | 11.5 | 9.8 | 12.7 | 9.2 | 7.2 | 8.8 | 12.1 | 13.9 | 14.8 | 12.3 | 9.1 | 10.3 | 19.1 |
| LP 등 펀드 투자자 모집 용이 | 2.3 / 6.9 | 7.4 | 11.0 | 4.9 | 4.1 | 7.5 | 7.8 | 4.3 | 3.4 | 6.7 | 13.9 | 14.8 | 7.9 | 2.8 | 11.3 | 12.8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1.6개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부정적 인식 항목

올해 벤처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65%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며 펀드 운용 규모 천억~3천억의 중소 VC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음

부정적으로 보는 주요 이유는 LP 등 펀드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 경기침체에 따른 펀딩 및 투자 축소 >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감소로, 투자자금 유치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IPO, M&A 등 회수시장 악화 역시 올해 벤처투자시장의 부정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 ■ 1+2+3순위 ■ 1순위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부정적으로 인식 | 65.3 | 61.9 | 69.9 | 60.7 | 72.1 | 61.6 | 69.9 | 69.8 | 70.3 | 62.8 | 60.4 | 55.6 | 68.4 | 65.7 | 56.7 | 53.2 |
| LP 등 펀드 투자자 모집 어려워짐 | 28.9 71.4 | 70.1 | 74.0 | 75.4 | 70.5 | 73.2 | 70.6 | 67.6 | 74.3 | 72.0 | 72.3 | 66.7 | 70.6 | 83.2 | 68.0 | 57.4 |
| 경기침체에 따른 펀딩 및 투자 축소 | 23.2 63.5 | 61.1 | 60.3 | 60.7 | 69.7 | 63.3 | 60.1 | 67.6 | 70.3 | 58.2 | 63.4 | 51.9 | 64.0 | 60.8 | 59.8 | 63.8 |
|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감소 | 20.9 50.3 | 52.1 | 56.2 | 52.5 | 38.5 | 48.3 | 60.1 | 44.6 | 46.6 | 55.2 | 52.5 | 48.1 | 53.9 | 55.9 | 46.4 | 40.4 |
| IPO, M&A 등 회수시장 악화 | 12.5 43.4 | 42.7 | 42.5 | 34.4 | 50.0 | 43.4 | 45.1 | 41.7 | 48.0 | 46.4 | 35.6 | 29.6 | 43.9 | 46.2 | 45.4 | 34.0 |
| 투자를 고려할만한 기업 수 감소 | 6.7 22.8 | 23.8 | 23.3 | 26.2 | 20.5 | 22.9 | 17.0 | 28.8 | 21.6 | 19.2 | 24.8 | 22.2 | 18.0 | 18.9 | 25.8 | 34.0 |
| 벤처투자시장 내 인적자원 악화 | 1.8 7.8 | 7.1 | 8.2 | 9.8 | 8.2 | 7.2 | 8.5 | 8.6 | 4.7 | 8.4 | 6.9 | 18.5 | 8.8 | 4.2 | 6.2 | 14.9 |
| 기업들의 질적 퇴보 | 2.8 7.6 | 8.2 | 6.8 | 6.6 | 4.9 | 7.7 | 3.9 | 11.5 | 6.8 | 4.2 | 10.9 | 11.1 | 3.9 | 7.0 | 9.3 | 12.8 |
| 관련법령 및 규제 악화 | 0.6 3.1 | 4.1 | 2.7 | 1.6 | 1.6 | 3.3 | 3.3 | 2.2 | 0.7 | 4.2 | 3.0 | 11.1 | 3.5 | 2.8 | 4.1 | 2.1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2.7개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인식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의 근거는 VC들의 펀드 투자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펀드 소진을 위해서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점, 기술특례 상장이 소부장 업종에 확대되는 등 정부 규제 완화의 시그널, 기업들의 낮아진 밸류에이션과 그로 인해 투자 고려할 만한 기업들이 늘어서 VC 입장에서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임

다가오는 펀드 청산 / 규제 완화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미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 후속투자만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해 4~5월 부터는 다시 신규 회사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약간 긍정적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작년까지는 자금경색과 시장 불투명성으로 멈춰 있었다면, 올해는 앞으로 곧 투자기간이 만료 되는 펀드의 투자금 소진을 위해 계속 그대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LP들도 여전히 자금 여력이 없고 출자에 보수적이라서 펀딩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부장에 대한 규제개선이 있었고, 과거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 많고, 창업자들도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VC 입장에서는 유리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좋아졌다고 보다는 흐름상 시장이 멈춰 있을 수는 없는 요인들이 있기에 부정적인 인식에서는 벗어나는 시각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 ID15 (천억 미만 창투자, 7~10년, 심사역)

2023 벤처 투자 시장 긍정적 인식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 수 증가/ 낮아진 밸류에이션

"작년 하반기가 최악이었다면 올해는 작년 하반기보다는 나아졌어요. 작년에는 낮아지는 밸류에이션을 스타트업들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투자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올해부터는 VC가 제시하는 밸류에이션에 따라주고 협상이 되고 있어요. 기업가치에 대한 미스매치, 즉 서로의 눈높이가 맞아가는 것 같아요"

- ID11 (1조 이상 창투자, 3년, 심사역)

"IPO 시장이 무너지고 투자가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나쁘지 않았어요. 3년 전에 300억이던 회사에 보통 2배는 올랐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310억에 투자했어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시장에 자금이 줄어드는 만큼 기업가치가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 점은 VC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신규 투자를 못 받으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죠. 지금은 VC가 우위로 역전되었어요. 펀드가 있고 여유가 있는 VC들에게는 좋은 찬스예요. 가격이 떨어졌으니 다시 투자를 늘려볼 만하죠"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 인식

2023년 올해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올 초 정부의 모태펀드 축소 방침 발표, 금리 인상으로 LP 등 펀드 출자자 모집이 어려워 신규 펀드 조성 안 되는 상황, 회수시장의 하락으로 후속 투자도 멈추거나 보수적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 형성됨

LP 등 펀드 출자자 모집 어려움/경기침체로 펀딩 및 투자 축소 (LP 출자여력 부족 및 보수적 관점 유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경제적으로 다운 턴이 아직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펀딩이 정말 어렵죠. 펀드 결성 시 운용사에서 주는 심사역 인센티브가 있는데 요즘 많이 높아졌어요. 그만큼 펀딩이 어렵기 때문인거죠 "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작년 말, 올해 초 금리 인상되면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급격히 회수되고 대출금리도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가 높은 모험자본투자인 벤처투자는 **회수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회수가 막히면서 시장이 얼었어요.** LP들도 자기자본인 경우도 있지만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높은 조달금리로 지금 수준의 리스크 수준을 감내하면서 펀드 출자를 안 하려고 보수적으로 변했고 출자를 미뤘어요. VC들은 보유하고 있는 펀드 자금은 아직은 남아 있지만 다 소진한 후에는 펀드 조성이 어렵다고 예상하니까 아주 보수적인 투자로 전환했어요"

- ID12 (1조 이상 창투사, 5~7년, 심사역)

"작년 초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P들도 출자 여력이 별로 없었고 VC들도 갖고 있는 펀드는 있지만 앞으로 신규 펀드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하니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투자했던 기업들의 후속 투자 건에만 조금씩 집중하고, 신규 투자 자체는 미루고 있어요.** 기업들의 가치가 더 내려오길 기다려요"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2023 벤처 투자 시장 부정적 인식

IPO, M&A 등 회수시장 약화

(회수 지연은 후속 투자에 대한 보수적 투자 기조로 연결)

"원래 투자유치 시 상장을 감안하고 더 높은 밸류로 투자 해야 하는데, **상장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니까 후속 투자가 막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들어가면 회수가 막막하니까 돈이 묶일 것 같으니 투자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은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ID1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회수 규제로 투자와 회수 선순환 무리

"팬데믹 기간에 이미 기업 가치는 Over valuation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아 주가가 내렸고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21년까지 IPO 시장에서도 기술특례부터 시작해서 회수를 도왔고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 구조였는데, 지금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니 **상장시장의 문이 좁아졌어요.** VC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감소

"갑자기 올 초에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해서 다들 난리였어요. 장기적으로 민간 펀드로 가는 방향성은 맞지만, **작년과 올 초 힘든 상황에서 모태펀드 출자 규모를 축소하는 건 더욱 시장을 부정적으로 몰아붙이는 일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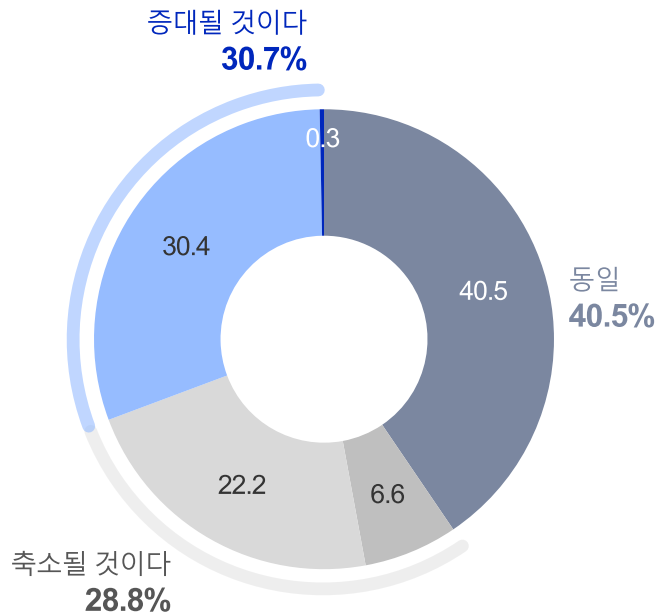
- ID14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2023년 하반기 벤처 투자 시장 투자 규모 전망

2023년 하반기 벤처 투자 시장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과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각각 29%, 31%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상반기와 동일할 것이라는 의견이 41%로 가장 높음

2023년 하반기에 LP 출자자 모집이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회수시장의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는 반면, 하반기쯤 정부 주도의 회수시장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VC들도 투자금 소진을 해야 하는 시기라서 투자 규모가 증가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공존함

- 매우 증대
- 약간 증대
- 약간 축소
- 매우 축소
- 상반기와 동일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LP들이 출자하기 어렵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LP 모집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수시장은 더 답답한데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자가 많았던 바이오 업종이 그리 쉽게 좋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은 하반기에는 계속될 것 같아요"

"정부와 거래소에서 회수 규제를 완화하고 창구를 열어줄 것이라서 상장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VC들이 그동안 투자를 20~30%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내년 정도면 펀드 소진을 다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하반기부터는 투자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2023년 하반기 벤처 시장 투자 규모 전망

2023년 하반기 벤처 시장의 투자 규모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LP 출자자 모집이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회수시장도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 때문임

반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회수시장 규제 완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과 VC들의 펀드 투자기간 만료가 도래하여 하반기에 투자금 소진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남

LP 모집 난항 지속

"계속 출자 비율을 높여 달라고 하고 있지만 출자 비율을 높여줘도 즉, 정책자금에서 60%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40%를 시장에서 구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투자기관들 금리가 7~8%인데 정책자금의 5~6%짜리에 LP들이 돈을 넣기 어려워요. 자금 조달은 하반기에도 어려울 거예요"

- IDI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회수시장 회복 어려움

"하반기에는 이미 투자해 놓은 기업들을 어떻게든 상장시켜서 빠져나오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식의 마인드로 접근해도 잘 안될 거예요. 지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VC들이 많아요. 버블은 꺼졌는데 어떻게든 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많아요. 답답한 상황은 하반기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바이오 업종의 회수시장이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쉽게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IDI7 (5천억~1조 미만 창투자, 15년, 심사역)

정부 주도로 회수시장 규제 완화 예상

"올해 하반기에는 풀릴 거예요. 액션이 있으면 리액션이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회수 창구를 다시 열어주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상장 탈락한 후기단계 회사들은 이제 상장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분위기는 완화되고 있어요"

- IDI7 (5천억~1조 미만 창투자, 15년, 심사역)

펀드 소진 만료 기간 도래

"작년이나 재작년에 만들어진 펀드가 많다 보니 내년 정도면 다 소진해야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 IDI2 (1조 이상 창투자, 5~7년, 심사역)

"작년 하반기에 워낙 못했던 투자를 어쩔든 계속 투자해야 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예상돼요. 21년쯤에 결성된 펀드의 투자 기간이 4년이에요.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투자금을 소진하러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규모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IDI1 (1조 이상 창투자, 3년, 심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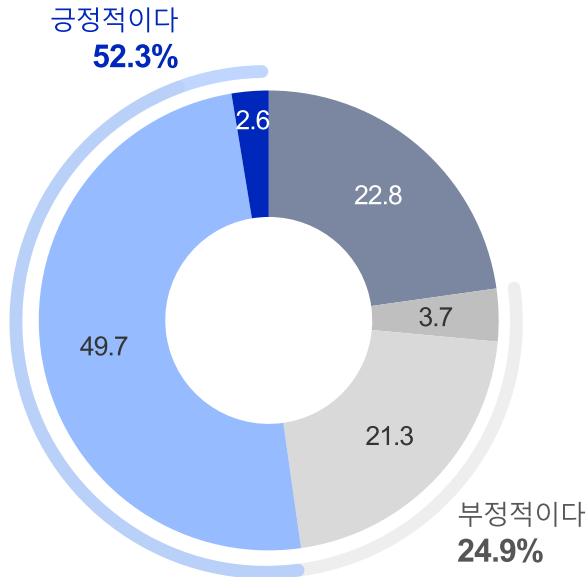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전망

2024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 전망이 52%로 부정적 전망 25%를 압도하고 있음
투자 규모 역시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49.7%로 축소 전망 20%보다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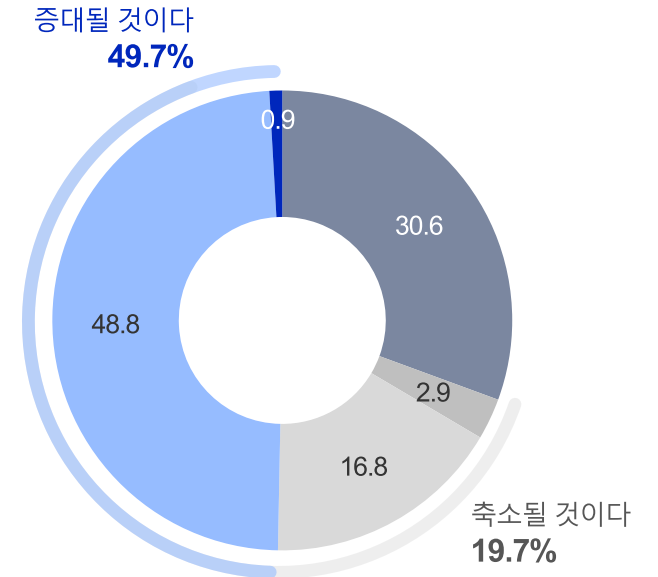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전반적 전망

- 매우 긍정
- 약간 긍정
- 약간 부정
- 매우 부정
- 올해와 비슷



2024년 내년 투자 규모 전망

- 매우 증대
- 약간 증대
- 약간 축소
- 매우 축소
- 올해와 비슷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긍정적 전망 항목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응답한 이유는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의 확대, 경기 활황에 따른 펀딩 및 투자 확대가 기대되기 때문임

특히, 펀드 운용 규모가 1조 이상의 대형 VC에서 내년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큼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선호 투자 단계가 후기일수록 높음

| ■ 1+2+3순위 ■ 1순위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긍정적으로 인식 | 52.3 | 52.6 | 52.1 | 60.7 | 49.2 | 50.8 | 51.6 | 56.8 | 43.9 | 52.3 | 55.4 | 63.0 | 47.8 | 46.9 | 56.7 | 68.1 |
|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확대 | 20.0 / 39.6 | 38.9 | 45.2 | 39.3 | 41 | 35.6 | 42.5 | 46.8 | 35.1 | 38.1 | 36.6 | 51.9 | 37.7 | 40.6 | 32 | 40.4 |
|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16.2 / 38.7 | 41.4 | 35.6 | 49.2 | 26.2 | 38.4 | 43.8 | 33.8 | 29.7 | 41.4 | 48.5 | 51.9 | 31.6 | 43.4 | 46.4 | 57.4 |
| 경기활황에 따른 펀딩 및 투자 확대 | 13.9 / 32.3 | 31.2 | 41.1 | 36.1 | 30.3 | 34 | 28.8 | 31.7 | 27.7 | 35.1 | 35.6 | 22.2 | 34.6 | 28 | 33 | 34 |
| 기업들의 질적 성장 | 12.4 / 30.0 | 31.2 | 28.8 | 27.9 | 28.7 | 31.8 | 32.7 | 22.3 | 37.2 | 31.8 | 25.7 | 29.6 | 32.9 | 25.9 | 38.1 | 34 |
| 투자를 고려할만한 기업 수 증가 | 8.3 / 26.8 | 27.9 | 19.2 | 19.7 | 31.1 | 27.6 | 22.9 | 28.8 | 27.7 | 21.3 | 36.6 | 22.2 | 27.2 | 18.9 | 26.8 | 42.6 |
| 관련법령 및 규제 개선 | 6.9 / 20.3 | 17.3 | 21.9 | 23 | 25.4 | 17.1 | 17 | 32.4 | 25.7 | 15.1 | 11.9 | 7.4 | 19.7 | 20.3 | 10.3 | 8.5 |
| LP 등 펀드 투자자 모집 용이 | 3.7 / 17.6 | 17 | 20.5 | 23 | 17.2 | 20.2 | 20.3 | 7.9 | 16.9 | 20.5 | 21.8 | 29.6 | 21.5 | 18.2 | 22.7 | 14.9 |
| 벤처투자시장 내 인적자원 개선 | 1.7 / 7.8 | 7.1 | 8.2 | 8.2 | 9.8 | 7.5 | 5.9 | 10.8 | 9.5 | 6.7 | 5 | 3.7 | 7.9 | 5.6 | 9.3 | 2.1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2.7개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부정적 전망 항목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의 주요 이유는 LP 등 펀드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경기 침체에 따른 펀딩 및 투자 축소,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의 감소 순으로 나타남

선호 투자 단계 Seed인 응답자들은 LP 등 펀드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과 IPO, M&A 등 회수시장 악화를 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 1+2+3순위 ■ 1순위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부정적으로 인식 | 24.9 | 24.7 | 30.1 | 13.1 | 23.8 | 26.8 | 26.8 | 18.0 | 31.8 | 25.1 | 23.8 | 25.9 | 27.6 | 27.3 | 25.8 | 23.4 |
| LP 등 펀드 투자자 모집 어려워짐 | 23.4 42.4 | 41.4 | 47.9 | 41 | 42.6 | 42 | 41.2 | 44.6 | 51.4 | 35.6 | 44.6 | 33.3 | 39 | 47.6 | 42.3 | 36.2 |
| 경기침체에 따른 펀딩 및 투자 축소 | 17.1 35.2 | 35.1 | 37 | 27.9 | 32.8 | 32.3 | 39.9 | 37.4 | 41.2 | 30.5 | 32.7 | 40.7 | 33.8 | 35 | 34 | 38.3 |
| 정책자금 등 투자재원 규모 감소 | 9.3 23.1 | 24.7 | 16.4 | 16.4 | 23.8 | 22.9 | 24.8 | 21.6 | 27 | 23 | 18.8 | 25.9 | 24.6 | 24.5 | 20.6 | 21.3 |
| 투자를 고려할만한 기업 수 감소 | 7.5 19.7 | 22.2 | 21.9 | 16.4 | 15.6 | 19.1 | 20.9 | 20.1 | 16.9 | 20.1 | 21.8 | 22.2 | 18 | 21 | 20.6 | 21.3 |
| IPO, M&A 등 회수시장 악화 | 5.4 18.8 | 16.4 | 23.3 | 11.5 | 23.8 | 20.2 | 14.4 | 20.1 | 25 | 15.9 | 18.8 | 3.7 | 21.9 | 21 | 13.4 | 4.3 |
| 기업들의 질적 퇴보 | 4.6 14.1 | 14.8 | 15.1 | 14.8 | 11.5 | 14.9 | 13.1 | 12.9 | 10.8 | 15.9 | 15.8 | 14.8 | 11.8 | 18.9 | 15.5 | 10.6 |
| 벤처투자시장 내 인적자원 악화 | 6.6 11.9 | 11.8 | 11 | 13.1 | 11.5 | 13.8 | 7.8 | 11.5 | 11.5 | 12.1 | 12.9 | 11.1 | 11.8 | 8.4 | 12.4 | 23.4 |
| 관련법령 및 규제 악화 | 2.4 6.1 | 6.6 | 5.5 | 6.6 | 4.9 | 6.4 | 7.2 | 4.3 | 4.7 | 6.3 | 10.9 | 3.7 | 7.5 | 5.6 | 8.2 | 2.1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2.1개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전망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은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인해 정책자금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회수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운 턴이었던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상함

또한 투자를 고려할 만한 산업 분야와 기업들이 대두되고 있고, 올해 가치가 하락한 초기기업 투자에 집중하는 VC들은 내년도부터 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2024년 내년 벤처 투자 시장 전망

2024년 내년 회수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이외에도 국내 자본시장 내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는 판단에 따라 형성되어 있음

또한, 시장 Player들 관점에서는 그동안 VC 수의 증가와 CVC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고, 자체 VC를 두고 있는 대형 LP들의 외부 출자 축소가 심화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있음

회수시장에서 M&A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 상장을 기다리는 업종들이 주로 바이오라서 이들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부정적 전망을 강화하고 있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모든 것은 결국 미국 금리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에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시그널이 보이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LP들은 더더욱 걸어 잠그게 될 것이라서 내년도에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ID14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앞으로 2년간은 금리가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가 났어요. 재작년과 같은 활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당분간 지금과 비슷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합니다"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분위기는 완화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무리 회수시장을 열고 상장 시켜도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다면 원하는 밸류에이션은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그런 점에서 아직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2024 벤처 투자 시장 부정적 전망

펀딩 어려움(시장내 리스크 요인 지속화/VC경쟁 심화)

"내년에 긍정적으로 바뀔 요인이 별로 없어요. 이미 자산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부동산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본시장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서 펀딩이 어려울 거예요"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펀딩 시장이 좋아지긴 어려워요. **금리 문제도 있지만 VC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CVC도 많아졌어요. 대기업 LP들이나 은행권 LP들이 자체 VC가 생기면서 외부 출자를 줄였어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회수시장 회복은 불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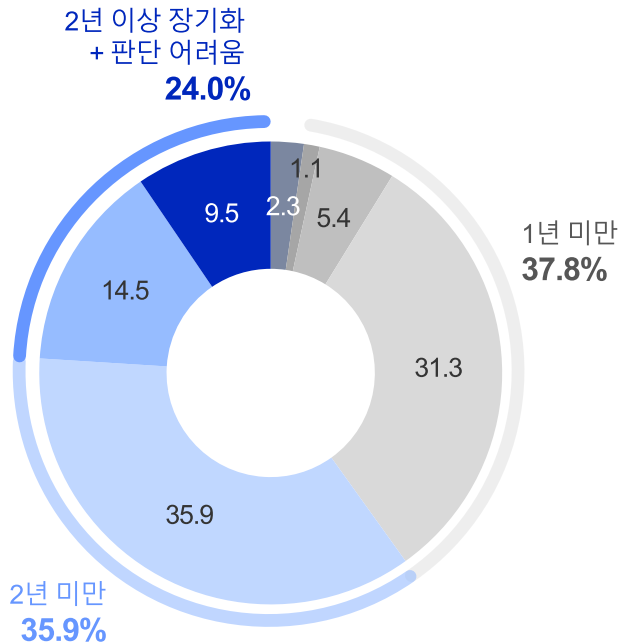
"저는 회수시장 활성화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해요. 초기기업 M&A를 많이 하는 모 IT기업이 더 이상 M&A에 나서지 않고 있고 IPO에서도 바이오 쪽도 내년까지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하면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IPO와 M&A 시장은 내년도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 ID14 (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 지속 예상 전망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에 대해서는 1년 미만~2년 미만 내에 흑한기가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74%로, 1년 미만이 38%, 2년 미만이 36%임
2년 이상 장기화 되거나 판단이 어렵다는 응답은 24%로, 응답자의 1/4은 아직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 흑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 3개월 미만
- 6개월 미만
- 1년 미만
- 2년 미만
- 2년 이상 장기화
- 현재로서 판단 어려움



"흑한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자본시장이나 벤처투자시장의 다양한 긍정적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은 결국 미국 금리에 의존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LP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금리가 떨어져야만 하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시장은 좋은 시그널과 좋지 않은 시그널이 계속 공존하기 때문에 설βολ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고 보수적 스탠스는 유지하되 2008년 다시 반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적어도 1년~2년 이내에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리라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 지속 예상 전망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에 대해 1년 미만~2년 미만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의견 14.5%, 현재로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도 9.5% 나타남

엑셀러레이터는 2년 미만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선호 투자 단계가 시리즈 A인 경우는 2년 이상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상대적으로 높으며, 선호 투자 단계가 시리즈 B의 경우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현재 흑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 2.3 | 2.7 | 0.0 | 4.9 | 1.6 | 3.0 | 2.0 | 0.7 | 1.4 | 2.5 | 4.0 | 7.4 | 3.9 | 0.7 | 3.1 | 2.1 |
| 3개월 미만 | 1.1 | 1.1 | 0.0 | 0.0 | 2.5 | 1.4 | 0.0 | 1.4 | 1.4 | 0.8 | 1.0 | 0.0 | 1.3 | 0.7 | 0.0 | 2.1 |
| 6개월 미만 | 5.4 | 4.4 | 8.2 | 9.8 | 4.9 | 5.8 | 5.9 | 3.6 | 6.1 | 5.4 | 5.9 | 7.4 | 6.1 | 5.6 | 6.2 | 4.3 |
| 1년 미만 | 31.3 | 32.6 | 32.9 | 36.1 | 25.4 | 31.2 | 34.0 | 28.8 | 29.7 | 29.7 | 41.6 | 29.6 | 27.6 | 34.3 | 37.1 | 36.2 |
| 2년 미만 | 35.9 | 34.2 | 30.1 | 31.1 | 44.3 | 34.3 | 35.3 | 41.0 | 38.5 | 33.1 | 33.7 | 29.6 | 35.5 | 32.9 | 33.0 | 38.3 |
| 2년 이상 장기화 | 14.5 | 15.1 | 19.2 | 4.9 | 14.8 | 17.1 | 15.0 | 7.2 | 16.9 | 19.7 | 6.9 | 22.2 | 17.5 | 20.3 | 13.4 | 6.4 |
| 알 수 없음/현재로서 판단 어려움 | 9.5 | 9.9 | 9.6 | 13.1 | 6.6 | 7.2 | 7.8 | 17.3 | 6.1 | 8.8 | 6.9 | 3.7 | 7.9 | 5.6 | 7.2 | 10.6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2023년 올해 벤처투자사간 경쟁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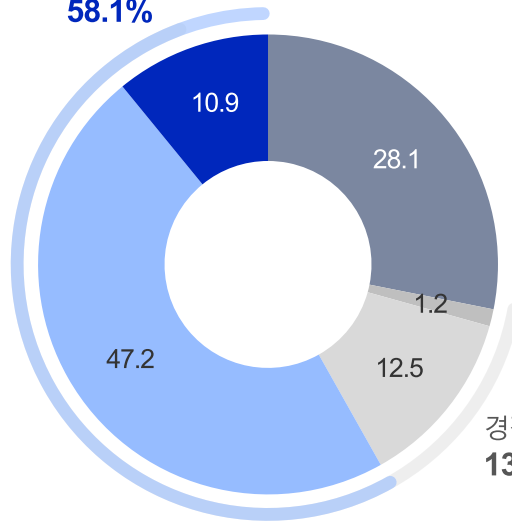
2022년 올해 벤처투자사 간의 경쟁 수준은 심화되었다는 응답이 58.1%로 높음

하지만, 작년 대비 벤처투자사 간의 경쟁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누그러짐(작년 65%, 올해 58%)

펀드를 결성했거나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는 VC들은 상대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경쟁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고, 자금 여력이 없는 VC들은 VC 수의 증가(CVC 등)로 경쟁이 심화하였다고 느끼고 있음

- 매우 심화
- 약간 심화
- 약간 약화
- 매우 약화
- 작년과 비슷

경쟁이 심화되었다
58.1%



경쟁이 약화되었다
13.8%

| | 2022 | 2023 |
|--------|------|------|
| 경쟁 심화됨 | 64.9 | 58.1 |

"펀드를 결성했고 여력이 있는 펀드를 가진 VC들은 투자할 선택지가 많아서 경쟁이 덜해졌다고 느낄 것이고 자금이 없는 VC들은 경쟁이 작년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1월에 기대했던 펀드에 탈락했습니다. 경쟁률이 8:1이었어요"

"작년에는 시장이 얼어붙었으니 경쟁이 더욱 힘들었죠. 올해도 출자 경쟁이 여전히 심하고 크게 좋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1년에 벤처 시장이 활황일 때 이미 VC 수가 엄청 늘었습니다. 대기업 CVC들도 많이 생겼고요. CVC가 많아지면 그만큼 대기업 LP들의 외부 출자가 줄어드니까 VC들의 펀딩 경쟁은 심화되죠. 스타트업들도 여러 군데 VC들에게 투자받기 보다는 대형 VC들에게서 한 번에 큰 투자를 받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전망 좋은 투자 대상 기업들에 대한 VC들의 쏠림도 있고요"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2023년 올해 벤처투자사간 경쟁 수준

VC들 중 58%가 2023년 올해 벤처투자사간의 경쟁 수준이 심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쟁이 심화되는 이유로 LP출자 축소로 펀드 모집의 어려움 > 경쟁 업체의 증가 > 투자 대상 기업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228) | (143) | (97) | (47) |
| 경쟁이 심화 | 58.1 | 58.1 | 52.1 | 62.3 | 59.8 | 55.2 | 54.2 | 69.8 | 59.2 | 53.8 | 53.6 | 40.4 |
| LP 출자 축소로 모집 어려움(LP의 대형사 역량 선호) | 26.1 | 27.7 | 23.3 | 24.6 | 23.0 | 24.3 | 26.8 | 30.2 | 27.6 | 25.9 | 24.7 | 10.6 |
| 경쟁 업체 증가(CVC 등 신규 VC수 증가) | 21.1 | 19.5 | 26.0 | 29.5 | 19.7 | 20.7 | 20.9 | 22.3 | 22.8 | 23.1 | 17.5 | 10.6 |
| 투자 대상 기업 쏠림 현상 | 15.9 | 16.4 | 15.1 | 14.8 | 14.8 | 16.9 | 12.4 | 17.3 | 14.0 | 15.4 | 21.6 | 10.6 |
| 정책자금 감소 | 8.1 | 12.3 | 6.8 | 14.8 | 6.6 | 10.5 | 11.1 | 10.8 | 8.3 | 15.4 | 11.3 | 6.4 |
| 딜 소싱 어려움(신규투자에 대한 제약) | 4.3 | 3.8 | 4.1 | 4.9 | 4.1 | 4.7 | 4.6 | 2.9 | 5.3 | 4.9 | 3.1 | 4.3 |
| 시장경제 상황(침체로 인한 투자기업 실적 악화) | 4.3 | 3.0 | 2.7 | 3.3 | 10.7 | 2.5 | 5.2 | 7.9 | 4.8 | 2.8 | 1.0 | 2.1 |
| 인적자원 문제(이직률 높음, 전문인력/우수인력 확보) | 1.1 | 1.4 | 1.4 | 1.6 | 0.0 | 0.8 | 0.0 | 2.9 | 0.4 | 1.4 | 0.0 | 0.0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Top 10 응답 제시함, 기타 응답 : 펀딩 모집 경쟁 심화, 딜 경쟁 심화, 중소 창투자 진입장벽 높아짐, 회수시장 위축,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 증가, 정책자금 축소, 투자 대상 기업 수 감소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Q. 최근 벤처투자사 간의 경쟁수준에 대해서 OO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2023년 올해 벤처투자사간 경쟁 수준

올해 벤처 투자사 간의 경쟁은 VC의 수적 증가 상황에서 시장 위축과 투자 보수화로 인해 펀드 결성의 경쟁이 작년에 비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남
또한, 가능성 있는 투자 대상 기업에의 쏠림 현상도 있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쟁도 치열함

VC수의 증가

"VC협회 자료를 보면 2019년에 140개였는데 작년 말에 231개입니다. 거의 5년 만에 100개가 늘었어요. 거기다 CVC도 꽤 많아졌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숫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독립한 신생 VC중에는 출자를 못 받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VC 숫자가 국내시장에 비해 너무 많이 늘지 않았나 싶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투자 대상 기업 쏠림 현상

"보수적으로 투자하려다 보니 잘 버틸만하고 가능성 있는 투자기업에 대한 쏠림도 심해졌어요. 소형 VC는 펀드를 만드는 것이나 기업투자도 둘 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소형 VC가 대형 VC보다 민첩하게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서 민첩하게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투자 의지를 밝히면 투자할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거예요"

- ID12 (1조 이상 창투사, 5~7년, 심사역)

벤처투자사 간
경쟁 수준

펀드 여력에 따라 갈라지는 명암/지원 경쟁률 상승

"요즘은 기업가치에 맞는 회수가 어렵고 투자 받으려는 기업은 많지만, VC 입장에서는 자금도 없고 펀드 결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펀드를 결성했거나 여력이 있는 펀드를 갖고 있는 VC들은 상대적으로 투자할 선택지가 많아졌고요. 그런 점에서 VC들 중에서도 시장을 보는 전망이 달라지고 경쟁은 치열한 상황입니다"

- ID15 (천억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VC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서너 군데만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선정이 어려워지니까 여기저기 지원하고 경쟁률이 더 올라갔어요. 경력이나 업력이 오래된 하우스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출자를 받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신생 하우스들은 정량적인 평가에서 약점이 있죠. 서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 ID15 (천억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모태펀드가 60%를 준다고 해도 나머지 출자를 못받아서 최근에는 선정 받고 나서도 펀드 결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형도 그렇습니다"

- ID16 (천억미만 LLC, 10~15년, 심사역)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PART 3

조사 결과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투자 방식 트렌드
- 기업 분석 트렌드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최근 1년 투자 진행(납입 완료) 업종 _대분류

최근 1년 동안 투자 진행한 업종은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업종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유통/서비스 > 전기/기계/장비 > ICT 제조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ICT 서비스 | 105.6 | 99.7 | 96.9 | 104.1 | 137.0 | 100.9 | 117.0 | 129.7 | 102.9 | 78.1 | 100.0 | 102.6 | 101.4 | 116.5 | 110.7 |
| 바이오/의료 | 72.4 | 65.5 | 86.1 | 61.3 | 91.3 | 61.1 | 99.4 | 79.1 | 72.4 | 61.4 | 77.7 | 74.6 | 68.6 | 73.3 | 72.3 |
| 유통/서비스 | 44.3 | 41.0 | 38.5 | 38.8 | 58.8 | 37.9 | 59.5 | 54.1 | 44.3 | 28.7 | 48.1 | 43.5 | 45.5 | 44.4 | 44.6 |
| 전기/기계/장비 | 40.4 | 35.9 | 29.2 | 81.6 | 46.7 | 35.3 | 52.4 | 34.5 | 43.5 | 38.6 | 44.4 | 36.4 | 37.8 | 55.7 | 36.2 |
| ICT 제조 | 39.9 | 41.5 | 33.9 | 51.0 | 41.3 | 31.3 | 60.8 | 42.0 | 36.5 | 46.6 | 44.4 | 35.5 | 43.4 | 41.3 | 49.0 |
| 화학/소재 | 32.8 | 26.9 | 32.3 | 57.1 | 42.4 | 21.9 | 58.8 | 34.4 | 31.2 | 33.6 | 33.3 | 33.3 | 27.3 | 45.3 | 21.3 |
| 영상/공연/음반 | 24.7 | 25.5 | 32.3 | 24.5 | 16.3 | 22.1 | 30.7 | 28.4 | 26.9 | 20.8 | 0.0 | 16.2 | 42.7 | 21.6 | 17.0 |
| 게임 | 16.1 | 15.6 | 20.0 | 10.2 | 16.3 | 14.7 | 19.6 | 25.7 | 12.5 | 11.9 | 11.1 | 13.2 | 22.4 | 13.4 | 17.1 |
| 기타 | 43.7 | 31.1 | 35.3 | 61.1 | 80.3 | 38.5 | 56.3 | 55.6 | 41.9 | 34.7 | 29.6 | 53.0 | 35.0 | 40.2 | 31.9 |
| 투자 업종 개수(개) | 4.2 | 3.8 | 4.0 | 4.9 | 5.3 | 3.6 | 5.5 | 4.8 | 4.3 | 3.7 | 4.1 | 4.1 | 4.2 | 4.5 | 4.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중복 응답, Unit : 응답수%]

최근 1년 투자 진행(납입 완료) 업종 _중분류

ICT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았으며, 바이오/의료 업종에서는 의료용물질/의약품과 의료기기 투자가 많았음
 유통/서비스 업종에서는 도소매업과 전문서비스, ICT 제조 업종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 위주의 투자가 많았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ICT 서비스 | 소계 | 105.6 | 99.7 | 96.9 | 104.1 | 137.0 | 100.9 | 117.0 | 129.7 | 102.9 | 78.1 | 100.0 | 102.6 | 101.4 | 116.5 | 110.7 |
| | 소프트웨어 | 49.9 | 47.9 | 44.6 | 57.1 | 57.6 | 48.1 | 54.2 | 56.1 | 51.5 | 36.6 | 51.9 | 45.6 | 53.1 | 53.6 | 53.2 |
| | 정보서비스 | 42.1 | 40.1 | 43.1 | 38.8 | 53.3 | 39.5 | 48.4 | 52.7 | 39.3 | 35.6 | 33.3 | 42.5 | 36.4 | 48.5 | 44.7 |
| | 통신 | 13.6 | 11.7 | 9.2 | 8.2 | 26.1 | 13.3 | 14.4 | 20.9 | 12.1 | 5.9 | 14.8 | 14.5 | 11.9 | 14.4 | 12.8 |
| 바이오/의료 | 소계 | 72.4 | 65.5 | 86.1 | 61.3 | 91.3 | 61.1 | 99.4 | 79.1 | 72.4 | 61.4 | 77.7 | 74.6 | 68.6 | 73.3 | 72.3 |
| | 의료용물질/의약품 | 30.1 | 30.1 | 29.2 | 28.6 | 32.6 | 25.7 | 40.5 | 29.7 | 30.5 | 27.7 | 37.0 | 32.5 | 28.7 | 28.9 | 25.5 |
| | 의료기기 | 28.7 | 25.5 | 36.9 | 28.6 | 33.7 | 24.6 | 38.6 | 29.1 | 31.0 | 22.8 | 29.6 | 27.2 | 29.4 | 32.0 | 27.7 |
| | 의료시설/서비스 | 13.6 | 9.9 | 20.0 | 4.1 | 25.0 | 10.8 | 20.3 | 20.3 | 10.9 | 10.9 | 11.1 | 14.9 | 10.5 | 12.4 | 19.1 |
| 유통/서비스 | 소계 | 44.3 | 41.0 | 38.5 | 38.8 | 58.8 | 37.9 | 59.5 | 54.1 | 44.3 | 28.7 | 48.1 | 43.5 | 45.5 | 44.4 | 44.6 |
| | 전문서비스 | 14.4 | 15.2 | 7.7 | 8.2 | 19.6 | 12.2 | 19.6 | 16.2 | 14.2 | 9.9 | 22.2 | 15.4 | 13.3 | 12.4 | 17.0 |
| | 도소매업 | 12.0 | 11.3 | 10.8 | 10.2 | 14.1 | 10.5 | 15.7 | 14.2 | 13.8 | 5.9 | 7.4 | 11.4 | 13.3 | 12.4 | 10.6 |
| | 교육 | 7.8 | 6.7 | 6.2 | 6.1 | 12.0 | 6.1 | 11.8 | 11.5 | 5.4 | 5.9 | 14.8 | 7.5 | 8.4 | 7.2 | 8.5 |
| | 숙박/음식업 | 6.4 | 4.3 | 9.2 | 8.2 | 9.8 | 5.5 | 8.5 | 8.8 | 5.9 | 5.0 | 3.7 | 6.1 | 7.0 | 6.2 | 6.4 |
| | 운수 | 3.7 | 3.5 | 4.6 | 6.1 | 3.3 | 3.6 | 3.9 | 3.4 | 5.0 | 2.0 | 0.0 | 3.1 | 3.5 | 6.2 | 2.1 |
| ICT 제조 | 소계 | 39.9 | 41.5 | 33.9 | 51.0 | 41.3 | 31.3 | 60.8 | 34.5 | 43.5 | 38.6 | 44.4 | 35.5 | 43.4 | 41.3 | 49.0 |
| | 반도체/전자부품 | 28.5 | 29.4 | 26.2 | 46.9 | 23.9 | 22.1 | 43.8 | 23.0 | 31.4 | 28.7 | 33.3 | 22.4 | 34.3 | 32.0 | 34.0 |
| | 통신방송장비 | 5.4 | 5.7 | 7.7 | 0.0 | 6.5 | 3.9 | 9.2 | 5.4 | 5.0 | 5.9 | 7.4 | 6.1 | 3.5 | 6.2 | 6.4 |
| | 컴퓨터/주변장치 | 4.1 | 3.9 | 0.0 | 4.1 | 7.6 | 3.6 | 5.2 | 3.4 | 5.0 | 3.0 | 3.7 | 4.8 | 3.5 | 3.1 | 4.3 |
| | 영상음향기기 | 1.9 | 2.5 | 0.0 | 0.0 | 3.3 | 1.7 | 2.6 | 2.7 | 2.1 | 1.0 | 0.0 | 2.2 | 2.1 | 0.0 | 4.3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중복 응답, Unit : 응답수%]

최근 1년 투자 진행(납입 완료) 업종 _중분류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정밀기기, 전기장비, 운송장비/부품이 고루 투자되었으며, 화학/소재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에의 투자가 많았음
 영상/공연/음반에서는 영상, 공연/전시/음악이, 기타에서는 에너지/자원의 투자가 많았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전기/기계/장비 | 소계 | 40.4 | 35.9 | 29.2 | 81.6 | 46.7 | 35.3 | 52.4 | 42.0 | 36.5 | 46.6 | 44.4 | 36.4 | 37.8 | 55.7 | 36.2 |
| | 정밀기기 | 13.6 | 12.8 | 6.2 | 22.4 | 19.6 | 11.3 | 19.0 | 16.9 | 10.5 | 15.8 | 14.8 | 13.6 | 11.2 | 15.5 | 17.0 |
| | 전기장비 | 12.8 | 10.3 | 12.3 | 24.5 | 16.3 | 11.6 | 15.7 | 14.2 | 10.9 | 13.9 | 18.5 | 12.7 | 10.5 | 17.5 | 10.6 |
| | 운송장비/부품 | 9.3 | 7.8 | 9.2 | 24.5 | 6.5 | 8.3 | 11.8 | 6.8 | 9.2 | 12.9 | 11.1 | 7.0 | 9.1 | 17.5 | 4.3 |
| | 일반기계 | 4.7 | 5.0 | 1.5 | 10.2 | 4.3 | 4.1 | 5.9 | 4.1 | 5.9 | 4.0 | 0.0 | 3.1 | 7.0 | 5.2 | 4.3 |
| 화학/소재 | 소계 | 32.8 | 26.9 | 32.3 | 57.1 | 42.4 | 21.9 | 58.8 | 34.4 | 31.2 | 33.6 | 33.3 | 33.3 | 27.3 | 45.3 | 21.3 |
| | 화학물질/제품 | 19.2 | 15.2 | 24.6 | 26.5 | 27.2 | 13.0 | 34.0 | 20.9 | 19.2 | 15.8 | 22.2 | 21.9 | 16.1 | 24.7 | 4.3 |
| | 비금속 | 5.8 | 5.7 | 3.1 | 14.3 | 4.3 | 3.6 | 11.1 | 4.1 | 5.4 | 9.9 | 3.7 | 3.9 | 5.6 | 10.3 | 6.4 |
| | 금속 | 4.5 | 3.9 | 3.1 | 12.2 | 3.3 | 2.8 | 8.5 | 4.7 | 3.3 | 5.9 | 7.4 | 3.1 | 2.8 | 8.2 | 8.5 |
| | 고무/플라스틱 | 3.3 | 2.1 | 1.5 | 4.1 | 7.6 | 2.5 | 5.2 | 4.7 | 3.3 | 2.0 | 0.0 | 4.4 | 2.8 | 2.1 | 2.1 |
| 영상/공연/음반 | 소계 | 24.7 | 25.5 | 32.3 | 24.5 | 16.3 | 22.1 | 30.7 | 28.4 | 26.9 | 20.8 | 0.0 | 16.2 | 42.7 | 21.6 | 17.0 |
| | 영상 | 10.5 | 11.3 | 15.4 | 12.2 | 4.3 | 9.7 | 12.4 | 8.8 | 12.6 | 10.9 | 0.0 | 5.7 | 20.3 | 7.2 | 10.6 |
| | 공연/전시/음악 | 8.2 | 8.2 | 9.2 | 8.2 | 8.7 | 6.6 | 11.8 | 10.8 | 8.4 | 5.9 | 0.0 | 6.1 | 11.9 | 8.2 | 6.4 |
| | 출판/방송 | 6.0 | 6.0 | 7.7 | 4.1 | 3.3 | 5.8 | 6.5 | 8.8 | 5.9 | 4.0 | 0.0 | 4.4 | 10.5 | 6.2 | 0.0 |
| 게임 | 소계 | 16.1 | 15.6 | 20.0 | 10.2 | 16.3 | 14.7 | 19.6 | 25.7 | 12.5 | 11.9 | 11.1 | 13.2 | 22.4 | 13.4 | 17.1 |
| | 게임소프트웨어 | 10.7 | 10.3 | 16.9 | 6.1 | 7.6 | 9.7 | 13.1 | 16.9 | 9.6 | 5.0 | 7.4 | 7.5 | 16.1 | 9.3 | 12.8 |
| | 스포츠/여가 | 5.4 | 5.3 | 3.1 | 4.1 | 8.7 | 5.0 | 6.5 | 8.8 | 2.9 | 6.9 | 3.7 | 5.7 | 6.3 | 4.1 | 4.3 |
| 기타 | 소계 | 43.7 | 31.1 | 35.3 | 61.1 | 80.3 | 38.5 | 56.3 | 55.6 | 41.9 | 34.7 | 29.6 | 53.0 | 35.0 | 40.2 | 31.9 |
| | 에너지/자원 | 11.7 | 6.7 | 13.8 | 22.4 | 21.7 | 8.8 | 18.3 | 13.5 | 12.6 | 7.9 | 7.4 | 14.0 | 10.5 | 10.3 | 6.4 |
| | 음식료 | 9.7 | 6.7 | 9.2 | 12.2 | 15.2 | 7.5 | 15.0 | 11.5 | 8.4 | 10.9 | 7.4 | 10.5 | 9.8 | 10.3 | 4.3 |
| | 금융 | 8.9 | 7.1 | 3.1 | 10.2 | 17.4 | 8.3 | 10.5 | 12.2 | 8.4 | 5.9 | 7.4 | 10.5 | 6.3 | 8.2 | 10.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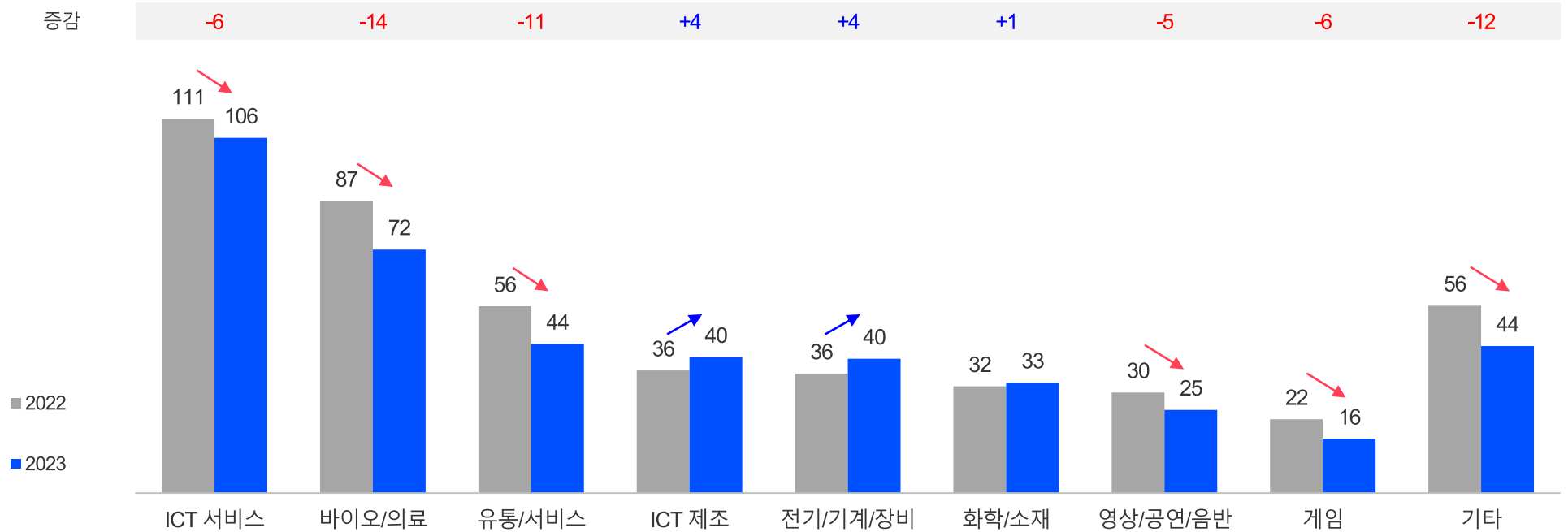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중복 응답, Unit : 응답수%]

최근 1년 투자 진행(납입 완료) 업종 _연도별 추이

최근 1년 동안 VC들의 투자 진행(납입 완료) 업종은 ICT 서비스, 바이오/의료 분야에 몰려 있음

하지만, 작년 대비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영상/공연/음반, 게임 분야에 대한 투자 진행율은 하락하였으며, IC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 분야, 화학/소재에 대한 투자 진행이 작년 대비 상승함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최근 주 투자 업종 _대분류

최근 주 투자 업종은 ICT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이오/의료 > ICT 제조 > 전기/기계/장비 > 영상/공연/음반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ICT 서비스 | 33.2 91.8 | 92.2 | 78.5 | 83.6 | 110.8 | 94.0 | 86.9 | 102.7 | 90.4 | 77.3 | 100.0 | 90.4 | 84.7 | 99.0 | 106.4 |
| 바이오/의료 | 19.4 52.7 | 51.0 | 60.0 | 42.8 | 54.4 | 49.7 | 59.5 | 56.8 | 54.0 | 43.5 | 51.8 | 55.7 | 56.7 | 40.2 | 51.0 |
| ICT 제조 | 18.3 38.9 | 42.6 | 35.3 | 51.0 | 27.2 | 37.8 | 41.2 | 25.0 | 38.9 | 58.5 | 40.7 | 33.3 | 39.2 | 49.6 | 42.5 |
| 전기/기계/장비 | 6.4 26.3 | 26.6 | 16.9 | 51.1 | 20.6 | 27.0 | 24.3 | 19.0 | 22.2 | 44.6 | 33.3 | 28.1 | 23.1 | 30.9 | 17.1 |
| 영상/공연/음반 | 6.0 19.1 | 21.3 | 35.4 | 14.2 | 2.2 | 21.6 | 13.0 | 14.8 | 23.0 | 19.9 | 3.7 | 10.5 | 34.3 | 16.5 | 19.2 |
| 화학/소재 | 4.7 17.8 | 16.3 | 27.6 | 16.3 | 17.4 | 15.4 | 23.5 | 16.3 | 19.3 | 16.9 | 18.5 | 18.9 | 15.4 | 23.7 | 8.5 |
| 유통/서비스 | 3.5 16.9 | 15.6 | 15.5 | 12.2 | 23.9 | 16.6 | 17.7 | 18.3 | 16.7 | 14.9 | 18.5 | 21.4 | 12.6 | 14.4 | 12.8 |
| 게임 | 2.3 5.7 | 6.1 | 10.8 | 0.0 | 2.2 | 5.8 | 5.3 | 8.2 | 5.0 | 4.0 | 3.7 | 2.6 | 10.5 | 3.1 | 10.7 |
| 기타 | 6.3 16.8 | 15.3 | 6.1 | 20.2 | 21.8 | 16.7 | 17.1 | 19.7 | 17.5 | 11.9 | 11.1 | 20.5 | 12.6 | 12.3 | 19.1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2.9개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Q. 귀하께서 주로 투자하시는 업종은 무엇인지 주로 투자하는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최근 주 투자 업종 _ 중분류

ICT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분야, 바이오/의료 업종에서는 의료용물질/의약품과 의료기기 주 투자가 많았음
 ICT 제조 업종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 위주로 최근 주로 투자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ICT 서비스 | 소계 | 91.8 | 92.2 | 78.5 | 83.6 | 110.8 | 94.0 | 86.9 | 102.7 | 90.4 | 77.3 | 100.0 | 90.4 | 84.7 | 99.0 | 106.4 |
| | 소프트웨어 | 45.2 | 45.0 | 40.0 | 46.9 | 50.0 | 46.7 | 41.8 | 48.6 | 43.1 | 43.6 | 51.9 | 40.4 | 48.3 | 48.5 | 53.2 |
| | 정보서비스 | 38.6 | 39.0 | 35.4 | 30.6 | 47.8 | 38.7 | 38.6 | 44.6 | 37.7 | 31.7 | 40.7 | 40.4 | 31.5 | 42.3 | 44.7 |
| | 통신 | 8.0 | 8.2 | 3.1 | 6.1 | 13.0 | 8.6 | 6.5 | 9.5 | 9.6 | 2.0 | 7.4 | 9.6 | 4.9 | 8.2 | 8.5 |
| 바이오/의료 | 소계 | 52.7 | 51.0 | 60.0 | 42.8 | 54.4 | 49.7 | 59.5 | 56.8 | 54.0 | 43.5 | 51.8 | 55.7 | 56.7 | 40.2 | 51.0 |
| | 의료용물질/의약품 | 21.6 | 23.0 | 16.9 | 16.3 | 20.7 | 18.8 | 28.1 | 21.6 | 23.0 | 17.8 | 22.2 | 23.2 | 21.0 | 18.6 | 21.3 |
| | 의료기기 | 20.6 | 18.4 | 26.2 | 22.4 | 20.7 | 20.4 | 20.9 | 20.3 | 21.8 | 17.8 | 22.2 | 21.1 | 24.5 | 14.4 | 19.1 |
| | 의료시설/서비스 | 10.5 | 9.6 | 16.9 | 4.1 | 13.0 | 10.5 | 10.5 | 14.9 | 9.2 | 7.9 | 7.4 | 11.4 | 11.2 | 7.2 | 10.6 |
| 유통/서비스 | 소계 | 16.9 | 15.6 | 15.5 | 12.2 | 23.9 | 16.6 | 17.7 | 18.3 | 16.7 | 14.9 | 18.5 | 21.4 | 12.6 | 14.4 | 12.8 |
| | 전문서비스 | 8.7 | 9.2 | 3.1 | 4.1 | 12.0 | 8.8 | 8.5 | 10.1 | 9.6 | 6.9 | 0.0 | 11.8 | 4.9 | 8.2 | 6.4 |
| | 도소매업 | 4.9 | 5.0 | 3.1 | 6.1 | 5.4 | 5.0 | 4.6 | 3.4 | 5.0 | 5.0 | 11.1 | 4.8 | 4.9 | 5.2 | 4.3 |
| | 교육 | 1.7 | 0.7 | 3.1 | 0.0 | 5.4 | 1.1 | 3.3 | 3.4 | 0.4 | 2.0 | 3.7 | 3.1 | 0.7 | 0.0 | 2.1 |
| | 숙박/음식업 | 1.2 | 0.7 | 6.2 | 0.0 | 0.0 | 1.1 | 1.3 | 0.7 | 1.3 | 1.0 | 3.7 | 1.3 | 1.4 | 1.0 | 0.0 |
| | 운수 | 0.4 | 0.0 | 0.0 | 2.0 | 1.1 | 0.6 | 0.0 | 0.7 | 0.4 | 0.0 | 0.0 | 0.4 | 0.7 | 0.0 | 0.0 |
| ICT 제조 | 소계 | 38.9 | 42.6 | 35.3 | 51.0 | 27.2 | 37.8 | 41.2 | 25.0 | 38.9 | 58.5 | 40.7 | 33.3 | 39.2 | 49.6 | 42.5 |
| | 반도체/전자부품 | 33.2 | 34.8 | 33.8 | 49.0 | 22.8 | 32.0 | 35.9 | 20.9 | 32.6 | 51.5 | 37.0 | 28.9 | 32.2 | 42.3 | 38.3 |
| | 통신방송장비 | 1.4 | 2.1 | 0.0 | 0.0 | 1.1 | 1.7 | 0.7 | 0.7 | 0.8 | 3.0 | 3.7 | 1.3 | 0.7 | 2.1 | 2.1 |
| | 컴퓨터/주변장치 | 3.5 | 4.6 | 1.5 | 2.0 | 2.2 | 3.0 | 4.6 | 3.4 | 4.2 | 3.0 | 0.0 | 1.8 | 5.6 | 5.2 | 2.1 |
| | 영상음향기기 | 0.8 | 1.1 | 0.0 | 0.0 | 1.1 | 1.1 | 0.0 | 0.0 | 1.3 | 1.0 | 0.0 | 1.3 | 0.7 | 0.0 | 0.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최근 주 투자 업종 _중분류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정밀기기, 전기장비 분야 투자가 많았으며, 화학/소재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에의 주 투자가 많았음
기타 투자로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최근 투자가 많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전기/기계/장비 | 소계 | 26.3 | 26.6 | 16.9 | 51.1 | 20.6 | 27.0 | 24.3 | 19.0 | 22.2 | 44.6 | 33.3 | 28.1 | 23.1 | 30.9 | 17.1 |
| | 정밀기기 | 8.0 | 8.5 | 1.5 | 16.3 | 7.6 | 7.5 | 9.2 | 6.8 | 5.4 | 14.9 | 11.1 | 7.0 | 9.1 | 10.3 | 4.3 |
| | 전기장비 | 8.0 | 7.8 | 3.1 | 18.4 | 5.4 | 8.8 | 5.9 | 4.1 | 7.1 | 13.9 | 14.8 | 8.8 | 4.9 | 12.4 | 4.3 |
| | 운송장비/부품 | 5.4 | 5.0 | 9.2 | 8.2 | 4.3 | 5.2 | 5.9 | 4.7 | 5.9 | 6.9 | 0.0 | 6.6 | 6.3 | 4.1 | 0.0 |
| | 일반기계 | 4.9 | 5.3 | 3.1 | 8.2 | 3.3 | 5.5 | 3.3 | 3.4 | 3.8 | 8.9 | 7.4 | 5.7 | 2.8 | 4.1 | 8.5 |
| 화학/소재 | 소계 | 17.8 | 16.3 | 27.6 | 16.3 | 17.4 | 15.4 | 23.5 | 16.3 | 19.3 | 16.9 | 18.5 | 18.9 | 15.4 | 23.7 | 8.5 |
| | 화학물질/제품 | 12.6 | 10.3 | 24.6 | 10.2 | 13.0 | 11.0 | 16.3 | 12.2 | 13.0 | 11.9 | 14.8 | 14.9 | 9.8 | 15.5 | 4.3 |
| | 비금속 | 2.5 | 2.8 | 1.5 | 4.1 | 1.1 | 1.9 | 3.9 | 2.0 | 2.9 | 3.0 | 0.0 | 1.3 | 3.5 | 4.1 | 2.1 |
| | 금속 | 1.9 | 2.5 | 1.5 | 2.0 | 1.1 | 1.9 | 2.0 | 1.4 | 2.1 | 2.0 | 3.7 | 1.8 | 1.4 | 3.1 | 2.1 |
| | 고무/플라스틱 | 0.8 | 0.7 | 0.0 | 0.0 | 2.2 | 0.6 | 1.3 | 0.7 | 1.3 | 0.0 | 0.0 | 0.9 | 0.7 | 1.0 | 0.0 |
| 영상/공연/음반 | 소계 | 19.1 | 21.3 | 35.4 | 14.2 | 2.2 | 21.6 | 13.0 | 14.8 | 23.0 | 19.9 | 3.7 | 10.5 | 34.3 | 16.5 | 19.2 |
| | 영상 | 8.2 | 8.5 | 16.9 | 10.2 | 0.0 | 9.4 | 5.2 | 5.4 | 9.2 | 11.9 | 0.0 | 4.8 | 14.0 | 7.2 | 8.5 |
| | 공연/전시/음악 | 6.0 | 6.4 | 10.8 | 2.0 | 2.2 | 6.4 | 5.2 | 4.7 | 8.4 | 4.0 | 0.0 | 4.4 | 9.8 | 4.1 | 6.4 |
| | 출판/방송 | 4.9 | 6.4 | 7.7 | 2.0 | 0.0 | 5.8 | 2.6 | 4.7 | 5.4 | 4.0 | 3.7 | 1.3 | 10.5 | 5.2 | 4.3 |
| 게임 | 소계 | 5.7 | 6.1 | 10.8 | 0.0 | 2.2 | 5.8 | 5.3 | 8.2 | 5.0 | 4.0 | 3.7 | 2.6 | 10.5 | 3.1 | 10.7 |
| | 게임소프트웨어 | 4.1 | 5.0 | 7.7 | 0.0 | 0.0 | 3.9 | 4.6 | 6.8 | 3.3 | 3.0 | 0.0 | 1.3 | 8.4 | 3.1 | 6.4 |
| | 스포츠/여가 | 1.6 | 1.1 | 3.1 | 0.0 | 2.2 | 1.9 | 0.7 | 1.4 | 1.7 | 1.0 | 3.7 | 1.3 | 2.1 | 0.0 | 4.3 |
| 기타 | 소계 | 16.8 | 15.3 | 6.1 | 20.2 | 21.8 | 16.7 | 17.1 | 19.7 | 17.5 | 11.9 | 11.1 | 20.5 | 12.6 | 12.3 | 19.1 |
| | 에너지/자원 | 7.8 | 6.4 | 3.1 | 12.2 | 12.0 | 7.2 | 9.2 | 9.5 | 7.5 | 6.9 | 3.7 | 8.3 | 4.9 | 10.3 | 8.5 |
| | 음식료 | 1.4 | 1.8 | 1.5 | 0.0 | 0.0 | 1.7 | 0.7 | 1.4 | 2.1 | 0.0 | 0.0 | 1.3 | 2.1 | 1.0 | 0.0 |
| | 금융 | 3.7 | 3.9 | 0.0 | 2.0 | 6.5 | 4.1 | 2.6 | 4.7 | 3.3 | 3.0 | 3.7 | 4.8 | 2.8 | 0.0 | 8.5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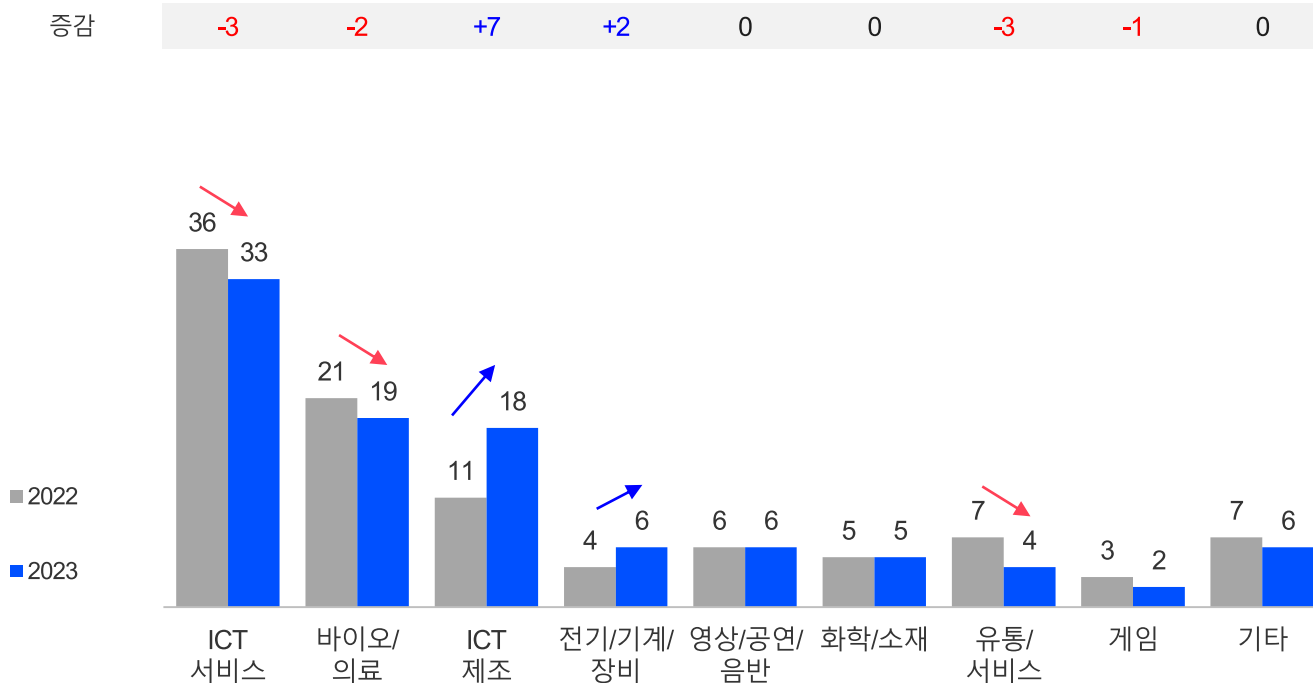
* 기타 중분류의 경우 1% 미만 항목 생략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최근 주 투자 업종 _연도별 추이

작년 대비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유통/서비스 분야에 대한 주 투자 비율은 하락하였으며, IT 제조와 전기/기계/장비 분야에 대한 주 투자 비율이 상승함
 ICT 서비스의 AI/빅데이터 관련 투자는 실적을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나오지 않고 업계 특성상 기술 트렌드가 너무 빨라서 경쟁력이 쉽게 떨어지는 상황을 겪으면서 매력도가 하락함

바이오/의료 분야는 기술특례 상장의 규제로 인한 회수 가능성이 하락하면서 밸류에이션이 하락하고 투자가 감소하였으며,
 ICT 제조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반도체 분야의 파이가 커지고 있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미래가치나 성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음



"바이오/의료분야는 버블이 깨지고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적 지원에 제약이 생기면서 회수 가능성이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신약 개발 쪽에 투자가 감소하였어요. ICT 서비스는 AI나 빅데이터 관련한 투자가 많았는데, AI는 생각보다 실적을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기술 트렌드 때문이기도 하고 업체 간에 차별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ICT 제조는 주로 반도체인데 절대적으로 산업의 파이가 커진 것이 반도체 산업이고 앞으로 가치가 높다고 보입니다"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투자 고려 업종 _대분류

투자 고려 업종으로 ICT 서비스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바이오/의료 > ICT 제조 > 전기/기계/장비 순으로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ICT 서비스 | 29.4 83.4 | 86.9 | 61.6 | 67.4 | 100.1 | 86.2 | 77.2 | 93.2 | 79.9 | 79.3 | 77.7 | 85.1 | 74.9 | 86.7 | 95.8 |
| 바이오/의료 | 17.6 47.4 | 44.7 | 61.6 | 36.8 | 52.2 | 45.8 | 51.0 | 48.6 | 51.5 | 37.7 | 40.7 | 53.2 | 49.0 | 32.0 | 46.8 |
| ICT 제조 | 17.7 39.8 | 43.6 | 40.0 | 53.1 | 28.3 | 36.6 | 47.7 | 25.8 | 40.2 | 56.4 | 51.8 | 31.5 | 42.0 | 48.5 | 55.4 |
| 전기/기계/장비 | 7.1 27.1 | 24.5 | 21.5 | 55.1 | 25.0 | 26.8 | 27.4 | 27.1 | 21.3 | 40.6 | 25.9 | 28.9 | 23.1 | 31.9 | 19.2 |
| 화학/소재 | 7.8 23.7 | 25.6 | 23.0 | 40.8 | 9.8 | 20.9 | 30.1 | 14.2 | 27.7 | 24.9 | 37.0 | 25.9 | 20.3 | 29.9 | 10.6 |
| 영상/공연/음반 | 5.5 16.7 | 20.2 | 32.3 | 2.0 | 4.4 | 18.8 | 11.8 | 11.6 | 23.0 | 13.8 | 0.0 | 10.5 | 28.7 | 14.5 | 15.0 |
| 유통/서비스 | 4.0 15.8 | 13.8 | 13.9 | 14.2 | 23.9 | 16.3 | 15.1 | 20.3 | 15.2 | 11.9 | 14.8 | 15.8 | 14.7 | 21.6 | 8.6 |
| 게임 | 3.1 6.8 | 6.1 | 9.2 | 4.1 | 5.5 | 7.2 | 5.9 | 9.5 | 6.2 | 4.0 | 7.4 | 4.0 | 11.2 | 4.1 | 12.7 |
| 기타 | 7.8 25.3 | 22.0 | 21.5 | 26.4 | 31.6 | 24.3 | 27.5 | 30.4 | 25.1 | 19.9 | 18.5 | 31.1 | 19.6 | 23.6 | 17.0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최대 3순위 누계 평균 응답 수 2.9개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Q. 현재 귀하께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많이 고려하고 계신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투자 고려 업종 _중분류

ICT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분야, 바이오/의료 업종에서는 의료용물질/의약품과 의료기기 투자 고려율이 높음
 ICT 제조 업종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 위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유통/서비스 업종에서는 전문서비스 분야를 고려하고 있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ICT 서비스 | 소계 | 83.4 | 86.9 | 61.6 | 67.4 | 100.1 | 86.2 | 77.2 | 93.2 | 79.9 | 79.3 | 77.7 | 85.1 | 74.9 | 86.7 | 95.8 |
| | 소프트웨어 | 41.7 | 42.9 | 30.8 | 38.8 | 44.6 | 43.6 | 37.3 | 44.6 | 38.9 | 44.6 | 40.7 | 43.4 | 35.7 | 45.4 | 44.7 |
| | 정보서비스 | 33.4 | 34.8 | 23.1 | 24.5 | 45.7 | 35.4 | 28.8 | 40.5 | 30.5 | 29.7 | 33.3 | 32.9 | 30.8 | 36.1 | 38.3 |
| | 통신 | 8.3 | 9.2 | 7.7 | 4.1 | 9.8 | 7.2 | 11.1 | 8.1 | 10.5 | 5.0 | 3.7 | 8.8 | 8.4 | 5.2 | 12.8 |
| 바이오/의료 | 소계 | 47.4 | 44.7 | 61.6 | 36.8 | 52.2 | 45.8 | 51.0 | 48.6 | 51.5 | 37.7 | 40.7 | 53.2 | 49.0 | 32.0 | 46.8 |
| | 의료용물질/의약품 | 17.7 | 16.7 | 16.9 | 14.3 | 22.8 | 16.3 | 20.9 | 19.6 | 17.6 | 13.9 | 22.2 | 21.1 | 16.1 | 12.4 | 17.0 |
| | 의료기기 | 19.6 | 20.2 | 26.2 | 14.3 | 17.4 | 19.6 | 19.6 | 15.5 | 23.0 | 18.8 | 14.8 | 21.1 | 21.0 | 15.5 | 17.0 |
| | 의료시설/서비스 | 10.1 | 7.8 | 18.5 | 8.2 | 12.0 | 9.9 | 10.5 | 13.5 | 10.9 | 5.0 | 3.7 | 11.0 | 11.9 | 4.1 | 12.8 |
| 유통/서비스 | 소계 | 15.8 | 13.8 | 13.9 | 14.2 | 23.9 | 16.3 | 15.1 | 20.3 | 15.2 | 11.9 | 14.8 | 15.8 | 14.7 | 21.6 | 8.6 |
| | 전문서비스 | 8.5 | 7.1 | 6.2 | 10.2 | 14.1 | 8.6 | 8.5 | 12.8 | 6.7 | 8.9 | 0.0 | 8.3 | 9.8 | 9.3 | 4.3 |
| | 도소매업 | 2.7 | 3.2 | 3.1 | 0.0 | 2.2 | 2.2 | 3.9 | 2.0 | 3.8 | 1.0 | 3.7 | 3.1 | 0.7 | 6.2 | 0.0 |
| | 교육 | 1.9 | 1.4 | 1.5 | 0.0 | 5.4 | 1.9 | 2.0 | 3.4 | 1.3 | 1.0 | 3.7 | 2.6 | 0.0 | 4.1 | 0.0 |
| | 숙박/음식업 | 1.7 | 1.4 | 3.1 | 2.0 | 0.0 | 2.2 | 0.7 | 0.7 | 2.1 | 1.0 | 7.4 | 0.9 | 2.8 | 1.0 | 4.3 |
| | 운수 | 1.0 | 0.7 | 0.0 | 2.0 | 2.2 | 1.4 | 0.0 | 1.4 | 1.3 | 0.0 | 0.0 | 0.9 | 1.4 | 1.0 | 0.0 |
| ICT 제조 | 소계 | 39.8 | 43.6 | 40.0 | 53.1 | 28.3 | 36.6 | 47.7 | 25.8 | 40.2 | 56.4 | 51.8 | 31.5 | 42.0 | 48.5 | 55.4 |
| | 반도체/전자부품 | 34.6 | 37.2 | 38.5 | 44.9 | 25.0 | 31.5 | 41.8 | 23.0 | 35.6 | 45.5 | 48.1 | 27.6 | 37.8 | 41.2 | 44.7 |
| | 통신방송장비 | 2.1 | 3.2 | 0.0 | 0.0 | 1.1 | 1.7 | 3.3 | 1.4 | 2.1 | 3.0 | 3.7 | 2.2 | 1.4 | 2.1 | 4.3 |
| | 컴퓨터/주변장치 | 2.7 | 2.8 | 1.5 | 8.2 | 1.1 | 2.8 | 2.6 | 0.7 | 2.5 | 6.9 | 0.0 | 1.3 | 2.8 | 5.2 | 4.3 |
| | 영상음향기기 | 0.4 | 0.4 | 0.0 | 0.0 | 1.1 | 0.6 | 0.0 | 0.7 | 0.0 | 1.0 | 0.0 | 0.4 | 0.0 | 0.0 | 2.1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투자 고려 업종 _중분류

전기/기계/장비 업종에서는 정밀기기, 전기장비, 운송장비/부품 등 다양한 세부 분야에의 투자 고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화학/소재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 분야에 대한 투자 고려가 높았으며, 기타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고려가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전기/기계/장비 | 소계 | 27.1 | 24.5 | 21.5 | 55.1 | 25.0 | 26.8 | 27.4 | 27.1 | 21.3 | 40.6 | 25.9 | 28.9 | 23.1 | 31.9 | 19.2 |
| | 정밀기기 | 8.2 | 6.4 | 4.6 | 16.3 | 12.0 | 8.8 | 6.5 | 11.5 | 5.4 | 9.9 | 7.4 | 10.1 | 4.9 | 11.3 | 2.1 |
| | 전기장비 | 7.8 | 7.1 | 7.7 | 18.4 | 6.5 | 6.4 | 11.1 | 6.8 | 6.7 | 11.9 | 7.4 | 7.0 | 9.8 | 8.2 | 4.3 |
| | 운송장비/부품 | 6.8 | 7.1 | 7.7 | 10.2 | 4.3 | 6.4 | 7.8 | 5.4 | 5.9 | 10.9 | 7.4 | 7.9 | 4.9 | 7.2 | 6.4 |
| | 일반기계 | 4.3 | 3.9 | 1.5 | 10.2 | 2.2 | 5.2 | 2.0 | 3.4 | 3.3 | 7.9 | 3.7 | 3.9 | 3.5 | 5.2 | 6.4 |
| 화학/소재 | 소계 | 23.7 | 25.6 | 23.0 | 40.8 | 9.8 | 20.9 | 30.1 | 14.2 | 27.7 | 24.9 | 37.0 | 25.9 | 20.3 | 29.9 | 10.6 |
| | 화학물질/제품 | 15.3 | 16.0 | 16.9 | 24.5 | 7.6 | 13.8 | 19.0 | 10.1 | 17.2 | 14.9 | 29.6 | 18.0 | 13.3 | 16.5 | 6.4 |
| | 비금속 | 4.3 | 4.3 | 4.6 | 10.2 | 1.1 | 3.3 | 6.5 | 2.7 | 4.6 | 5.0 | 7.4 | 3.5 | 4.9 | 7.2 | 0.0 |
| | 금속 | 2.9 | 3.5 | 1.5 | 6.1 | 0.0 | 3.0 | 2.6 | 0.7 | 4.2 | 4.0 | 0.0 | 2.6 | 2.1 | 5.2 | 2.1 |
| | 고무/플라스틱 | 1.2 | 1.8 | 0.0 | 0.0 | 1.1 | 0.8 | 2.0 | 0.7 | 1.7 | 1.0 | 0.0 | 1.8 | 0.0 | 1.0 | 2.1 |
| 영상/공연/음반 | 소계 | 16.7 | 20.2 | 32.3 | 2.0 | 4.4 | 18.8 | 11.8 | 11.6 | 23.0 | 13.8 | 0.0 | 10.5 | 28.7 | 14.5 | 15.0 |
| | 영상 | 6.8 | 8.9 | 12.3 | 0.0 | 1.1 | 8.6 | 2.6 | 4.1 | 9.2 | 6.9 | 0.0 | 3.5 | 11.9 | 7.2 | 6.4 |
| | 공연/전시/음악 | 6.4 | 6.7 | 12.3 | 2.0 | 3.3 | 6.6 | 5.9 | 4.1 | 8.8 | 5.9 | 0.0 | 6.1 | 8.4 | 5.2 | 4.3 |
| | 출판/방송 | 3.5 | 4.6 | 7.7 | 0.0 | 0.0 | 3.6 | 3.3 | 3.4 | 5.0 | 1.0 | 0.0 | 0.9 | 8.4 | 2.1 | 4.3 |
| 게임 | 소계 | 6.8 | 6.1 | 9.2 | 4.1 | 5.5 | 7.2 | 5.9 | 9.5 | 6.2 | 4.0 | 7.4 | 4.0 | 11.2 | 4.1 | 12.7 |
| | 게임소프트웨어 | 5.8 | 5.7 | 7.7 | 4.1 | 3.3 | 6.1 | 5.2 | 8.1 | 5.4 | 4.0 | 3.7 | 3.1 | 9.8 | 4.1 | 10.6 |
| | 스포츠/여가 | 1.0 | 0.4 | 1.5 | 0.0 | 2.2 | 1.1 | 0.7 | 1.4 | 0.8 | 0.0 | 3.7 | 0.9 | 1.4 | 0.0 | 2.1 |
| 기타 | 소계 | 25.3 | 22.0 | 21.5 | 26.4 | 31.6 | 24.3 | 27.5 | 30.4 | 25.1 | 19.9 | 18.5 | 31.1 | 19.6 | 23.6 | 17.0 |
| | 에너지/자원 | 14.2 | 12.1 | 7.7 | 16.3 | 18.5 | 13.0 | 17.0 | 18.2 | 13.4 | 9.9 | 14.8 | 17.1 | 9.1 | 16.5 | 10.6 |
| | 음식료 | 3.5 | 3.2 | 7.7 | 2.0 | 3.3 | 4.1 | 2.0 | 6.1 | 2.9 | 2.0 | 0.0 | 5.3 | 2.8 | 2.1 | 0.0 |
| | 금융 | 2.9 | 2.1 | 0.0 | 4.1 | 5.4 | 2.5 | 3.9 | 5.4 | 2.5 | 1.0 | 0.0 | 3.9 | 2.1 | 1.0 | 4.3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 기타 중분류의 경우 2% 미만 항목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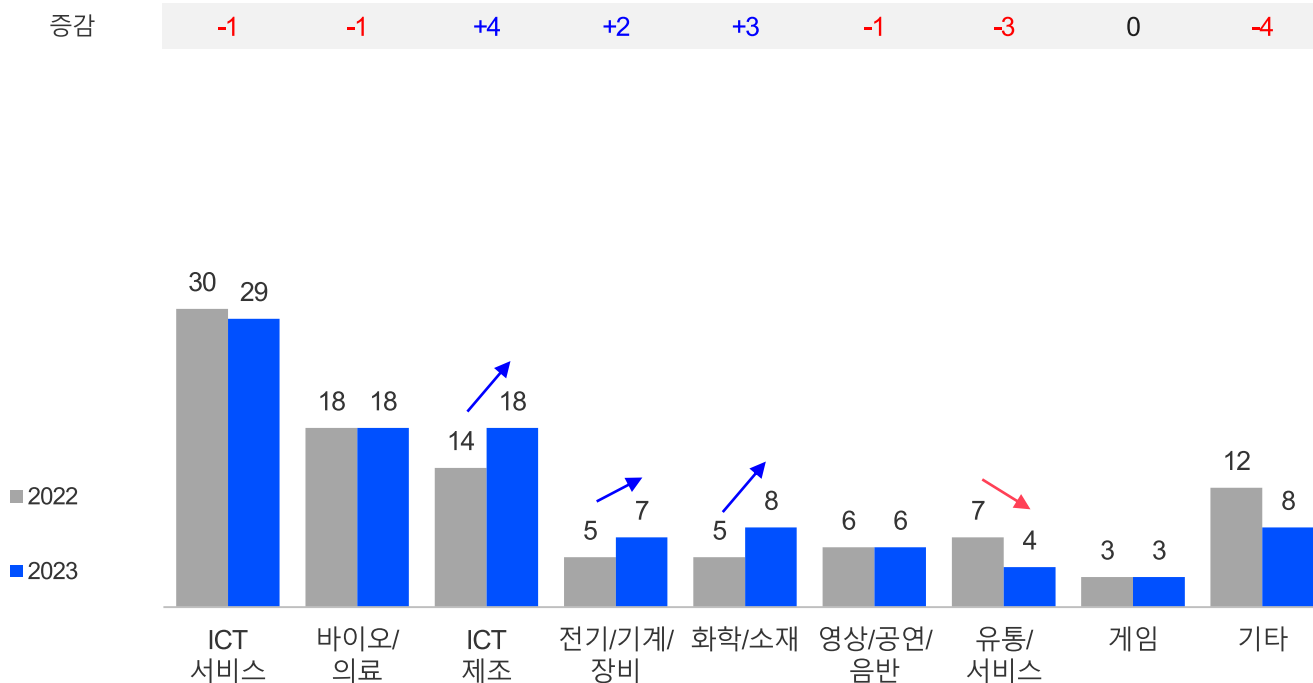
Q. 현재 귀하께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많이 고려하고 계신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투자 고려 업종 _연도별 추이

최근 2년 동안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고려해 오고 있으나 소폭 감소가 보임

작년 대비 투자 고려율이 큰 폭 상승한 업종은 ICT 제조, 화학/소재, 전기/기계/장비 분야이며, 유통/서비스 업종은 작년 대비 투자 고려율이 하락함

ICT 제조와 화학/소재, 전기/기계/장비 분야는 반도체 요소기술의 각광과 함께 관련 부품 소재 분야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유통/서비스는 투자 대비 회의적 실적 때문에 투자에 보수적인 관점이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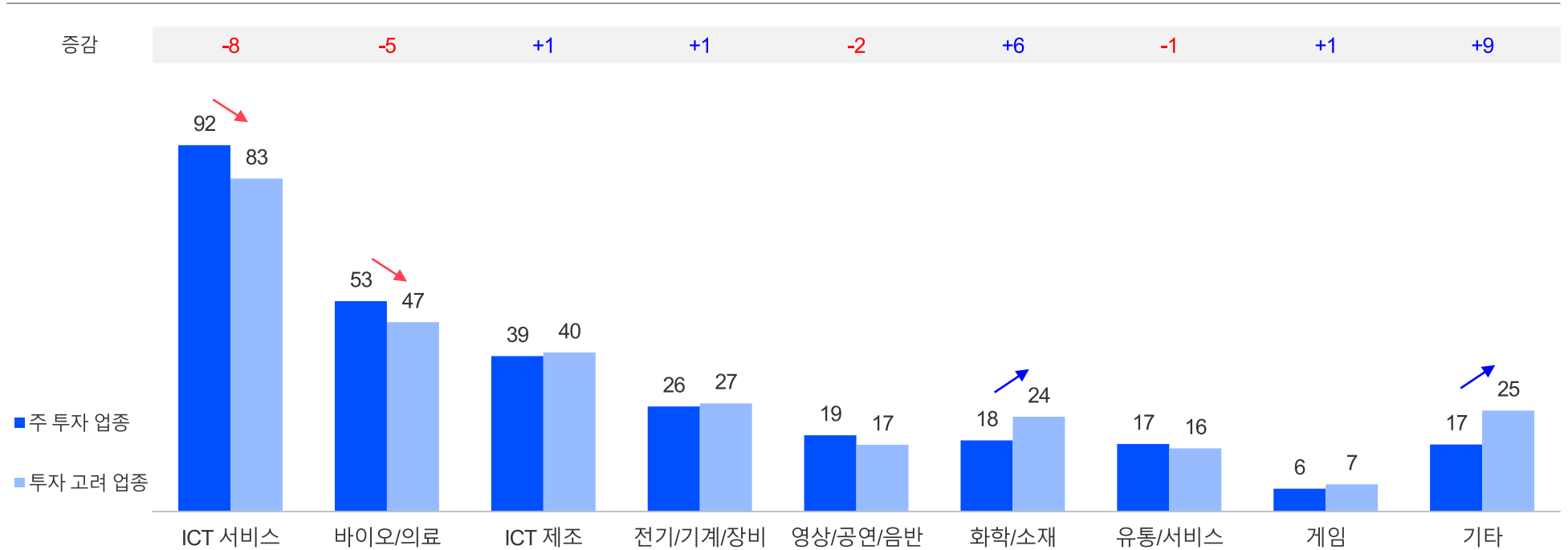


"바이오와 ICT 서비스는 매력도가 떨어졌지만 투자 고려업종으로 여전히 높은 Portion인 만큼, 쉽게 투자 규모가 작아질 업종은 아니에요. 다만 파이가 다른 업종으로 조금 나눠 가진 것이죠. ICT 제조가 투자 고려업종으로 늘어난 건 주로 반도체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고 관련된 부품 소재 분야 즉, 소부장이 엄청 커졌습니다. 유통은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회의적인 업종이 된거고요"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투자 업종 트렌드 _대분류

주 투자업종과 현재 투자를 고려하는 업종을 비교해본 결과, ICT 서비스와 바이오/의료 업종은 업종 순위 1~2위는 유지되고 있으나 투자 고려율이 하락함 반면, 화학/소재와 기타 업종의 투자 고려율이 상승함



주 투자 업종 순으로 Sorting, 가독성을 위해 소수점 0자리로 표기,
주 투자 업종 3순위 평균 응답 수 : 2.9개 / 투자 고려 업종 3순위 평균 응답 수 : 2.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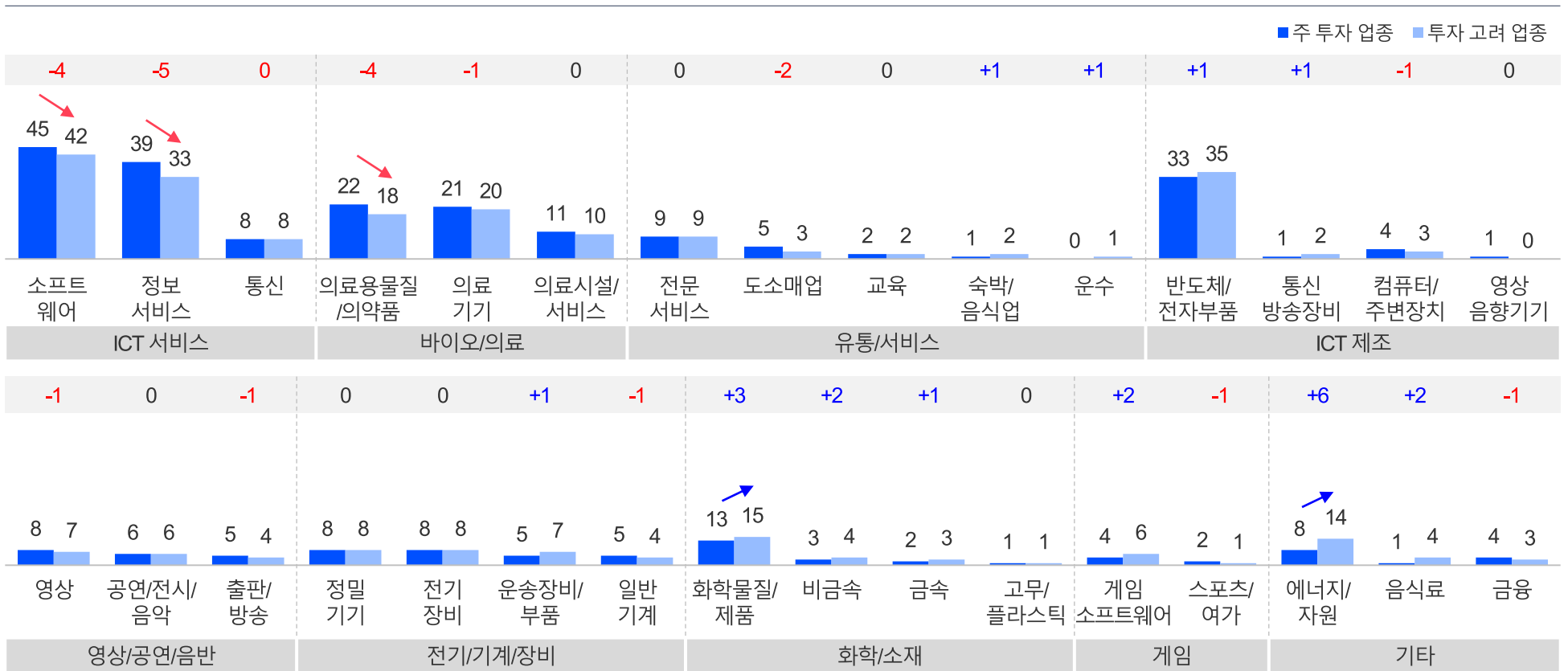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Qu. 주로 투자하시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현재 귀하께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투자 업종 트렌드 _중분류

ICT 서비스 업종의 하락은 특히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업종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지며, 바이오/의료의 하락은 의료용 물질/의약품 분야에 대한 투자 고려율의 하락이 눈에 띈다

화학/소재 업종에서는 화학물질/제품 분야와 비금속 분야의 투자 고려율의 상승이 나타났으며, 기타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투자 고려가 늘어남



가독성을 위해 소수점 0자리로 표기, 주 투자 업종 3순위 평균 응답 수 : 2.9개 / 투자 고려 업종 3순위 평균 응답 수 : 2.9개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응답, Unit : 응답수 %]

Q. 주로 투자하시는 업종은 무엇입니까? / 현재 귀하께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업종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투자 고려 업종 키워드

투자 고려 업종의 키워드로 주로 인공지능, 커머스, 플랫폼, SaaS(Software as a Service) 등이 최다 응답하여 ICT 서비스 업종에 대한 트렌드를 엿볼 수 있음
그 외에도 메타버스, 신약 개발, 소재, 반도체, 2차 전지, 치료제 응답이 많았으며, 신재생에너지, 의료기기, 모빌리티, 탄소중립, 소부장 등 다양한 키워드를 응답함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중복 응답, Unit : %]

Qu. 투자를 고려하시는 업종에 대해 관심 있는 세부 분야와 키워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투자 고려 업종 키워드

투자 고려 업종 키워드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ICT 서비스와 ICT 제조, 바이오/헬스, 화학/소재 분야의 키워드 응답이 많음

ICT 서비스 분야는 AI, SaaS, 정보보안, 스마트 팩토리, 클라우드 응답이 많았으며, ICT 제조는 반도체 관련 키워드와 소재 부품 장비 키워드가 주를 이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신약개발과 치료제, AI융합 바이오 기술, 화학/소재 분야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주된 키워드로 나타남

ICT 서비스(31.3%)

- 인공지능/ AI
- SaaS
- 정보보안
- 스마트팩토리/ 물류/ 팜
- 클라우드
- AI 기반 분석
- 빅데이터
- 메타버스

ICT 제조(19.8%)

- 반도체(시스템/ 비메모리)
- 반도체(장비/ 전력/ 차세대/ AI)
- 반도체(팹리스)
-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헬스케어(16.7%)

- 신약 개발
- 치료제(유전자, 항암, 세포)
- AI 융합 바이오 기술
- ADC
- 조기진단기술
-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화학/소재(12.4%)

- 2차 전지
- 배터리
- 신소재
- 리사이클 추출

에너지/환경(5.6%)

- 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 ESS/ 에너지 저장장치
- 전력 그리드
- 산업폐기물 관련 SRF

전기/기계/장비(4.5%)

- 로봇
- 전기차/ 전기차 부품
-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 친환경 모빌리티

유통/커머스(2.5%)

- 조각투자 플랫폼
- 교육 플랫폼
- B2C 플랫폼
- 물류 플랫폼

영상/공연/음반(5.2%)

- 콘텐츠
- K콘텐츠
- 영화
- 드라마 제작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중복 응답, Unit : %]

투자 업종 트렌드

바이오 업종은 기술특례 상장 요건의 변화로 회수가 지연되고, 상장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 시장에서 실망감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하락함
 바이오 기업들은 후속 투자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VC들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확실한 상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중단하고 있음
 한편, 업종에 대한 미래 낙관론을 바탕으로 낮아진 기업 밸류에이션이기에 초기 단계에 투자할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도 많음

바이오 열기 주춤 : 상장요건 규제강화

"지금 바이오는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요. 10개 투자했다면 하나만 살리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거든요. 원인은 상장이 안 되기 때문이죠. 기술특례 상장에 매출요건이 나오면서 열기가 꺾였어요. 바이오의 장점인 License-out도 최근에는 어려워졌고요"

- ID14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바이오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고, 확실한 상장 가능 업체들은 투자받고, 자체적인 수익모델이 안되는 업체는 퇴출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바이오 색채를 없애고 ESG로 들어와서 성공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예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정부가 기술특례 상장의 주된 업종 자체를 소부장 기업 쪽으로 Shifting 하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의 상장이 더뎠어요. 글로벌도 바이오테크 주가가 많이 하락했고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바이오가 상장사들 몇 곳이라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시장에서 신뢰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수익은 나지 않고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 투자자들이 너무 실망했고 그 피드백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나오고 거래소에서 결국 역풍을 맞았어요. VC들도 실제 역량 여부보다는 상장요건 모양새만 갖춰서 상장시키고 빠져나오려고만 했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바이오 기업 상황 : 후속 투자의 어려움/VC 평가기준 강화

"VC들의 투자가 멈추니 인력 구조조정도 하고 금리가 내릴 때까지 버티고 있어요. 신약 개발 바이오들이 후속 투자가 막히면서 임상 진행이 안 되고 있어 제일 힘들어 보여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심사역)

"예전처럼 아이디어나, 기술 하나만으로 투자 받던 시기는 지났어요. VC마다 나름의 평가 기준을 강화했어요. 펀드 만기 내에 글로벌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지, 의료기기는 기간 내에 상장할 정도의 매출과 이익 등 실적을 낼 수 있는가를 보고 있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초기단계 투자 집중 : 업종에 대한 낙관론/ 낮아진 밸류에이션

"바이오의 마지막 욕구인 무병장수라는 본능적인 문제에 다가가고 있고, 질병부터 헬스케어까지 모든 영역에 수요가 항상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바이오는 다시 UP TURN이 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잘 갈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미만, 심사역)

"선제적으로 바이오 초기 단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Over valuation 된 가치를 절반 깎아서 협상이 가능한 역량 있는 회사에 투자해요. 5~6년 뒤 시장이 좋을 때 회수를 기대하고 있어요"

- ID1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미만, 심사역)

투자 업종 트렌드

몇 년 동안 각광을 받았던 ICT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투자 고려업종으로의 매력도가 다소 하락하고 있음
 국내기업들의 기술 원천성이 부족하고, 기술 트렌드의 혁신성과 변화가 너무 빨라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사업 실패로 이어질 리스크가 크기 때문임
 한편, 스마트 팩토리, 로봇틱스와 같은 분야들은 글로벌에서도 신규 비즈니스 창출이 이루어지며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기술 원천성 부족/빠른 기술 트렌드/차별성 부족

"AI라는 테마가 나온 지 꽤 되다 보니 벌써 차별성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투자가치를 별로 못 느끼죠. ICT 서비스는 활용도는 높지만, 기술의 독점이나 원천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2~3년 전에 최신 기술이었던 것이 지금은 흔한 기술이 되어버리거나 다른 기술로 대체되어 버려서 아무도 안 쓰는 기술이 되기도 해요. AI 기술들도 대부분 해외 기술들을 가져와서 튜닝하는 형태이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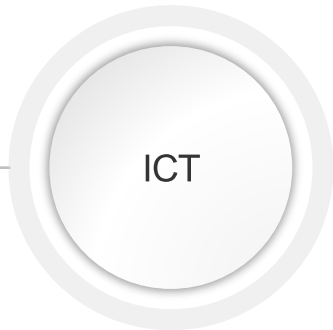
- IDI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처음에는 AI가 뭐든 다 할 것 처럼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AI 혁명을 넘어선 Generative AI도 나와요.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AI를 하겠다는 회사들은 다 사라질 위기입니다. 이쪽 분야는 뭔가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면 그 이전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은 다 접게 돼요. 기술도 너무 빠르고 성공 실패의 답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영역이에요"

- IDI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소프트웨어는 사실 수익모델이 많지 않고, 대부분 B2B 용역에 가까운 사업이 많아요. 결국 정부 발주에 의존하는데, 그건 정부지원금에 의해 매출이 나오는 형태거든요. 저희는 기술력이 좋고 기존 서비스를 대체할 만큼 차별적이고 경쟁력이 있는가가 더 중요해서 용역에 가까운 사업은 투자하지 않고 있어요"

- IDI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지금 모든 투자사들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투자해요. 그런데, AI 관련 이야기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실적을 제대로 만드는 업체는 없어요. 원천기술을 만드는 한국 업체들이 Google, Open AI와 비교했을 때 관련 원천기술 자체가 부족해요. 국내 대기업도 기술이 안 되거든요. ICT 서비스에 대해 매력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 IDI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최근에 오픈 기술을 이용해서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가 투자받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에요.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지 않고 과연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 IDI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스마트 팩토리, 로봇틱스는 각광

"AI 자동화 솔루션, 로봇틱스는 스마트 팩토리로 결부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유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IDI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ICT는 딥테크 쪽으로 트렌드가 가고 있어요. 로봇틱스부터 시작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신중해야 하는 영역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투자 리스크가 클 수 있어요"

- IDI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투자 업종 트렌드

2차전지와 반도체 부품 관련 소부장이 주목받고 있음

정부의 소부장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 완화 정책으로 인해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단기적 밸류에이션 상승 및 상장 가능성이 커졌고, 미래 관점에서도 전기차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강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소부장에 대한 투자 열기가 고취되고 있음

2차 전지/ 반도체에 쏠림

"상장주식시장에서 소부장은 2차 전지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벤처들은 보통 반도체 회사들도 많고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부품장비 회사들도 더 주목받고 있어요. 그 외에도 다양한 소부장 회사들이 지금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분야에 쏠림이 있긴 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우리나라에서 절대적으로 산업의 파이가 큰 것이 반도체예요. 그 제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장비 부품 소재와 관련된 유관 산업도 엄청나게 큼니다. 반도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기술들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교 연구기관들이 개발하거든요."

2차전지는,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성장할 것은 모두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5~10년까지도 2차 전지 관련 업종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정말 2차전지는 코스닥, 코스피에서 난리도 아니에요. 양극재, 음극재 하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랩실에서 양극재를 들고나와서 탄소 코팅을 해서 효율이 올라가는 컨셉만 발표했는데 투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공장을 만들면 돈이 더 몰리고요"

- ID14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소부장

기술특례 상장 규제 완화/ KVIC 소부장 출자 노력의 결실

"작년부터 소부장 쪽에 기술특례 상장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투자 열기가 오르고 기업가치도 많이 제고되었습니다. 원래 소부장 같은 부품공급 회사들이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고 엄청 성장하지도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2차전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많이 기울였죠. 지금은 정말 소부장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한국벤처투자의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소부장이 각광받기 전부터도 취약 분야라고 소부장 쪽에 출자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소부장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 받았었고 그 회사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로 생각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소부장도 과열 양상 / 미래 인사이트가 필요

"소부장도 엄청 과열되어 가고 있기에,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Game changer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2차 전지 외에도 차세대 물질 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아이템인데 미래에 돈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면 대기업 납품 1~2차 벤더인 안정적인 업체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 ID1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투자 업종 트렌드

과거 매력적이었던 유통커머스 플랫폼은 기대 대비 실적과 수익이 좋지 않아 매력도가 하락, 시장 유동성이 낮아지면서 투자가 막히고 기업가치는 조정됨
유사한 아이템과 서비스 모델로는 성공하기 어렵고 명확한 비즈니스 수익모델과 혁신적인 아이템이 접목되어야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회의적 시각 : 저조한 실적/자생성 부족

“e-commerce에 집중투자 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인력도 많이 필요한 큰 사업영역이더라고요. 매력도가 떨어졌어요. 유통 플랫폼 시장은 No.1, No.2 까지만 살아남아요”

- IDI5 (천억 미만 창투자, 7~10년, 심사역)

“유통 커머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높은 유동성으로 수혜를 받았죠. 이제 유동성이 빠지다 보니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는 하락했어요. VC들은 저렇게 매출이 나와도 안되는구나 하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있고요. 지금은 기업가치가 재조정되고 투자도 멈춘 경우도 많아요”

- IDI1 (1조 이상 창투자, 3년, 심사역)

“플랫폼 업체를 지금 다들 안 보고 있어요. 최근 한 4~5년 동안 정말 많은 투자가 일어났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또 실적이 나와도 수익성을 맞추지 못해요. 정말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냐, 투자 없이 자생적인 생존이 가능하냐 그런 관점에서 평가해요”

- IDI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플랫폼 업체들이 그동안 받았던 투자가 막혔어요. 사실 아직 수익화 단계가 아닌데 투자가 끊기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본인들이 계획했던 만큼의 사용자와 거래액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수익화를 무리하게 하려고 하니 수익도 안 되고 거래액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 IDI2 (1조 이상 창투자, 5~7년, 심사역)

유통 커머스 플랫폼

성장 동력이 될 획기적 아이템/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모 커머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할 때만 해도 유통 서비스를 바라보는 매력적인 시선이 있었어요. 하지만 몇몇 기업에서 오랜 시간 집중했는데도 이익을 못 내는 사례가 등장하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익이 내려면 이 정도 매출로도 안 되는 걸 학습한 거죠. 이제는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템만 바꿔서 유통플랫폼을 이야기하면 신뢰를 못 해요. 드론으로 배송하겠다든지 그런 큰 혁신이 있어야 해요.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기대하고 있고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인공지능이 침투한 유통 플랫폼과 같은 그런 거요”

- IDI3 (3~5천억 미만 창투자, 5~7년, 심사역)

“원래 플랫폼 업체는 한 둘만 살아남아요. 고객들을 많이 모으고 수익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다 보니 유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거든요. 유료로 전환하는 순간 고객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떠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다양한 유인책으로 가입자 끌어모으기를 하고 유인력이 사라지면 광고나 수수료에도 고객들이 체류하게 되면 살아남는 거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겠다가 중요해요”

- IDI1 (1조 이상 창투자, 3년, 심사역)

“유통이나 서비스를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수익성이 나는 업체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되려, 라이브 방송 커머스 서비스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요”

- IDI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PART 3

조사 결과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투자 방식 트렌드**
- 기업 분석 트렌드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선호 투자 단계

VC들은 시리즈 A 단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리즈 B 단계를 선호함

액셀러레이터는 Seed 선호가 높으며, 창투사는 시리즈 B, 신기사는 시리즈 B 이상에 대한 선호가 높음

연간 운용 규모 천억 미만은 Seed, 천억~3천억 미만은 시리즈 A, 3천억~1조 미만은 시리즈 B, 1조 이상은 시리즈 B 이상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Seed | 28.7 39.2 | 26.6 | 38.5 | 12.2 | 93.5 | 36.7 | 45.1 | 100.0 | 21.8 | 0.0 | 7.4 | 57.0 | 35.7 | 15.5 | 12.8 |
| Series A | 46.4 78.3 | 83.3 | 80.0 | 69.4 | 73.9 | 80.7 | 72.5 | 77.0 | 100.0 | 42.6 | 25.9 | 77.6 | 85.3 | 76.3 | 63.8 |
| Series B | 19.6 44.9 | 53.2 | 46.2 | 75.5 | 1.1 | 47.0 | 39.9 | 0.7 | 49.4 | 100.0 | 40.7 | 31.1 | 44.1 | 67.0 | 68.1 |
| Series C 이상 | 5.2 17.5 | 18.4 | 20.0 | 28.6 | 1.1 | 17.1 | 18.3 | 2.0 | 7.5 | 41.6 | 100.0 | 11.4 | 16.8 | 20.6 | 42.6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응답값 Sorting하지 않고 투자 단계별로 제시, 박스 내 수치는 2순위 누계 값임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2순위 누계 응답, Unit : %]
*적은 샘플 수로 해석에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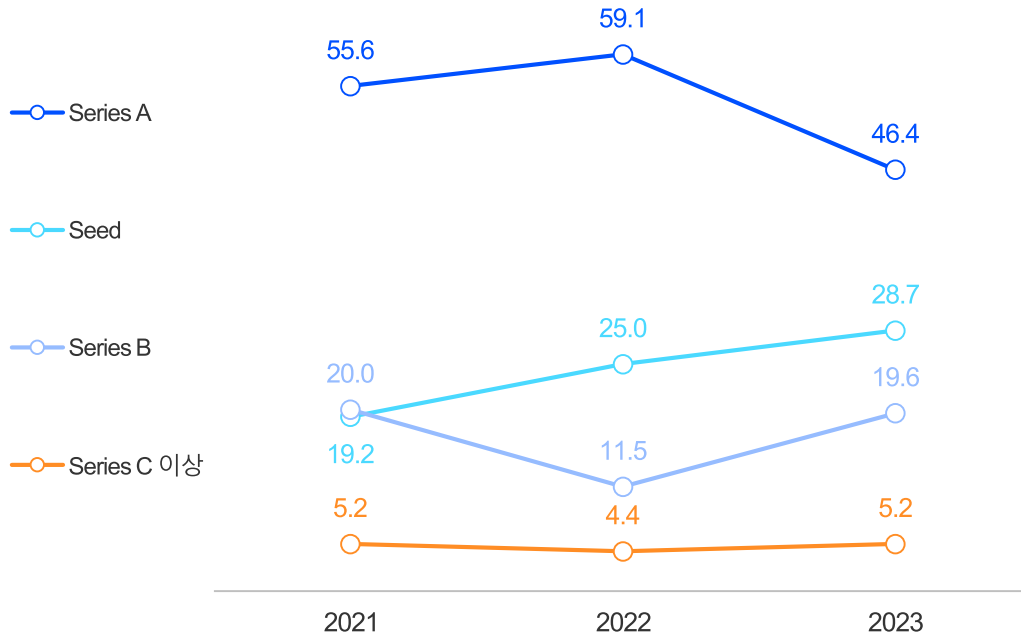
Qu. 선호하시는 투자 단계는 무엇인가요? 선호하시는 순서대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선호 투자 단계 연도별 추이

최근 3년 동안 Seed 투자단계의 선호가 점진적으로 늘어남

Series A는 2022년도에 선호가 상승했다가 2023년에 하락, Series B는 2022년도에 하락했다가 2023년도에 선호도가 상승함

전반적으로 원래 선호하던 투자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춰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고, 시드 단계 투자가 각광을 받는 것은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에 투자하고 좀 더 긴 Term으로 회수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임



"요즘 VC들 만나면 이럴 때일수록 뒷 단의 투자보다는 앞 단계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밸류에이션이 높았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적절해지고 있기에 쉽게 투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초기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 많아졌어요. 그래서 Seed 투자나 시리즈 A에 대한 선호가 늘어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시리즈 A에 대한 선호가 하락했다면 아마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들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숫자가 확실히 나와주고 괜찮은 시리즈 A는 밸류에이션이 아직 꺾이지 않았고 VC를 지목할 만큼 포지션이 우위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으로 원하던 투자단계보다는 다들 한 단계 이상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시리즈 B는 시리즈 C나 Pre-IPO 투자가 내려온 걸로 보여요"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1순위 응답, Unit: %]

*적은 샘플 수로 해석에 주의 필요

선호 투자 단계

최근 밸류 조정과 하락이 있는 시장 상황에서 시드 투자는 낮은 밸류에 대한 협상이 자유롭고 좋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원래 선호하던 투자 단계에서 한 단계 낮춰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추세이며, 시리즈 C 투자는 신규 투자보다는 후속 투자 성격이 많음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Seed 투자에 관심 ▲

"요즘 VC들 만나면 이럴 때일수록 뒷 단의 투자보다는 앞 단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도 밸류에이션이 높았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적절해지고 있기에 쉽게 투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런 점에서 초기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늘었고 많아졌어요. 스타트업들도 눈높이가 너무 높았다가 지금은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미만, 심사역)

"시드 투자 선호가 올라갔다는 것은 잠시 숨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IPO나 M&A로 갈 확률이 낮아지니까 Early 단계 투자를 보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되고 앞으로 2~3년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미만, 심사역)

"다운 턴 시기에는 초기에 집중 해야죠. **기업들의 가치가 저렴할 때 투자해서 나중에 활황일 때 가치가 커질 것이라는 투자 심리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시드에서 IPO까지 비교하면 거의 수익 배수가 10~20배를 기대하니까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선호 투자 단계

시리즈 A의 경쟁률이 높아 작년 대비 선호도 하락

"시리즈 A 정도에서 숫자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들은 여전히 경쟁률이 높아요. 여기는 아직도 투자유치 시 VC보다는 그 기업 대표가 VC를 선택하는 포지션이라서 어려운 거죠"

- ID1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시리즈 C는 신규투자보다는 후속투자에 머뭇

"지금은 신규 펀드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의 후속 투자 건에만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집중하고 있어요. 시리즈 C의 신규 투자는 눈높이와 밸류가 아직 미스매치되어 있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미만, 심사역)

Pre IPO시장에서 시리즈 B로 이동

"활황일 때는 뒤쪽으로 갈수록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펀딩이 쉬웠어요. 하지만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시리즈 C단계 기업들이 어려워요. Pre IPO 시장에서 상장하겠다고 느끼게 하는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즉, 숫자도 잘 나오고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로 투자 단계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투심을 통과할 만한 기업들 찾으려면 한 단계 내려와서 찾아야 하는 거죠"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투자 검토 및 진행 기업 수

투자 진행 시 평균 172개의 서류를 검토하며, 이 중 미팅을 진행한 기업 수는 59개, IR 진행 25개, 투자심의회 상정이 10개에 이르며, 최종 계약 및 납입 완료 기업 수는 평균 7개로 나타남

기관 특성별로 나눠보았을 때는 액셀러레이터, 투자단계별로 보았을 때는 Seed 단계 선호 VC들이 투자 검토 및 진행 기업 수가 많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서류검토 | 171.9 | 143.9 | 114.5 | 120.5 | 347.7 | 157.7 | 206.6 | 316.3 | 125.5 | 89.3 | 90.0 | 209.9 | 136.7 | 143.9 | 146.4 |
| 미팅 | 58.9 | 55.6 | 53.5 | 50.1 | 82.5 | 53.4 | 72.5 | 80.9 | 52.6 | 44.9 | 46.5 | 57.8 | 57.2 | 61.7 | 64.5 |
| IR | 25.1 | 20.7 | 23.2 | 25.9 | 40.3 | 20.4 | 36.5 | 34.7 | 20.7 | 21.3 | 25.2 | 28.7 | 22.5 | 21.9 | 21.8 |
| 투자심의회 | 10.0 | 8.4 | 10.0 | 8.6 | 16.6 | 7.7 | 15.6 | 14.8 | 8.4 | 7.7 | 7.0 | 10.6 | 9.3 | 9.6 | 10.5 |
| 계약 | 7.0 | 5.9 | 8.1 | 7.2 | 10.2 | 5.4 | 10.7 | 9.8 | 6.2 | 5.1 | 5.2 | 6.7 | 7.3 | 6.9 | 7.5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주관식 숫자응답, Unit: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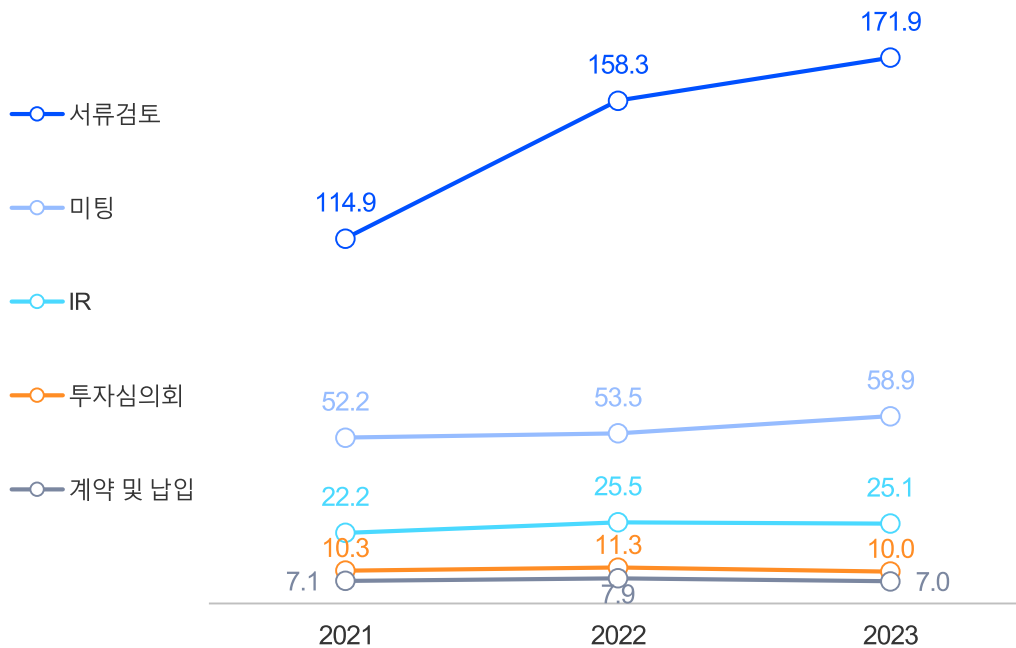
Qu. 지난 1년 동안 검토하신 기업의 개수는 몇 개 정도 되시나요? 제시해 드리는 다음 각각 별로 나눠서 대략적인 기업 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투자 검토 및 진행 기업 수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투자 진행 시 서류검토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그에 따른 미팅 건수도 소폭 늘어남

반면, IR, 투자심의회, 계약 및 납입은 큰 변동이 없이 매년 비슷한 기업 수에 대해 진행되고 있음

서류검토는 많지만, 투자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관점이 유지되다 보니 서류 검토 수 대비 투자 결정은 지연되고 있음



"22년 중반부터 23년 초까지는 거의 투자 금지령이 있던 시기였어요.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아주 소극적인 투자를 하던 시기라서 아마 서류검토는 많아졌지만 실제로 미팅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매주 주간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서류 검토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만큼 많은 기업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류검토를 많이 하고 콜드 콜이라고 회사들이 저희에게 직접 연락하고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아직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서 진행은 더딥니다"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주관식 숫자응답, Unit: 개]

딜 소싱 경로

투자 검토 시 직접 발굴(40.3%)과 동료 투자자(29.3%)를 통해 기업을 발굴하는 비중이 높음

창투사와 신기사, 시리즈 A 단계 선호, 펀드 운용 규모가 3천억 이상인 대형 VC의 경우 동료 투자자를 통한 발굴 비중이 높으며, 데모데이 등 공공/민간 행사를 통한 발굴은 액셀러레이터, Seed 단계 투자 및 천억 미만 투자 규모의 소형 기관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직접 발굴 | 40.3 | 39.1 | 45.1 | 37.1 | 41.9 | 39.7 | 41.5 | 41.4 | 38.5 | 42.6 | 40.6 | 40.7 | 40.3 | 39.4 | 39.8 |
| 동료 투자자 | 29.3 | 32.5 | 24.7 | 34.2 | 20.3 | 31.2 | 25.0 | 22.2 | 32.1 | 31.6 | 35.9 | 25.5 | 30.1 | 34.3 | 35.4 |
| 데모데이 등 공공/민간행사 | 12.6 | 11.1 | 11.6 | 13.7 | 17.3 | 13.0 | 11.8 | 16.5 | 12.2 | 9.6 | 6.7 | 15.2 | 11.6 | 10.4 | 7.9 |
| 포트폴리오 업체의 추천 | 10.6 | 10.5 | 11.6 | 10.7 | 10.4 | 9.5 | 13.3 | 10.3 | 11.1 | 9.9 | 11.4 | 10.4 | 11.4 | 10.5 | 9.7 |
| 업체의 콜드 콜 | 5.4 | 5.4 | 5.8 | 3.5 | 6.6 | 5.0 | 6.2 | 7.2 | 4.5 | 4.8 | 5.3 | 6.0 | 5.2 | 3.8 | 6.4 |
| 기타 | 1.8 | 1.4 | 1.3 | 0.7 | 3.6 | 1.6 | 2.2 | 2.5 | 1.6 | 1.5 | 0.0 | 2.2 | 1.5 | 1.7 | 0.9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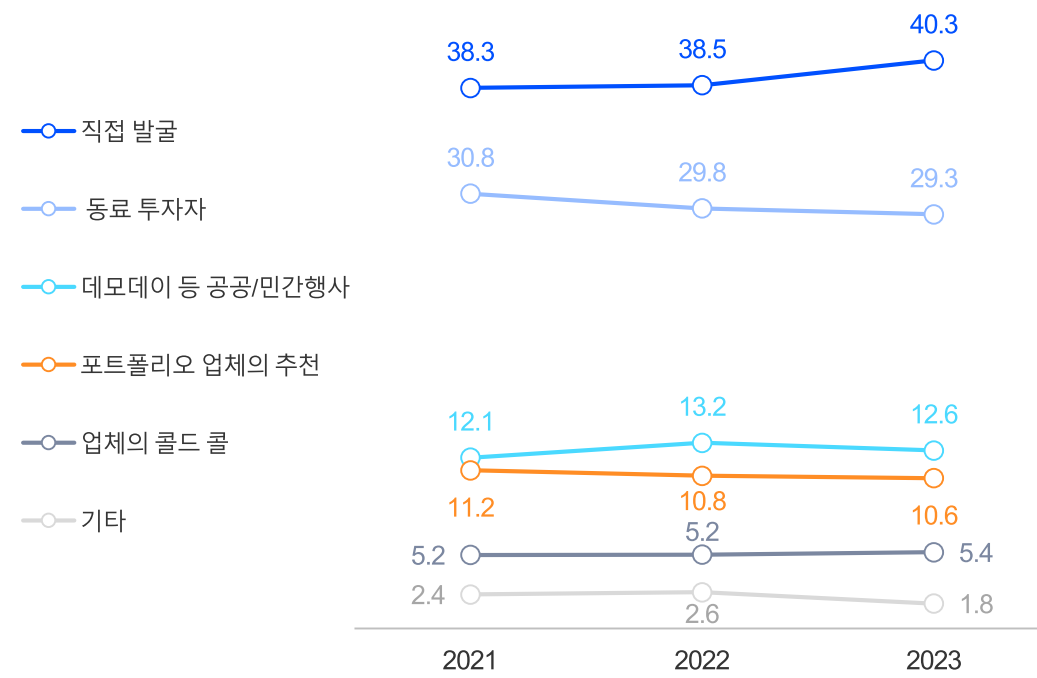
기타 응답: 내부 임원급에서 발굴, 자문사/지인/동종 업계/브로커/펀딩 주관사의 추천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비중 응답, Unit: 합이 100이 되는 비중 %]

Qu. 투자 검토를 진행하실 때 딜 소싱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시나요? 각 경로별로 발굴 비중을 합이 100%가 되도록 기입해 주십시오.

딜 소싱 경로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딜 소싱 경로는 직접 발굴, 동료 투자자를 통한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업체의 콜드 콜이 다소 늘었음
 VC들은 투자자금의 부담을 줄이고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넣기 위해 클럽 딜을 많이 하는 등 딜 소싱에 있어 VC 간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콜드콜의 증가는 과거 대비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자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직접 발굴해 오거나 VC 간 네트워크로 딜 소싱은 이루어져요. 요즘에는 콜드 콜도 많이 늘었어요. 과거에는 저희가 연락했을 때 답이 없었던 업체가 이제는 직접 연락해 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받기가 어려워진 거죠"

"VC의 속성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은 네트워킹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Inner Circle이 작용하는 게 VC 특성이예요. VC 간의 딜 교환을 많이 하고 있어요. 투자 대상 기업 중에 한 VC에서만 투자 받은 곳은 별로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되면 클럽 딜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VC들이 부담이 없고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비중 응답, Unit: 합이 100이 되는 비중 %]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정도 및 지역

현재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진행하는 비율은 25%,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는 37%로 나타났으며,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투자 의향이 없는 비율은 38%로 나타나, 실제 해외 투자가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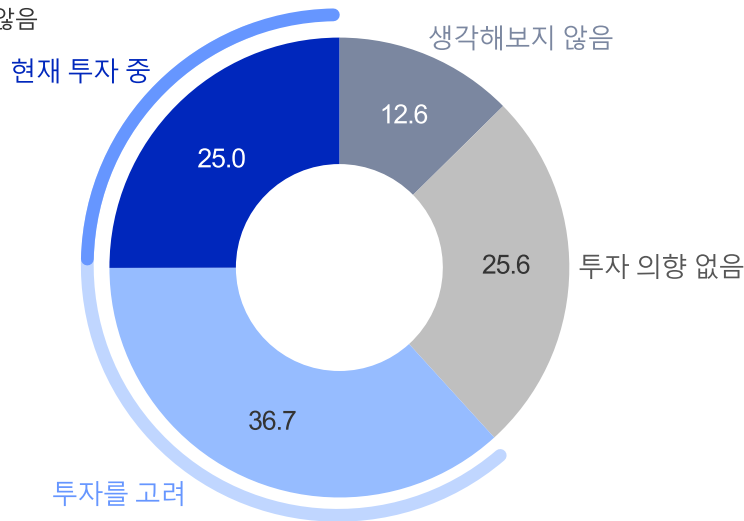
투자를 고려하는 지역은 미국, 동남아시아에 몰려 있으며, 그 밖에 일본, 유럽, 인도 등임

미국은 뉴이노베이션 영역을 캐치하면서 투자하고 동남아시아는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정도

- 현재 투자 중
- 투자 중은 아니나, 투자를 고려
- 투자 의향 없음
- 생각해보지 않음

| | 2022 | 2023 |
|---------|------|------|
| 현재 투자 중 | 28.4 | 25.0 |
| 투자를 고려 | 31.9 | 36.7 |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단일 응답, Unit : 응답%]

투자 고려 해외 스타트업 지역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성장률이 가파르니까 매력적이고, 선진국은 성장은 가파르지 않더라도 테크놀로지의 선두 시장이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필드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즉, 개발도상국은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 선진국은 뉴이노베이션이나 새로운 영역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편, 개발 도상국은 자본시장이 덜 활성화되어 있어 위험성이 있고, 선진국은 자본시장이 develop 된 곳이라서 좋은 기업을 판별하고 메이저 VC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레버리징을 잘해야 합니다"

[Base : 해외 스타트업 투자중/투자고려 VC (n=318), 중복 응답, Unit : %]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정도

펀드 운용 규모가 1조 이상인 대형 VC의 47%가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 중으로 응답했으며, AUM 천억 미만 VC는 해외 스타트업 투자 비율이 낮음
 주요 투자 지역은 미국과 동남아시아가 많았으며, 펀드 운용 규모 1조 이상인 대형 VC의 경우 인도 스타트업 투자 고려율이 높음

해외 스타트업 투자 고려 정도 및 지역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현재 투자 중 | 25.0 | 25.2 | 32.3 | 28.6 | 19.6 | 22.7 | 30.7 | 25.7 | 24.7 | 23.8 | 29.6 | 15.4 | 32.2 | 26.8 | 46.8 |
| 투자 중은 아니나 투자 고려 | 36.7 | 35.5 | 30.8 | 36.7 | 42.4 | 38.1 | 33.3 | 37.8 | 36.0 | 38.6 | 29.6 | 44.7 | 29.4 | 38.1 | 17.0 |
| (Base) | (318) | (171) | (41) | (32) | (57) | (220) | (98) | (94) | (145) | (63) | (16) | (137) | (88) | (63) | (30) |
| 미국 | 75.2 | 75.4 | 80.5 | 87.5 | 61.4 | 76.4 | 72.4 | 72.3 | 76.6 | 73.0 | 87.5 | 66.4 | 84.1 | 69.8 | 100.0 |
| 동남아시아 | 54.4 | 59.6 | 39.0 | 40.6 | 59.6 | 50.9 | 62.2 | 50.0 | 56.6 | 54.0 | 62.5 | 53.3 | 52.3 | 58.7 | 56.7 |
| 일본 | 22.0 | 23.4 | 19.5 | 15.6 | 21.1 | 23.2 | 19.4 | 21.3 | 23.4 | 20.6 | 18.8 | 25.5 | 19.3 | 15.9 | 26.7 |
| 유럽 | 20.8 | 19.3 | 24.4 | 15.6 | 24.6 | 20.9 | 20.4 | 24.5 | 18.6 | 20.6 | 18.8 | 22.6 | 18.2 | 17.5 | 26.7 |
| 인도 | 18.2 | 21.6 | 12.2 | 15.6 | 12.3 | 17.7 | 19.4 | 16.0 | 19.3 | 17.5 | 25.0 | 11.7 | 19.3 | 23.8 | 33.3 |
| 이스라엘 | 15.4 | 19.3 | 12.2 | 9.4 | 12.3 | 16.8 | 12.2 | 10.6 | 21.4 | 12.7 | 0.0 | 15.3 | 10.2 | 17.5 | 26.7 |
| 중국 | 6.9 | 7.0 | 7.3 | 9.4 | 7.0 | 5.9 | 9.2 | 6.4 | 6.9 | 7.9 | 6.3 | 5.1 | 5.7 | 9.5 | 13.3 |
| 캐나다 | 5.0 | 8.2 | 2.4 | 3.1 | 0.0 | 6.4 | 2.0 | 2.1 | 6.9 | 4.8 | 6.3 | 5.8 | 4.5 | 3.2 | 6.7 |
| 대만 | 5.0 | 6.4 | 2.4 | 3.1 | 5.3 | 5.0 | 5.1 | 6.4 | 3.4 | 6.3 | 6.3 | 4.4 | 4.5 | 7.9 | 3.3 |
| 홍콩 | 3.5 | 2.9 | 4.9 | 6.3 | 3.5 | 4.1 | 2.0 | 3.2 | 4.1 | 3.2 | 0.0 | 2.9 | 5.7 | 1.6 | 3.3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Unit : %]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필요 요소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 해외 진출 기업 투자 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 해외 투자 펀드 조성 > 해외 네트워크 지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해외진출 기업 투자시 주목적 투자로 인정 | 38.2 68.7 | 71.0 | 75.3 | 67.2 | 59.0 | 68.2 | 70.6 | 67.6 | 63.5 | 70.3 | 70.3 | 81.5 | 64.5 | 69.9 | 77.3 | 70.2 |
| 해외 투자 펀드 조성 | 23.5 58.0 | 58.9 | 49.3 | 50.8 | 58.2 | 59.1 | 53.6 | 59.7 | 59.5 | 55.2 | 61.4 | 51.9 | 59.6 | 55.9 | 48.5 | 70.2 |
| 해외 네트워크 지원 | 16.5 51.7 | 50.7 | 52.1 | 60.7 | 50.0 | 51.7 | 49.7 | 54.0 | 48.0 | 51.5 | 53.5 | 55.6 | 56.1 | 42.7 | 54.6 | 44.7 |
| Flip 등 다양한 해외 진출 방법의 제도화 | 12.2 36.2 | 34.8 | 35.6 | 32.8 | 43.4 | 33.7 | 40.5 | 38.1 | 45.9 | 35.1 | 25.7 | 22.2 | 39.5 | 34.3 | 33.0 | 27.7 |
| VC 해외지사 설립 지원 | 8.4 32.1 | 32.1 | 28.8 | 29.5 | 36.1 | 32.6 | 28.8 | 34.5 | 31.1 | 32.2 | 33.7 | 18.5 | 30.7 | 33.6 | 29.9 | 31.9 |
| 기타 | 1.1 1.8 | 2.5 | 0.0 | 0.0 | 1.6 | 1.7 | 2.6 | 1.4 | 1.4 | 2.5 | 2.0 | 0.0 | 1.3 | 1.4 | 3.1 | 4.3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전체응답자 (N=654), 3순위 누계응답, Unit : %]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의견

해외 스타트업 투자는 현재 밸류에이션 하락시장에서 기회이면서도 그만큼 실패 리스크가 있어, 해외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 능력과 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주로 한인 스타트업 투자가 많으며, 해외 VC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와 국내 VC의 소개를 통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음
 해외 스타트업 투자의 어려움은 해외 VC 네트워크의 부재, 기업 실사와 사후관리의 어려움 등임

현재가 기회이자 리스크, 해외 스타트업 평가 능력이 필요

"지금 미국도 투자가 멈춰 있어요. 기회이면서 리스크가 큰 것이기도 해요. 올해 미국 스타트업들로부터 저희에게 컨택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만큼 미국도 지금 투자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함부로 투자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에 상장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시총이 90% 이상 깎인 경우가 부지기수인 상황이거든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투자 방법(국내 VC의 소개, 해외 VC 네트워크, 한인 스타트업 투자)

"저희는 미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유럽의 시계 유통회사에도 투자해 봤어요. 직접 발굴은 아니고, 국내 VC에서 하길래 같이 들어갔어요. 직접 발굴은 어려워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형 VC들은 해외 출신 구성원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서 시장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더라고요"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국내 VC들이 실리콘밸리에 VC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에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해외 스타트업 투자는 한인 창업자 기업이 90% 이상이에요. 물론, 한인 창업자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딜 소싱도 확대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사, 3년 미만, 심사역)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의견

투자 장벽 존재(해외 VC 네트워크, 기업 실사사후관리, 펀드의 규제)

"한국에서는 꽤 알아주는 메이저 VC인데 해외 메이저 VC들은 저희를 전혀 몰라서 해외 VC들이 저희를 끼워주지 않아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VC에게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리스크 있는 투자라도 좀 끼워줄 수 있어요. 또, 투자 후에도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피드백을 줘야 해요.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서 해외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겁니다"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결국 해외 스타트업 투자는 네트워킹이에요. 우리는 친한 해외 VC들이 없어요. 국내 VC들은 실리콘밸리 상황을 뉴스로만 듣지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현지에 가서 자주 만나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 스타트업 투자를 못하고 있어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어려움은 결국 실사예요. 국내기업은 레퍼런스 체크가 가능하고 문제가 생겨도 법원에 가서 해결할 수 있는데, 해외 기업은 한두 번 다녀오는 것으로 실사가 끝나버리고 이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워요"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저희가 해외에서 현지업체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주정부가 저희에게 출자해야 하는데 금액이나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 ID15 (천억 미만 창투사, 7~10년, 심사역)

국내기업 해외 진출에 대한 의견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성장 동력으로 VC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나, 기술/특허의 Ownership을 한국과 해외 법인 중 어디에 둘 것인지, 한국에서의 고용 여부에 따른 한국과 해외 정부 출자 제도의 차이 등 제도적 문제가 존재함

또한, 일부 CVC를 제외한 일반 VC에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은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부재와 막대한 비용 지원이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임

KVIC에 바라는 점은 해외 진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주목적 투자 인정, 해외 진출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시장 개척, 신성장 동력

"국내에서 마땅한 마켓을 찾지 못하지만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있을 것 같다면 우선적으로 투자 검토를 해요. 특히, 바이오나 ICT 분야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한국 시장이 작아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해외로 나가서 현지 사업을 하거나 뉴비즈니스 파트너 아니면 해외 투자자들을 끌어와야 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자, 15년 이상, 심사역)



체계적 프로그램 및 비용 지원이 필요

"뇌졸중 환자 재활 기기 개발하는 기업을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와 연결을 시켜줘서 그 도움으로 미국 진출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런 해외 진출이 너무 우연히 이루어졌지, 어떤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어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저희는 CVC라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리콘밸리와 베트남 진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비용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일반 VC는 쉽지 않아요"

- ID11 (1조 이상 창투자, 3년 미만, 심사역)

해외 진출 기업에 투자 시 주목적 투자 인정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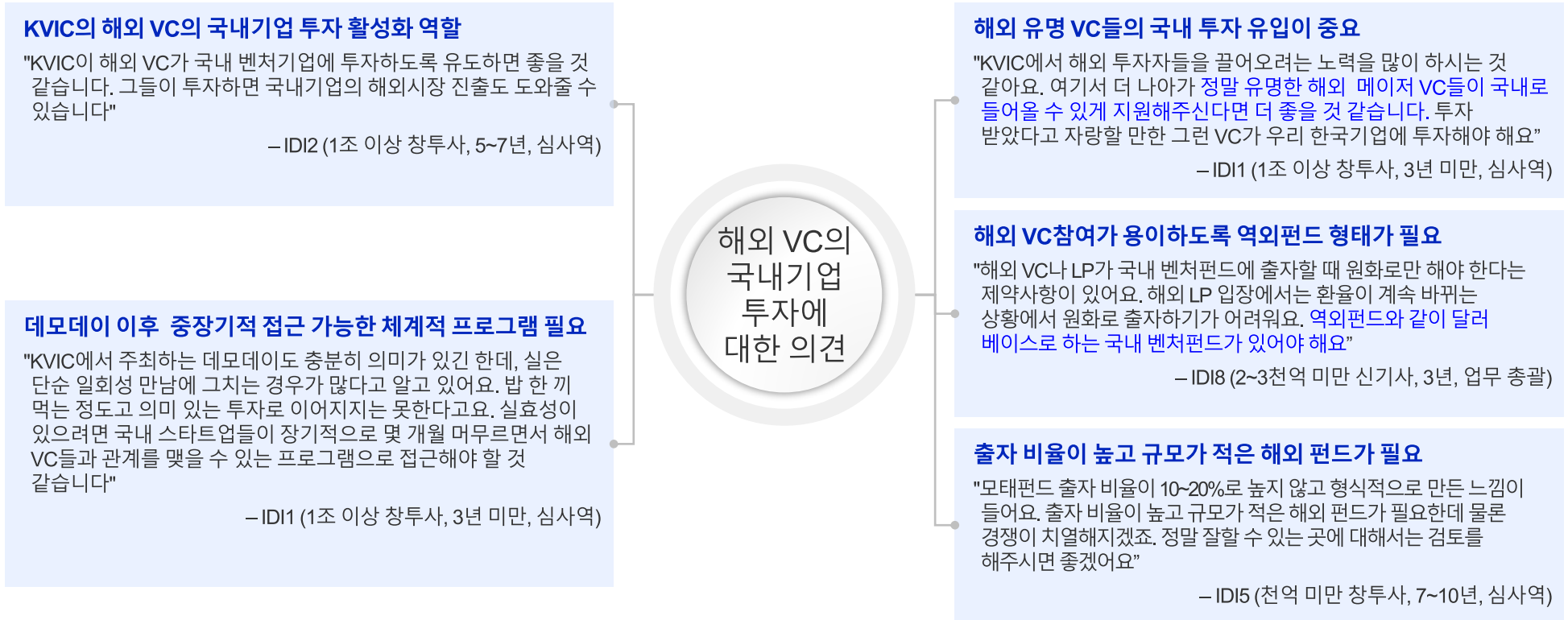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 진출 시에 주목적 투자를 인정해 주면 좋죠.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은 주로 국내에 있는 한국인을 채용해서 현지 법인으로 데려오는 등 고용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법인설립만 한 것을 해외 진출이라고 보면 안 되고, 현지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매출을 내야 해외 진출을 한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해외 VC의 국내기업 투자에 대한 의견

KVIC에 대해 해외 VC들의 국내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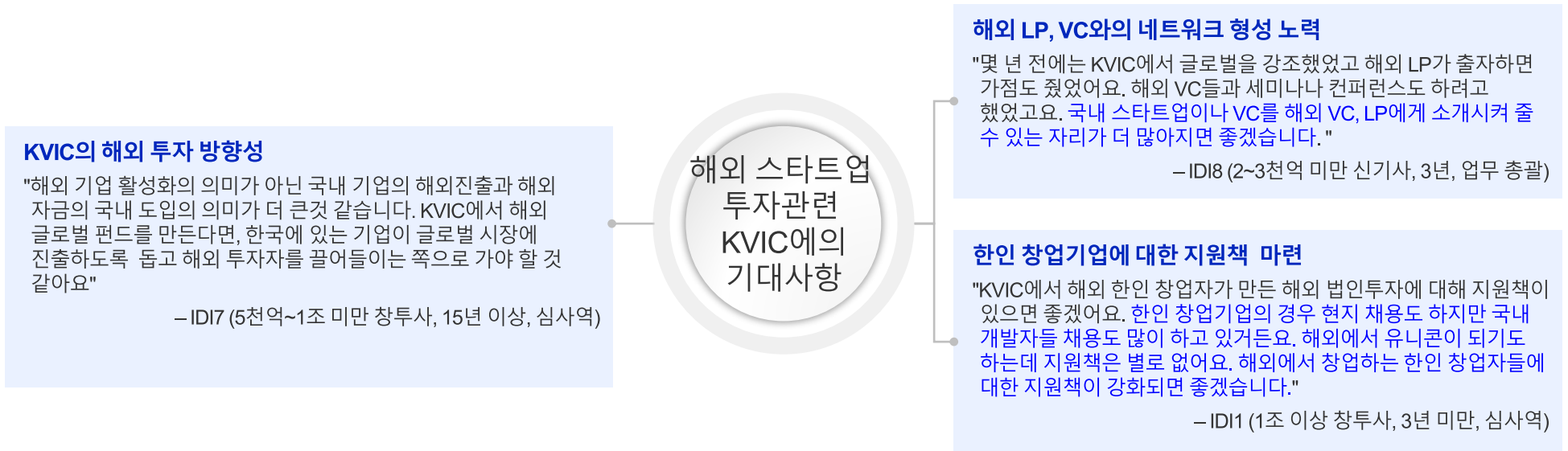
데모데이 개최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하며, 해외 유명 LP와 VC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원화 투자의 제약 해결 및 모태펀드 출자 비율 및 규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남



해외 스타트업 투자 관련 KVIC 기대사항

일부 VC들은 모태펀드에서 해외 글로벌 펀드를 만들어 해외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국내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함

해외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인 VC들은 해외 LP 출자 시 가점제, 해외 VC와의 네트워크 연결의 노력이 더 필요하며, 한인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ESG 고려 정도

투자기업의 발굴/심사/사후관리 시에 ESG를 도입한 경우는 39%정도이며, 도입할 계획은 4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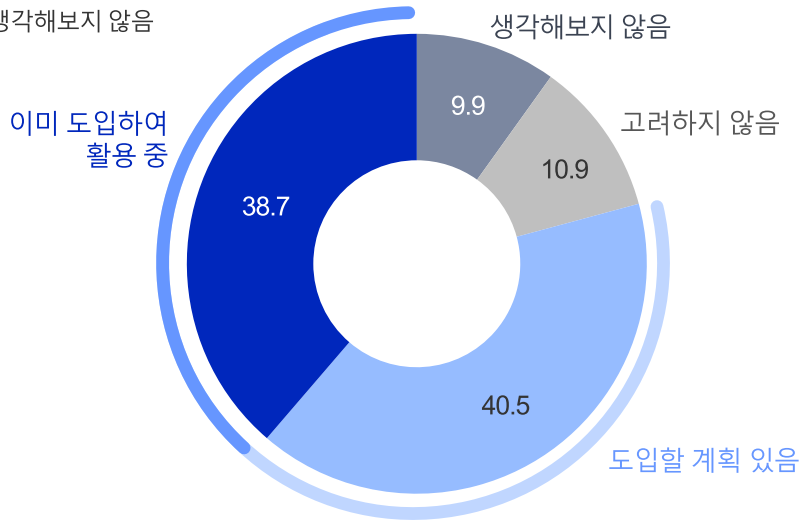
작년 대비 올해 ESG 도입/활용하는 VC가 늘어났으나(22년 32%, 23년 39%),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VC는 줄어들음(22년 49%, 23년 41%)

ESG의 필요성과 가치는 잘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한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들에 대해 평가나 사후관리에 ESG를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당장의 기업의 생존과 수익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음

투자기업 발굴/심사/ 사후관리시 ESG 고려 정도

- 이미 도입하여 활용 중
- 현재는 아니지만, 도입할 계획 있음
- 고려하지 않음
- 생각해보지 않음

| | 2022 | 2023 |
|------------------|------|------|
| 현재는 아니지만, 도입할 계획 | 49.0 | 40.5 |
| 이미 도입하여 활용 | 32.2 | 38.7 |



"ESG를 도입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아마도 정책자금 LP의 요구이거나 ESG 관련 펀드, Social Impact 펀드에 선정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대형 VC나 CVC는 본사 정책에 따라서 ESG를 도입하고 있고요. ESG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나 중 장기적인 필요성에는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규모가 작고 아직 사업화가 안 되어 있는 벤처기업에 대해 ESG를 심사에 적용하거나 강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ESG보다는 당장의 기업의 생존과 수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ESG는 Paper Work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Base : 전체 응답자 (N=654), 단일 응답, Unit : %]

ESG 고려 정도 및 이유

신기사, 시리즈 B 투자 단계를 선호하는 VC, 펀드 운용 규모 3천억 이상 대형 VC에서 투자기업의 발굴/심사/사후관리 과정에서 ESG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ESG를 고려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이며, 리스크 관리와 LP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임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이미 도입하여 활용 중 | 38.7 | 43.3 | 31.5 | 57.4 | 23.8 | 41.4 | 33.3 | 37.4 | 25.7 | 42.7 | 50.5 | 37.0 | 23.2 | 36.4 | 67.0 | 66.0 |
| 현재는 아니지만, 도입할 계획 | 40.5 | 38.6 | 53.4 | 23.0 | 49.2 | 37.0 | 47.1 | 42.4 | 48.6 | 38.5 | 32.7 | 33.3 | 50.9 | 44.8 | 17.5 | 19.1 |
| (Base) | (518) | (299) | (62) | (49) | (89) | (284) | (123) | (111) | (110) | (194) | (84) | (19) | (169) | (116) | (82) | (40) |
| 사회적 가치/필요성 증가 | 35.7 / 81.7 | 81.9 | 83.9 | 79.6 | 83.1 | 79.9 | 88.6 | 78.4 | 81.8 | 83.0 | 84.5 | 73.7 | 84.0 | 83.6 | 81.7 | 75.0 |
|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업 가치 증가 | 30.3 / 69.9 | 68.9 | 67.7 | 65.3 | 74.2 | 69.4 | 75.6 | 64.9 | 74.5 | 72.2 | 65.5 | 68.4 | 76.9 | 66.4 | 61.0 | 82.5 |
| 리스크 관리 | 12.4 / 39.2 | 35.5 | 51.6 | 42.9 | 39.3 | 43.0 | 35.8 | 33.3 | 38.2 | 41.8 | 42.9 | 36.8 | 40.2 | 34.5 | 48.8 | 45.0 |
| LP 요구 | 15.3 / 34.6 | 40.8 | 22.6 | 44.9 | 19.1 | 35.2 | 28.5 | 39.6 | 17.3 | 37.6 | 39.3 | 52.6 | 23.1 | 38.8 | 46.3 | 32.5 |
| 자사 이미지 제고 및 마케팅 | 5.0 / 27.0 | 29.1 | 22.6 | 22.4 | 27.0 | 25.7 | 25.2 | 32.4 | 30.9 | 22.7 | 23.8 | 31.6 | 23.1 | 30.2 | 23.2 | 27.5 |
| 수익성 증대 기대 | 1.4 / 9.7 | 8.7 | 6.5 | 2.0 | 15.7 | 10.2 | 8.9 | 9.0 | 16.4 | 7.7 | 7.1 | 5.3 | 10.1 | 9.5 | 6.1 | 17.5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Unit : %]

ESG 도입/활용에 대한 의견

ESG를 도입/활용하는 VC들은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하거나, LP의 요구에 의한 경우 또는 ESG 펀드가 있는 경우임

VC들은 ESG의 사회적 가치와 중장기적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ESG를 Economic 가치와 Social 가치 중 선택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높아, 벤처기업의 생존과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ESG를 중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또한, 규모가 작고 사업화 단계가 낮은 스타트업에게 현실적으로 ESG를 강제해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PART 3

조사 결과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투자 방식 트렌드
- 기업 분석 트렌드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기업 가치평가 중요 요소

기업 가치평가 시 투자기업의 성장 가능성 > CEO 및 핵심 인력 > 제품/서비스의 경쟁우위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함
 액셀러레이터, Seed단계 투자자, 업무 총괄 담당자는 CEO 및 핵심 인력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투자 기업의 성장 가능성 | 22.7 <u>68.5</u> | 66.0 | 70.8 | 75.5 | 68.5 | 66.3 | 73.9 | 67.6 | 67.8 | 72.3 | 66.7 | 69.3 | 69.2 | 64.9 | 70.2 |
| 투자 기업의 CEO 및 핵심인력 | 28.3 <u>65.0</u> | 61.7 | 67.7 | 63.3 | 73.9 | 60.5 | 75.8 | 75.7 | 64.4 | 55.4 | 48.1 | 69.3 | 66.4 | 52.6 | 66.0 |
| 투자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우위 | 12.4 <u>55.0</u> | 57.1 | 53.8 | 53.1 | 48.9 | 54.4 | 56.2 | 54.7 | 55.6 | 55.4 | 48.1 | 53.1 | 53.1 | 56.7 | 66.0 |
| 투자 기업의 시장/산업군 | 17.1 <u>45.4</u> | 48.6 | 49.2 | 40.8 | 41.3 | 47.5 | 40.5 | 42.6 | 46.9 | 49.5 | 33.3 | 42.5 | 48.3 | 47.4 | 46.8 |
| 투자 기업의 회수 가능성 | 13.8 <u>40.4</u> | 40.8 | 36.9 | 38.8 | 40.2 | 42.0 | 36.6 | 38.5 | 41.4 | 36.6 | 55.6 | 39.5 | 44.1 | 46.4 | 21.3 |
| 비교 대상이 되는 기업대비 상대적 기업가치 | 5.4 <u>22.7</u> | 23.8 | 18.5 | 28.6 | 19.6 | 25.1 | 17.0 | 16.2 | 23.0 | 26.7 | 40.7 | 20.6 | 18.9 | 29.9 | 2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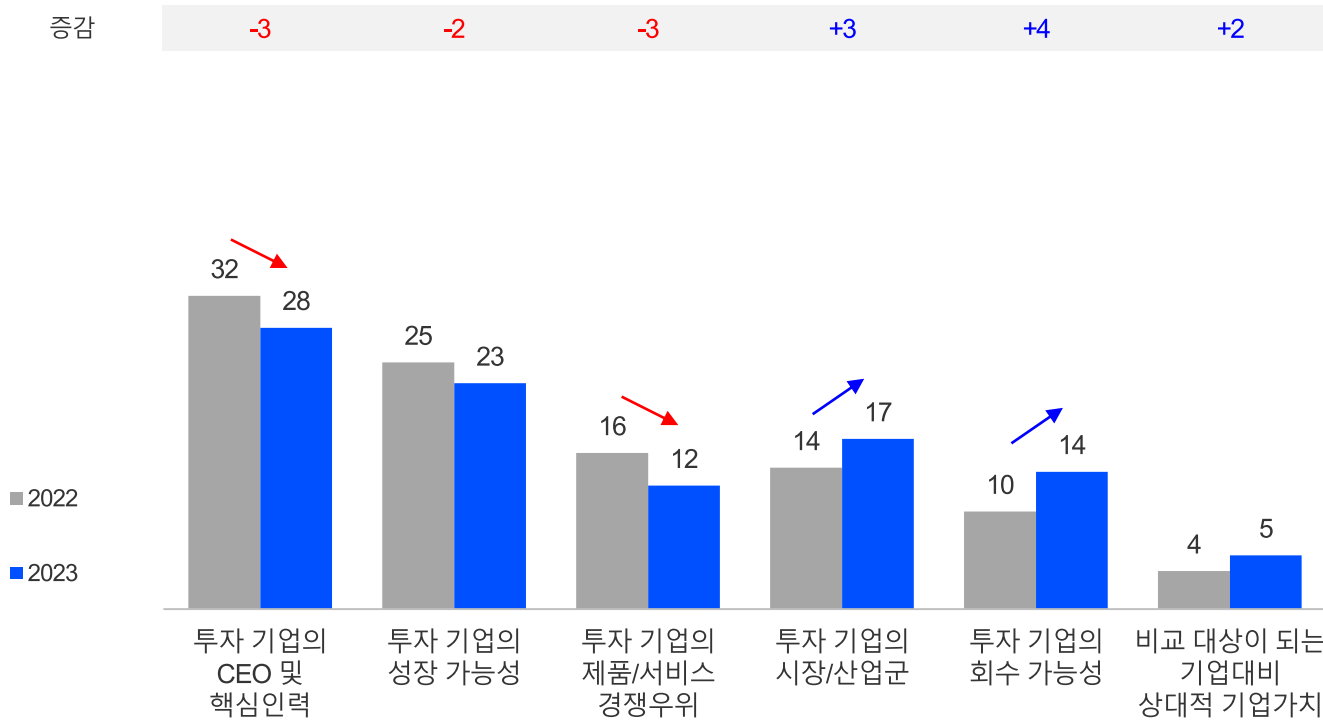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기업 가치평가 중요 요소 연도별 추이

기업 가치평가지 중요 요소는 투자 기업의 시장/산업군, 회수 가능성의 중요도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함
CEO 및 핵심 인력, 제품/서비스 경쟁우위는 여전히 중요도가 높지만 작년 대비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다소 하락함

투자 대상 기업 평가시 CEO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이지만, 투자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수익모델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진 것으로 해석됨



"기업 가치평가에서 대표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군의 흐름과 회수가능성을 과거보다 더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열정만으로는 안되고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서 회수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VC는 펀드의 정해진 시간내에 수익을 내야 해야 하는데 투자시장은 어렵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차원이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1순위 응답, Unit : %]

기업 가치평가에 대한 의견

과거에는 정책성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업종 중심으로 투자했다면, 최근과 같은 투자 위험성이 증가하고 펀딩이 어려운 시장위축 상황에서는 업종보다는 투자 대상기업의 체력 즉, 자금 없이 버틸 수 있는 생존가능성 여부를 보고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하고 있음

CEO는 기업 가치평가 시 여전히 중요한 요소지만 CEO의 열정보다는 구체적인 관련 경험과 네트워크를 더 자세히 검증하고 있음

팀원은 초기 창업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으며 사업화 단계별로 CEO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시장위축 상황에서는 성장가능성보다는 생존가능성이 중요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열정만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초기부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어 있고 스케일업을 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하려고 해요"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자, 5~7년, 심사역)

"과거에는 특정 시그널을 보고 성장성이라는 관점으로 업종을 찍어 놓고 사이클을 빨리 선행할 기업들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다운 사이클로 내려간 지금은 업종보다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중시하죠. 버틸 수 없는 기업들은 투자가 망설여져요. 투자 안 되면 당장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은 투자할 수 없으니까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외부자금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먼저 고려해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동안에는 VC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다시 정리되는 것 같아요"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자, 5~7년, 심사역)

"과거에는 정책성이 맞고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투자를 고려했다면, 지금은 버틸 수 있는 기업,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인가를 고려합니다. 내년까지 자금 없이 버틸 수 있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첫째, 생존할 수 있는 기업, 둘째, 차별화할 수 있는 키가 있어야 해요"

- ID15 (천억 미만 창투자, 7~10년, 심사역)



CEO의 배경과 경험(학력/ 경력/ 네트워크)

"CEO의 경력, 특히 구체적인 경험을 아주 자세히 봐요. 특정 회사에서 엄청난 게임을 개발했다고 해도 실제 개발에 참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까지 확인해요. 한 부분만 하던 사람이 대충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한 경우는 실패하더라고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팀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에 공동창업자가 아니라면 팀원을 잘 믿지는 않아요. 결국 CEO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열정만 있으면 뭔가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할 수 있는 배경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경력과 네트워크요. 결국 그 산업군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 ID11 (1조 이상 창투자, 3년, 심사역)

"현재 제품 서비스가 이미 안정이 됐다면 저는 팀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면, 제품 서비스가 조잡하고 별로 인데 팀이 좋다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됩니다. 서비스나 제품이 궤도에 올랐으면 거기 까지가 초기 팀의 역량이고, 이후부터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성장하는 또 다른 팀이 필요합니다. 아직 제품 서비스가 없는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VC들은 CEO나 팀 밖에 볼 게 없으니, 팀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지만 그건 초기 단계일때예요"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자, 5~7년, 심사역)

기업 실무진/ 팀 역량 평가 시 고려사항

기업 실무진과 팀의 역량을 평가할 때 성장 가능성과 관련 산업에서의 경험을 특히 중요시함

다음으로 팀워크 > 기업 운영 경험 > 열정 순으로 나타남

신기사는 관련 산업에서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Seed 단계 투자 선호 VC의 엑셀러레이터는 열정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함
 시리즈 A단계 투자와 펀드 운용 규모가 1조 이상인 대형 VC에서는 관련 산업에서의 경험을, 시리즈 B 선호 VC는 성장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성장 가능성 | 47.2 <u>88.2</u> | 85.8 | 92.3 | 93.9 | 88.0 | 89.8 | 84.3 | 91.2 | 84.5 | 95.0 | 77.8 | 88.6 | 88.8 | 88.7 | 83.0 |
| 관련 산업에서의 경험 | 32.4 <u>81.4</u> | 84.4 | 73.8 | 91.8 | 71.7 | 84.3 | 74.5 | 68.9 | 87.9 | 83.2 | 85.2 | 78.9 | 79.0 | 85.6 | 91.5 |
| 팀워크 | 10.9 <u>53.0</u> | 50.7 | 60.0 | 46.9 | 60.9 | 47.5 | 66.0 | 54.7 | 54.8 | 50.5 | 37.0 | 52.2 | 53.8 | 52.6 | 55.3 |
| 기업 운영 경험 | 4.7 <u>32.2</u> | 35.1 | 24.6 | 36.7 | 21.7 | 32.9 | 30.7 | 28.4 | 31.8 | 34.7 | 48.1 | 29.8 | 34.3 | 32.0 | 38.3 |
| 열정 | 4.3 <u>28.0</u> | 25.5 | 30.8 | 22.4 | 39.1 | 24.0 | 37.3 | 39.2 | 22.2 | 24.8 | 29.6 | 31.1 | 24.5 | 28.9 | 21.3 |
| 기타 (성실성, 도덕성, 기획력, 영업력, 기술력) | 0.6 <u>5.2</u> | 5.3 | 6.2 | 2.0 | 5.4 | 6.1 | 3.3 | 6.8 | 5.0 | 3.0 | 7.4 | 6.6 | 4.9 | 5.2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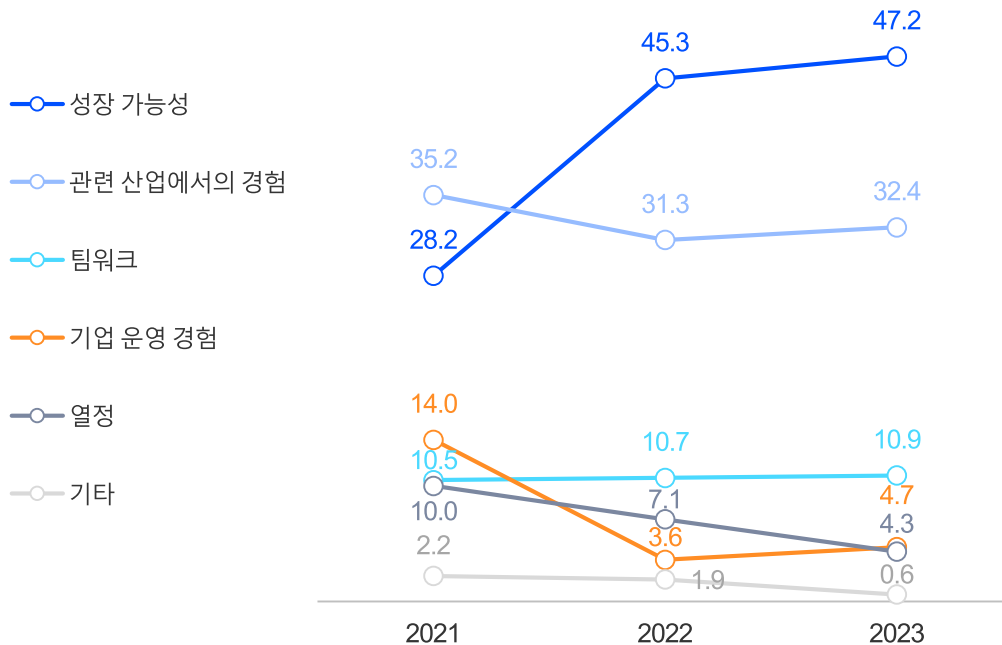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기타 응답(5.2%): 성실성, 도덕성, 기획력, 영업력, 기술력, 문제 해결력, 실제보유 기술, 대표 역량, 경영진 명성, 전문성 등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Q. 기업의 실무진/팀 역량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다음 중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시는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기업 실무진/ 팀 역량 평가 시 고려사항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기업 실무진/ 팀 역량 평가 시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상승하고, 열정, 기업 운영 경험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다소 하락함
 VC들은 과거 대비 열정보다는 구체적인 경험,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사업화 단계마다 필요로 하는 팀이 달라지는데 그에 맞는 역량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과거와 달라진 부분은 열정만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CEO가 해당 분야에 확실하고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초기부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어 있고 스케일업하는 기업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가능성을 과대평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기준들이 다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실무진이나 팀 역량을 평가할 때 성장 가능성을 본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사업화 단계별로 필요한 팀과 역량이 다른데, 그때마다 필요한 역량이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도 결국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1순위 응답, Unit : %

기업의 성공/실패에의 영향 요소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의 영향 요소로 제품 및 서비스와 팀, 시장/산업군이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함

특히, 팀은 1순위 응답에서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VC 내 업무 총괄 담당자가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

시리즈 B단계를 선호하는 VC는 시장/산업군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제품 및 서비스 | 22.1 64.3 | 61.7 | 61.5 | 75.5 | 66.3 | 63.5 | 66.0 | 59.5 | 64.0 | 70.3 | 70.4 | 63.6 | 65.7 | 62.9 | 66.0 |
| 팀 | 28.0 64.1 | 64.5 | 67.7 | 53.1 | 67.4 | 60.2 | 73.2 | 68.2 | 64.4 | 60.4 | 51.9 | 61.4 | 63.6 | 69.1 | 68.1 |
| 시장/산업군 | 26.4 63.3 | 66.3 | 72.3 | 65.3 | 47.8 | 64.1 | 61.4 | 56.1 | 62.8 | 73.3 | 70.4 | 61.0 | 62.2 | 70.1 | 63.8 |
| 타이밍 | 10.3 44.9 | 45.7 | 32.3 | 42.9 | 51.1 | 45.3 | 43.8 | 46.6 | 42.7 | 48.5 | 40.7 | 43.4 | 46.2 | 44.3 | 48.9 |
| 투자유치 | 3.3 23.1 | 22.7 | 27.7 | 20.4 | 22.8 | 22.4 | 24.8 | 24.3 | 25.1 | 15.8 | 25.9 | 26.3 | 21.0 | 16.5 | 27.7 |
| 운 | 4.7 19.2 | 22.0 | 12.3 | 16.3 | 19.6 | 20.2 | 17.0 | 25.0 | 18.8 | 14.9 | 7.4 | 19.3 | 19.6 | 21.6 | 12.8 |
| 재무 안정성 | 4.5 15.3 | 12.1 | 16.9 | 22.4 | 18.5 | 16.0 | 13.7 | 12.2 | 18.8 | 8.9 | 25.9 | 17.5 | 14.7 | 12.4 | 12.8 |
| 기타(대표이사 역량, 비용 관리) | 0.8 1.6 | 2.1 | 1.5 | 0.0 | 1.1 | 2.2 | 0.0 | 1.4 | 1.3 | 3.0 | 0.0 | 1.3 | 2.1 | 2.1 | 0.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기타 응답(1.7%): 대표이사 역량, 비용 관리, 재무설계, 기획/기술력, 정직성 등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Qu. VC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VC의 기업 성장을 위한 기여내용

VC가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내용으로 후속 투자자 연결 > 비즈니스 전략 수립 > 기업운영 지원 > 고객 연결 지원 순으로 나타남
 엑셀러레이터는 특히 비즈니스 전략 지원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평가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후속 투자자 연결 | 40.8 89.3 | 88.3 | 93.8 | 93.9 | 87.0 | 90.6 | 86.3 | 89.9 | 90.4 | 90.1 | 74.1 | 86.4 | 93.0 | 93.8 | 83.0 |
| 비즈니스 전략 | 34.6 78.3 | 76.6 | 72.3 | 77.6 | 88.0 | 77.3 | 80.4 | 83.8 | 77.0 | 75.2 | 70.4 | 82.5 | 76.9 | 70.1 | 78.7 |
| 기업운영 지원 | 12.2 56.9 | 55.3 | 55.4 | 59.2 | 60.9 | 55.5 | 60.1 | 61.5 | 52.7 | 57.4 | 66.7 | 61.8 | 55.2 | 52.6 | 46.8 |
| 고객 연결 지원 | 7.4 34.8 | 32.3 | 40.0 | 44.9 | 31.5 | 33.7 | 37.3 | 31.8 | 35.1 | 39.6 | 29.6 | 32.9 | 37.8 | 38.1 | 27.7 |
| 이사진 구성 | 1.7 12.6 | 16.7 | 9.2 | 12.2 | 4.3 | 12.4 | 13.1 | 4.7 | 18.4 | 7.9 | 22.2 | 9.6 | 11.9 | 16.5 | 21.3 |
| 직원 고용 | 2.3 9.1 | 11.0 | 12.3 | 2.0 | 5.4 | 9.7 | 7.8 | 6.1 | 10.0 | 11.9 | 7.4 | 6.1 | 9.1 | 12.4 | 17.0 |
| 기타 (R&D과제 연계, 컨설팅/멘토링/멘탈관리) | 1.0 3.9 | 1.8 | 9.2 | 4.1 | 7.6 | 4.1 | 3.3 | 6.8 | 2.9 | 2.0 | 3.7 | 4.8 | 2.8 | 3.1 | 4.3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기타 응답: R&D 과제 연계, 애로사항 컨설팅/멘토링/멘탈 관리, 정부 지원/과제 연계, F관점에서 성장전략 컨설팅, TIPS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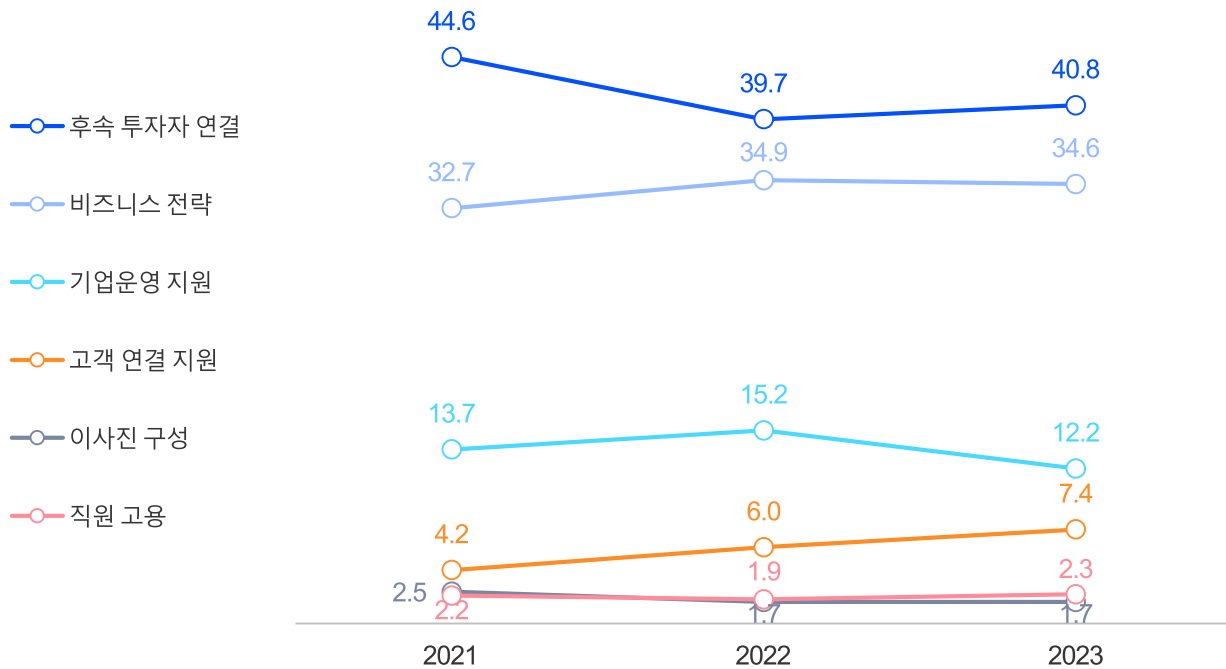
MPF 실증검증, 전문 서비스팀 소개, 사후관리, IPO 컨설팅, 인적 네트워크 연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시장 진입기회 제공 등

[Base: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 응답, Unit: %]

Qu. 투자업체의 성장을 위해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여하는 정도가 큰 순서대로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주세요

VC의 기업 성장을 위한 기여내용 연도별 추이

VC들의 기업 성장을 위한 기여 내용은 후속 투자자의 연결,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기여가 최근 3년 모두 높음
 고객 연결 지원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그 기여도가 상승함



"고객 연결 지원은 주로 B2B입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회사가 120개 정도이고 많은 곳은 300개가 있어요. 어떤 벤처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다른 회사에 소개해 주는데 투자자인 저희가 소개하면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인사관리 플랫폼 회사도 저희가 소개를 해줘서 고객이 많이 늘었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 기업의 구매 담당자와의 미팅을 주선하여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1순위 응답, Unit : %]

기업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

기업의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은 자금 확보 > 매출 제고 및 사업화 성공 > 고급 인력 채용 > 고객 확보 및 유지 순으로 나타남

LLC와 신기사 기관은 자금확보가 기업 성장의 어려움이 된다고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펀드 운용 규모 1조 이상의 대형 VC들은 글로벌화가 기업 성장 과정에 어려움을 준다고 상대적으로 더 체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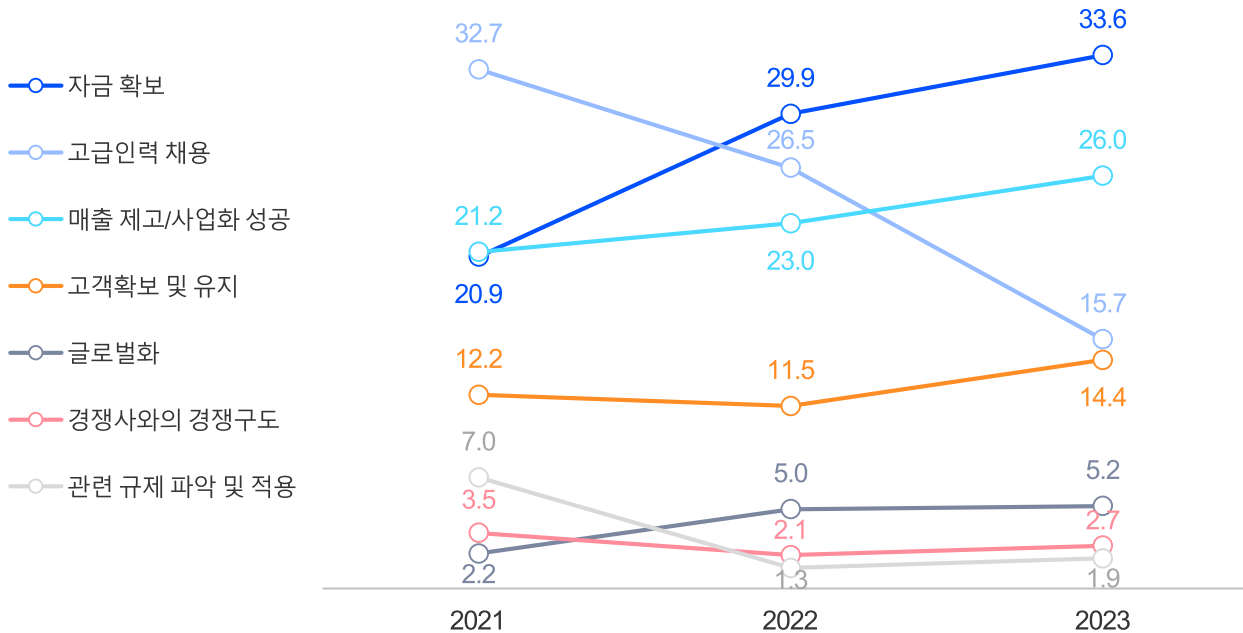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515) | (282) | (65) | (49) | (92) | (362) | (153)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자금 확보 | 33.6 76.3 | 73.4 | 87.7 | 85.7 | 71.7 | 74.9 | 79.7 | 75.0 | 79.5 | 71.3 | 74.1 | 78.9 | 81.8 | 68.0 | 63.8 |
| 매출 제고/사업화 성공 | 26.0 61.4 | 58.9 | 66.2 | 71.4 | 57.6 | 61.0 | 62.1 | 56.8 | 62.8 | 66.3 | 55.6 | 63.2 | 60.1 | 66.0 | 46.8 |
| 고급인력 채용 | 15.7 55.3 | 53.2 | 50.8 | 51.0 | 69.6 | 56.9 | 51.6 | 62.2 | 53.1 | 53.5 | 44.4 | 54.8 | 51.7 | 59.8 | 59.6 |
| 고객확보 및 유지 | 14.4 48.7 | 47.9 | 40.0 | 55.1 | 53.3 | 47.2 | 52.3 | 52.7 | 47.3 | 47.5 | 44.4 | 48.7 | 51.7 | 48.5 | 40.4 |
| 글로벌화 | 5.2 27.8 | 31.6 | 32.3 | 18.4 | 20.7 | 29.3 | 24.2 | 25.7 | 29.3 | 27.7 | 25.9 | 23.2 | 27.3 | 28.9 | 48.9 |
| 경쟁사와의 경쟁구도 | 2.7 14.4 | 16.3 | 10.8 | 8.2 | 15.2 | 14.1 | 15.0 | 14.9 | 13.4 | 13.9 | 22.2 | 13.6 | 14.0 | 12.4 | 23.4 |
| 관련 규제 파악 및 적용 | 1.9 9.7 | 10.6 | 4.6 | 10.2 | 6.5 | 9.7 | 9.8 | 8.8 | 9.6 | 8.9 | 18.5 | 11.0 | 7.7 | 9.3 | 10.6 |
| 기타 | 0.4 1.2 | 1.1 | 3.1 | 0.0 | 1.1 | 1.1 | 1.3 | 1.4 | 1.3 | 1.0 | 0.0 | 0.9 | 2.1 | 1.0 | 0.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기업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 연도별 추이

최근 3년간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 성장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자금확보와 매출 제고/사업화를 매년 더 크게 느끼고 있음
 자금 확보의 어려움은 2021년 20%에서 2022년 29.9%, 2023년 33.6%로 큰 폭으로 늘어남
 매출 제고/사업화의 어려움은 2021년 20.9%에서 2022년 23%, 2023년 26%로 매년 증가함
 반면, 고급 인력의 채용의 어려움은 2021년에는 32.7%로 높았으나, 2022년 26.5%, 2023년 15.7%로 매년 감소함



"요즘은 투자가 안 되고 언제 상황이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고급 인력 채용은 투자금도 많고 성장할 때 중요했고 지금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시장에 나온 고급 인력이 많은 상황이 되었어요. 아마 고급 인력 채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겁니다. 자금확보는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기업 서류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21년도까지 유동성이 넘쳐나서 너무나도 쉽게 자금 유치를 했던 것에 익숙해진 면도 있어서 더 어렵게 느낀다고도 생각돼요"



Base : 심사역/업무총괄 업무 담당자 (n=515), 1순위 응답, Unit : %

PART 3

조사 결과

- 벤처 투자 시장 인식 및 전망
- 투자 업종 트렌드 및 전망
- 투자 방식 트렌드
- 기업 분석 트렌드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기대 사항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으로 IPO/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신규 LP 증가,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가 높게 나타남
 펀드 운용 규모 1조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 IPO, M&A 등 회수 시장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기대함
 액셀러레이터의 경우 상법, 벤처법 등 관련 법령 개선과 펀드의 대형화 등에 대한 기대가 많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회수] IPO,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26.1 71.6 | 72.9 | 71.2 | 73.8 | 66.4 | 73.8 | 71.9 | 65.5 | 68.2 | 76.6 | 75.2 | 63.0 | 68.4 | 79.0 | 70.1 | 85.1 |
| [출자] 신규 LP 증가 | 20.6 61.8 | 62.7 | 68.5 | 55.7 | 56.6 | 66.9 | 62.7 | 47.5 | 67.6 | 66.9 | 64.4 | 48.1 | 70.6 | 67.8 | 59.8 | 46.8 |
| [출자]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 | 22.0 49.4 | 54.8 | 56.2 | 49.2 | 32.0 | 48.6 | 54.9 | 45.3 | 44.6 | 54.4 | 50.5 | 48.1 | 46.1 | 59.4 | 54.6 | 36.2 |
| [투자] 경쟁력 있는 기업의 증가 | 13.0 38.5 | 39.2 | 37.0 | 47.5 | 34.4 | 40.6 | 32.7 | 39.6 | 35.8 | 37.7 | 41.6 | 44.4 | 38.6 | 30.1 | 44.3 | 48.9 |
| [정책 및 법령] 일관적 정책으로 정책의 불확실성 완화 | 8.0 26.8 | 25.8 | 30.1 | 23.0 | 27.0 | 21.5 | 29.4 | 37.4 | 29.7 | 20.5 | 20.8 | 33.3 | 25.4 | 23.1 | 21.6 | 23.4 |
| [정책 및 법령] 상법, 벤처법 등 관련 법령 개선 | 5.0 18.7 | 15.1 | 13.7 | 13.1 | 32.8 | 16.6 | 17.6 | 25.2 | 23.6 | 14.2 | 12.9 | 18.5 | 18.0 | 18.9 | 10.3 | 19.1 |
| [기타] 능력 있는 VC 증가 | 2.9 11.5 | 10.1 | 16.4 | 16.4 | 11.5 | 11.9 | 9.8 | 12.2 | 8.8 | 11.7 | 11.9 | 18.5 | 9.2 | 9.8 | 14.4 | 19.1 |
| [투자] 펀드의 대형화 | 1.8 5.2 | 4.1 | 2.7 | 3.3 | 10.7 | 4.1 | 3.9 | 9.4 | 4.1 | 5.0 | 2.0 | 3.7 | 3.9 | 2.8 | 7.2 | 2.1 |
| 기타(출자사업규모 확대, Secondary펀드 활성화, 무분별한 초기 창업자 지원 축소) | 0.5 1.5 | 0.3 | 1.4 | 3.3 | 4.9 | 1.1 | 2.6 | 1.4 | 2.7 | 1.3 | 0.0 | 3.7 | 2.2 | 1.4 | 1.0 | 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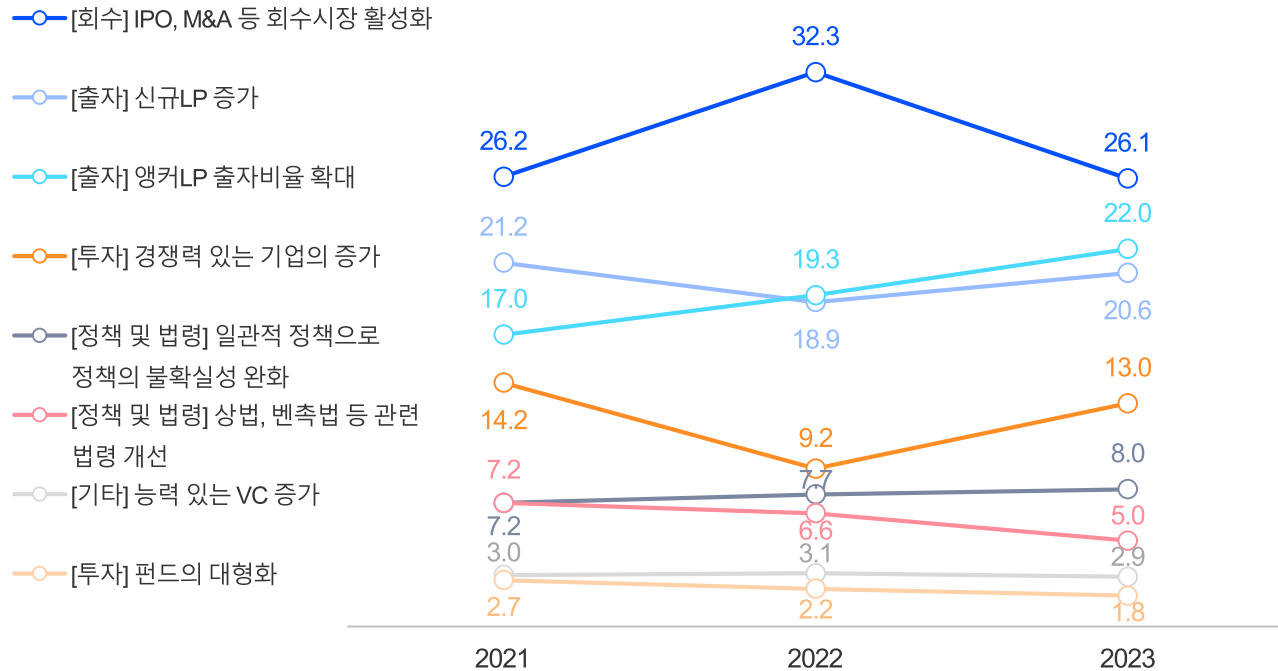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기대 사항 연도별 추이

벤처 투자 시장 발전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으로 최근 3년 연속 IPO/M&A 등 회수시장 활성화가 가장 큰 기대사항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신규 LP 증가,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앵커 LP 출자 비율 확대에 대한 기대는 매년 그 기대가 증가하고 있음
경쟁력 있는 기업의 증가를 기대한다는 응답도 작년 대비 다시 상승함



"최근과 같이 LP 모집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는 앵커 LP의 출자 비율 확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수 시장 활성화는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술특례 상장의 혜택이 다시 주어져서 상장의 문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라고 해석됩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증가가 기대사항으로 높아진 건 지금 언제 펀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대상기업을 고르는 VC들의 시각이 매우 보수적인 상태에서 투자자금 없이도 생존 가능성이 높으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니즈가 높기 때문입니다"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에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필요 요소

벤처투자생태계의 흑한기에 스타트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모태펀드 증액 등 긍정적 시장 시그널 전달 > 민간 모펀드 등 다양한 투자 Vehicle 도입 > 벤처 대출 등 다양한 선진벤처 금융기법 도입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됨

LLC와 펀드 운용 규모 천억~3천억의 중소 VC, 시리즈A 투자단계를 선호하는 VC는 모태펀드 증액 등 긍정적 시장 시그널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A | 시리즈B | 시리즈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모태펀드 증액 등 긍정적 시장 시그널 전달 | 50.0 <u>76.9</u> | 78.6 | 84.9 | 75.4 | 68.0 | 74.9 | 85.0 | 73.4 | 75.0 | 82.8 | 75.2 | 59.3 | 75.9 | 86.0 | 74.2 | 70.2 |
| 민간 모펀드 등 다양한 투자 Vehicle 도입 | 19.9 <u>61.0</u> | 56.7 | 64.4 | 54.1 | 68.0 | 61.6 | 60.1 | 60.4 | 66.9 | 55.6 | 65.3 | 63.0 | 65.8 | 54.5 | 64.9 | 51.1 |
| 벤처 대출 등 다양한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 | 11.3 <u>43.9</u> | 42.2 | 49.3 | 49.2 | 38.5 | 44.5 | 44.4 | 41.7 | 40.5 | 48.1 | 39.6 | 51.9 | 43.0 | 46.9 | 40.2 | 53.2 |
| 투자금 소진율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 | 7.0 <u>33.9</u> | 35.3 | 31.5 | 37.7 | 31.1 | 35.1 | 28.8 | 36.7 | 34.5 | 32.6 | 32.7 | 33.3 | 35.5 | 32.9 | 29.9 | 29.8 |
|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예상 | 11.8 <u>28.7</u> | 30.7 | 16.4 | 32.8 | 31.1 | 30.4 | 28.1 | 25.2 | 27.0 | 28.5 | 36.6 | 29.6 | 28.5 | 23.1 | 39.2 | 36.2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주목적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한 분야

사회의 공익을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한 분야로 창업 초기 > 세컨더리 > 소재/부품 > ICT 순으로 높게 응답됨

창업 초기는 LLC, 액셀러레이터, Seed단계 투자 선호 그룹에서 응답이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자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창업 초기 | 17.3 31.7 | 25.8 | 42.5 | 16.4 | 49.2 | 28.2 | 37.9 | 33.8 | 50.0 | 29.7 | 11.9 | 11.1 | 37.7 | 29.4 | 22.7 | 21.3 |
| 세컨더리 | 11.3 30.4 | 34.2 | 21.9 | 23.0 | 25.4 | 30.7 | 28.8 | 31.7 | 23.6 | 31.8 | 35.6 | 29.6 | 25.9 | 35 | 29.9 | 36.2 |
| 소재/부품 | 8.4 22.6 | 21.9 | 31.5 | 37.7 | 13.1 | 21.5 | 31.4 | 15.8 | 16.9 | 25.1 | 32.7 | 29.6 | 23.7 | 29.4 | 22.7 | 17.0 |
| ICT | 7.3 20.3 | 21.9 | 19.2 | 24.6 | 16.4 | 21.8 | 19.0 | 18.0 | 17.6 | 19.2 | 31.7 | 14.8 | 18.0 | 17.5 | 30.9 | 25.5 |
| 4차산업혁명 | 5.2 17.9 | 20.3 | 16.4 | 19.7 | 13.9 | 19.3 | 19.0 | 12.9 | 12.2 | 19.7 | 25.7 | 29.6 | 19.3 | 14.7 | 24.7 | 21.3 |
| 신성장 | 4.6 15.6 | 15.9 | 15.1 | 23.0 | 11.5 | 15.2 | 15.7 | 16.5 | 12.8 | 16.7 | 18.8 | 3.7 | 13.6 | 16.1 | 18.6 | 14.9 |
| M&A | 5.2 15.0 | 13.2 | 16.4 | 24.6 | 12.3 | 13.0 | 22.9 | 11.5 | 14.9 | 12.1 | 20.8 | 37.0 | 15.8 | 14.0 | 17.5 | 19.1 |
| 바이오 | 9.3 14.7 | 17.5 | 12.3 | 14.8 | 9.8 | 15.2 | 13.7 | 14.4 | 10.8 | 18.0 | 14.9 | 7.4 | 13.2 | 14.7 | 16.5 | 19.1 |
| 에너지 | 3.7 13.8 | 12.9 | 8.2 | 21.3 | 14.8 | 13.5 | 16.3 | 11.5 | 15.5 | 14.2 | 14.9 | 7.4 | 16.2 | 16.1 | 8.2 | 12.8 |
| 기술/특허 | 2.9 12.5 | 10.4 | 12.3 | 14.8 | 16.4 | 13.3 | 13.7 | 9.4 | 16.2 | 14.6 | 6.9 | 11.1 | 15.4 | 11.9 | 14.4 | 6.4 |
| 스케일업 | 0.9 11.5 | 13.2 | 13.7 | 9.8 | 5.7 | 13.3 | 5.9 | 12.9 | 6.1 | 11.3 | 14.9 | 22.2 | 5.7 | 10.5 | 19.6 | 21.3 |
| 문화 | 4.3 9.5 | 10.4 | 20.5 | 4.9 | 3.3 | 11.3 | 8.5 | 5.8 | 8.8 | 13.4 | 7.9 | 3.7 | 8.3 | 16.8 | 7.2 | 8.5 |
| 지역 | 3.4 8.9 | 7.9 | 5.5 | 0.0 | 18.0 | 8.8 | 6.5 | 11.5 | 15.5 | 7.1 | 1.0 | 3.7 | 11.8 | 6.3 | 6.2 | 0.0 |
| LP지분 유동화 | 1.1 8.0 | 8.8 | 6.8 | 6.6 | 4.1 | 6.6 | 8.5 | 10.8 | 4.1 | 6.7 | 11.9 | 11.1 | 6.1 | 7.0 | 8.2 | 10.6 |
| 해외진출 | 2.0 7.3 | 7.9 | 6.8 | 1.6 | 9.0 | 8.8 | 3.9 | 7.2 | 10.1 | 6.7 | 4.0 | 11.1 | 5.3 | 9.1 | 5.2 | 17.0 |
| 시니어/실버산업 | 1.8 6.4 | 5.2 | 6.8 | 9.8 | 7.4 | 6.6 | 3.9 | 8.6 | 5.4 | 6.7 | 5.0 | 3.7 | 7.0 | 4.9 | 6.2 | 2.1 |
| 사회적기업/소셜임팩트 | 2.0 6.3 | 7.1 | 1.4 | 6.6 | 7.4 | 5.2 | 3.9 | 11.5 | 3.4 | 6.3 | 5.0 | 0.0 | 3.5 | 7.0 | 6.2 | 2.1 |
| 청년 | 0.8 6.3 | 5.5 | 5.5 | 1.6 | 12.3 | 7.5 | 3.3 | 6.5 | 12.2 | 5.0 | 2.0 | 0.0 | 9.2 | 5.6 | 3.1 | 0.0 |
| 환경 | 0.9 6.0 | 4.9 | 2.7 | 6.6 | 10.7 | 6.9 | 4.6 | 5.0 | 8.1 | 5.0 | 7.9 | 0.0 | 9.2 | 2.8 | 5.2 | 4.3 |
| 일반 | 1.7 4.1 | 5.5 | 2.7 | 8.2 | 0.0 | 3.6 | 3.3 | 6.5 | 2.0 | 4.6 | 3.0 | 3.7 | 2.6 | 1.4 | 8.2 | 4.3 |
| 대학창업 | 1.2 4.0 | 1.4 | 2.7 | 1.6 | 11.5 | 3.6 | 4.6 | 4.3 | 10.1 | 1.3 | 2.0 | 0.0 | 7.5 | 0.0 | 2.1 | 2.1 |
| 일자리 | 0.9 3.1 | 2.7 | 4.1 | 4.9 | 2.5 | 1.7 | 4.6 | 5.0 | 2.7 | 3.8 | 0.0 | 0.0 | 2.2 | 2.8 | 3.1 | 2.1 |
| 여성 | 0.9 2.9 | 3.6 | 2.7 | 1.6 | 2.5 | 3.0 | 2.6 | 2.9 | 2.7 | 3.8 | 2.0 | 0.0 | 3.1 | 4.2 | 1.0 | 2.1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기타 응답 (3순위 누계 0.9%): 에너지, 폐기물, 기후, 온난화, 친환경, 재기창업자, ESG 등

[Base: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Qu.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곳 순서대로 최대 5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으로 바이오/의료, ICT 서비스가 높게 응답되었으며
다음으로 유통서비스, ICT 제조도 높게 응답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바이오/의료 | 24.0 <u>62.5</u> | 59.7 | 68.5 | 55.8 | 64.7 | 57.5 | 62.7 | 75.5 | 54.7 | 64.8 | 47.6 | 74.0 | 61.0 | 56.7 | 57.8 | 59.6 |
| ICT 서비스 | 13.8 <u>39.8</u> | 38.8 | 41.1 | 42.6 | 39.4 | 35.9 | 43.7 | 45.4 | 37.8 | 39.4 | 35.6 | 40.7 | 36.0 | 38.5 | 39.3 | 46.8 |
| 유통/서비스 | 9.5 <u>23.6</u> | 25.9 | 21.9 | 19.6 | 18.8 | 18.0 | 32.0 | 28.7 | 20.3 | 21.8 | 23.8 | 29.6 | 19.3 | 28.7 | 18.6 | 23.3 |
| ICT 제조 | 6.2 <u>20.9</u> | 21.4 | 17.9 | 26.2 | 21.4 | 21.8 | 17.7 | 22.3 | 20.4 | 22.2 | 18.9 | 14.8 | 25.5 | 12.6 | 19.6 | 23.5 |
| 전기/기계/장비 | 7.7 <u>20.0</u> | 20.2 | 38.3 | 14.7 | 13.9 | 24.3 | 10.5 | 19.4 | 20.4 | 26.8 | 9.9 | 0.0 | 18.4 | 35.0 | 10.4 | 4.3 |
| 영상/공연/음반 | 4.3 <u>16.3</u> | 16.9 | 6.8 | 31.2 | 14.7 | 18.0 | 15.1 | 13.0 | 14.9 | 16.7 | 23.8 | 7.4 | 18.1 | 14.0 | 20.6 | 15.0 |
| 화학/소재 | 4.9 <u>15.4</u> | 15.1 | 15.2 | 24.6 | 12.3 | 15.2 | 17.0 | 14.4 | 13.6 | 17.2 | 14.9 | 18.5 | 14.5 | 19.6 | 15.4 | 10.6 |
| 게임 | 3.4 <u>7.9</u> | 7.9 | 9.6 | 4.9 | 9.8 | 11.3 | 3.3 | 4.3 | 16.9 | 5.9 | 7.0 | 0.0 | 9.6 | 9.1 | 7.2 | 8.5 |
| 기타 | 15.0 <u>28.1</u> | 24.6 | 26.0 | 29.5 | 36.1 | 29.0 | 30.1 | 23.8 | 31.7 | 24.6 | 35.7 | 33.3 | 33.8 | 19.6 | 35.1 | 25.5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5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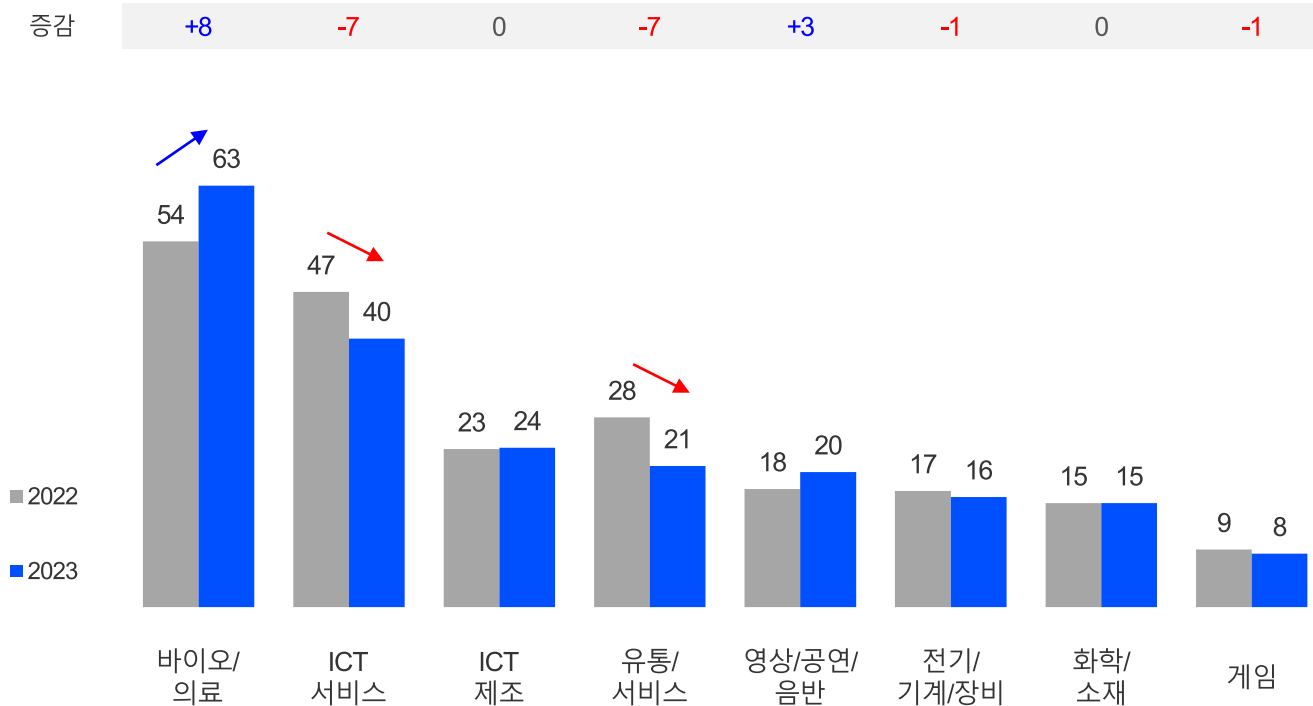
Qu. 한국벤처투자(KVIC)은 더 나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취약 분야 또는 집중육성필요 분야(업종 기준)가 있을까요? 최대 5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 연도별 추이

바이오/의료 업종에 대해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2년 대비 증가했고,

ICT서비스와 유통/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대비 감소함

최근 시장내 바이오에 대한 매력도가 하락하여 바이오 기업이 침체되고 있으나, 향후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지금은 취약 분야가 바이오예요. 바이오에 투자를 다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 바이오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미래에 유망한 바이오 창업자들이 투자를 받고 나중에 바이오가 각광을 받는 시기에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통 플랫폼은 사실은 투자가 부족해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바이오는 투자금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제가 볼 때 바이오가 가장 취약해진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Qu. 한국벤처투자(KVIC)은 더 나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취약 분야 또는 집중육성필요 분야(업종 기준)가 있을까요? 최대 5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 _중분류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ICT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서비스 분야, 바이오/의료 업종에서는 의료용물질/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서비스 업종에서는 교육서비스, ICT 제조에서는 반도체/전자부품이 높게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ICT 서비스 | 소계 | 39.8 | 38.8 | 41.1 | 42.6 | 39.4 | 35.9 | 43.7 | 45.4 | 37.8 | 39.4 | 35.6 | 40.7 | 36.0 | 38.5 | 39.3 | 46.8 |
| | 소프트웨어 | 19.1 | 16.4 | 23.3 | 26.2 | 21.3 | 17.7 | 20.9 | 20.9 | 17.6 | 20.1 | 15.8 | 22.2 | 19.3 | 19.6 | 15.5 | 19.1 |
| | 정보서비스 | 17.0 | 18.6 | 13.7 | 14.8 | 15.6 | 14.9 | 17.6 | 21.6 | 15.5 | 15.1 | 17.8 | 14.8 | 13.6 | 14.7 | 18.6 | 23.4 |
| | 통신 | 3.7 | 3.8 | 4.1 | 1.6 | 2.5 | 3.3 | 5.2 | 2.9 | 4.7 | 4.2 | 2.0 | 3.7 | 3.1 | 4.2 | 5.2 | 4.3 |
| 바이오/의료 | 소계 | 62.5 | 59.7 | 68.5 | 55.8 | 64.7 | 57.5 | 62.7 | 75.5 | 54.7 | 64.8 | 47.6 | 74.0 | 61.0 | 56.7 | 57.8 | 59.6 |
| | 의료용물질/의약품 | 23.2 | 22.5 | 17.8 | 19.7 | 27.0 | 22.1 | 22.2 | 27.3 | 19.6 | 22.6 | 22.8 | 29.6 | 24.6 | 18.2 | 19.6 | 27.7 |
| | 의료시설/서비스 | 21.3 | 21.9 | 27.4 | 16.4 | 17.2 | 19.1 | 20.9 | 27.3 | 16.2 | 23.4 | 13.9 | 25.9 | 18.4 | 21.7 | 19.6 | 19.1 |
| | 의료기기 | 18.0 | 15.3 | 23.3 | 19.7 | 20.5 | 16.3 | 19.6 | 20.9 | 18.9 | 18.8 | 10.9 | 18.5 | 18.0 | 16.8 | 18.6 | 12.8 |
| 유통/서비스 | 소계 | 20.9 | 21.4 | 17.9 | 26.2 | 21.4 | 21.8 | 17.7 | 22.3 | 20.4 | 22.2 | 18.9 | 14.8 | 25.5 | 12.6 | 19.6 | 23.5 |
| | 교육 | 11.0 | 11.2 | 11.0 | 18.0 | 8.2 | 11.6 | 7.8 | 12.9 | 8.8 | 12.1 | 9.9 | 7.4 | 11.8 | 9.8 | 10.3 | 6.4 |
| | 전문서비스 | 4.9 | 5.2 | 4.1 | 1.6 | 6.6 | 5.0 | 5.9 | 3.6 | 6.1 | 5.4 | 4.0 | 3.7 | 7.5 | 2.1 | 3.1 | 8.5 |
| | 도소매업 | 2.3 | 2.2 | 1.4 | 3.3 | 3.3 | 2.2 | 2.0 | 2.9 | 2.7 | 2.1 | 2.0 | 0.0 | 3.1 | 0.7 | 1.0 | 4.3 |
| | 운수 | 1.5 | 1.4 | 0.0 | 3.3 | 2.5 | 1.9 | 0.0 | 2.2 | 1.4 | 1.3 | 1.0 | 3.7 | 0.9 | 0.0 | 3.1 | 4.3 |
| | 숙박/음식업 | 1.2 | 1.4 | 1.4 | 0.0 | 0.8 | 1.1 | 2.0 | 0.7 | 1.4 | 1.3 | 2.0 | 0.0 | 2.2 | 0.0 | 2.1 | 0.0 |
| ICT 제조 | 소계 | 23.6 | 25.9 | 21.9 | 19.6 | 18.8 | 18.0 | 32.0 | 28.7 | 20.3 | 21.8 | 23.8 | 29.6 | 19.3 | 28.7 | 18.6 | 23.3 |
| | 반도체/전자부품 | 19.4 | 20.8 | 17.8 | 18.0 | 18.0 | 15.2 | 26.1 | 23.0 | 16.9 | 17.2 | 21.8 | 25.9 | 15.8 | 24.5 | 15.5 | 19.1 |
| | 통신방송장비 | 2.3 | 3.0 | 2.7 | 1.6 | 0.0 | 1.4 | 3.3 | 3.6 | 1.4 | 2.5 | 1.0 | 3.7 | 1.8 | 2.1 | 2.1 | 2.1 |
| | 컴퓨터/주변장치 | 1.4 | 1.6 | 1.4 | 0.0 | 0.8 | 0.8 | 2.6 | 1.4 | 2.0 | 1.3 | 1.0 | 0.0 | 1.3 | 1.4 | 1.0 | 2.1 |
| | 영상음향기기 | 0.5 | 0.5 | 0.0 | 0.0 | 0.0 | 0.6 | 0.0 | 0.7 | 0.0 | 0.8 | 0.0 | 0.0 | 0.4 | 0.7 | 0.0 | 0.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적%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 _중분류

사회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 확대가 필요한 업종의 세부 분류로는 전기/기계/장비 업종 중 정밀기기, 화학/소재 중 화학물질/제품, 기타 분야 중에서는 에너지/자원 분야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 전기/기계/장비 | 소계 | 16.3 | 16.9 | 6.8 | 31.2 | 14.7 | 18.0 | 15.1 | 13.0 | 14.9 | 16.7 | 23.8 | 7.4 | 18.1 | 14.0 | 20.6 | 15.0 |
| | 정밀기기 | 7.2 | 7.9 | 1.4 | 8.2 | 8.2 | 7.5 | 9.2 | 4.3 | 8.1 | 7.5 | 9.9 | 3.7 | 8.8 | 7.7 | 8.2 | 4.3 |
| | 전기장비 | 4.0 | 3.8 | 2.7 | 9.8 | 3.3 | 5.0 | 3.3 | 2.2 | 3.4 | 4.6 | 5.9 | 3.7 | 4.4 | 2.8 | 8.2 | 2.1 |
| | 운송장비/부품 | 2.0 | 1.9 | 0.0 | 6.6 | 1.6 | 2.2 | 1.3 | 2.2 | 0.7 | 2.5 | 3.0 | 0.0 | 1.8 | 1.4 | 2.1 | 4.3 |
| | 일반기계 | 3.1 | 3.3 | 2.7 | 6.6 | 1.6 | 3.3 | 1.3 | 4.3 | 2.7 | 2.1 | 5.0 | 0.0 | 3.1 | 2.1 | 2.1 | 4.3 |
| 화학/소재 | 소계 | 15.4 | 15.1 | 15.2 | 24.6 | 12.3 | 15.2 | 17.0 | 14.4 | 13.6 | 17.2 | 14.9 | 18.5 | 14.5 | 19.6 | 15.4 | 10.6 |
| | 화학물질/제품 | 9.6 | 8.8 | 11.0 | 13.1 | 11.5 | 9.7 | 10.5 | 8.6 | 10.8 | 10.5 | 7.9 | 7.4 | 11.4 | 10.5 | 8.2 | 4.3 |
| | 비금속 | 2.1 | 2.5 | 1.4 | 4.9 | 0.0 | 2.2 | 3.9 | 0.0 | 1.4 | 2.5 | 4.0 | 7.4 | 1.8 | 3.5 | 4.1 | 2.1 |
| | 금속 | 2.0 | 2.2 | 1.4 | 3.3 | 0.8 | 1.9 | 1.3 | 2.9 | 1.4 | 1.7 | 2.0 | 3.7 | 0.4 | 2.8 | 3.1 | 2.1 |
| 고무/플라스틱 | 1.7 | 1.6 | 1.4 | 3.3 | 0.0 | 1.4 | 1.3 | 2.9 | 0.0 | 2.5 | 1.0 | 0.0 | 0.9 | 2.8 | 0.0 | 2.1 | |
| 영상/공연/음반 | 소계 | 20 | 20.2 | 38.3 | 14.7 | 13.9 | 24.3 | 10.5 | 19.4 | 20.4 | 26.8 | 9.9 | 0.0 | 18.4 | 35.0 | 10.4 | 4.3 |
| | 공연/전시/음악 | 9.6 | 9.0 | 16.4 | 8.2 | 8.2 | 10.5 | 5.9 | 11.5 | 9.5 | 10.9 | 6.9 | 0.0 | 9.2 | 14.7 | 3.1 | 4.3 |
| | 영상 | 6.1 | 6.0 | 13.7 | 4.9 | 4.1 | 8.6 | 2.0 | 4.3 | 6.8 | 9.2 | 2.0 | 0.0 | 5.3 | 11.9 | 5.2 | 0.0 |
| | 출판/방송 | 4.3 | 5.2 | 8.2 | 1.6 | 1.6 | 5.2 | 2.6 | 3.6 | 4.1 | 6.7 | 1.0 | 0.0 | 3.9 | 8.4 | 2.1 | 0.0 |
| 게임 | 소계 | 7.9 | 7.9 | 9.6 | 4.9 | 9.8 | 11.3 | 3.3 | 4.3 | 16.9 | 5.9 | 7.0 | 0.0 | 9.6 | 9.1 | 7.2 | 8.5 |
| | 게임소프트웨어 | 4.7 | 4.9 | 5.5 | 1.6 | 5.7 | 6.9 | 1.3 | 2.9 | 10.8 | 3.8 | 2.0 | 0.0 | 5.7 | 4.9 | 3.1 | 8.5 |
| | 스포츠/여가 | 3.2 | 3.0 | 4.1 | 3.3 | 4.1 | 4.4 | 2.0 | 1.4 | 6.1 | 2.1 | 5.0 | 0.0 | 3.9 | 4.2 | 4.1 | 0.0 |
| 기타 | 소계 | 28.1 | 24.6 | 26.0 | 29.5 | 36.1 | 29.0 | 30.1 | 23.8 | 31.7 | 24.6 | 35.7 | 33.3 | 33.8 | 19.6 | 35.1 | 25.5 |
| | 에너지/자원 | 20.5 | 17.5 | 17.8 | 27.9 | 24.6 | 21.3 | 20.3 | 18.7 | 21.6 | 18.0 | 26.7 | 22.2 | 21.1 | 16.1 | 28.9 | 19.1 |
| | 금융 | 4.4 | 4.1 | 2.7 | 0.0 | 8.2 | 4.4 | 5.9 | 2.9 | 7.4 | 3.3 | 4.0 | 7.4 | 7.0 | 2.8 | 4.1 | 2.1 |
| | 음식료 | 3.2 | 3.0 | 5.5 | 1.6 | 3.3 | 3.3 | 3.9 | 2.2 | 2.7 | 3.3 | 5.0 | 3.7 | 5.7 | 0.7 | 2.1 | 4.3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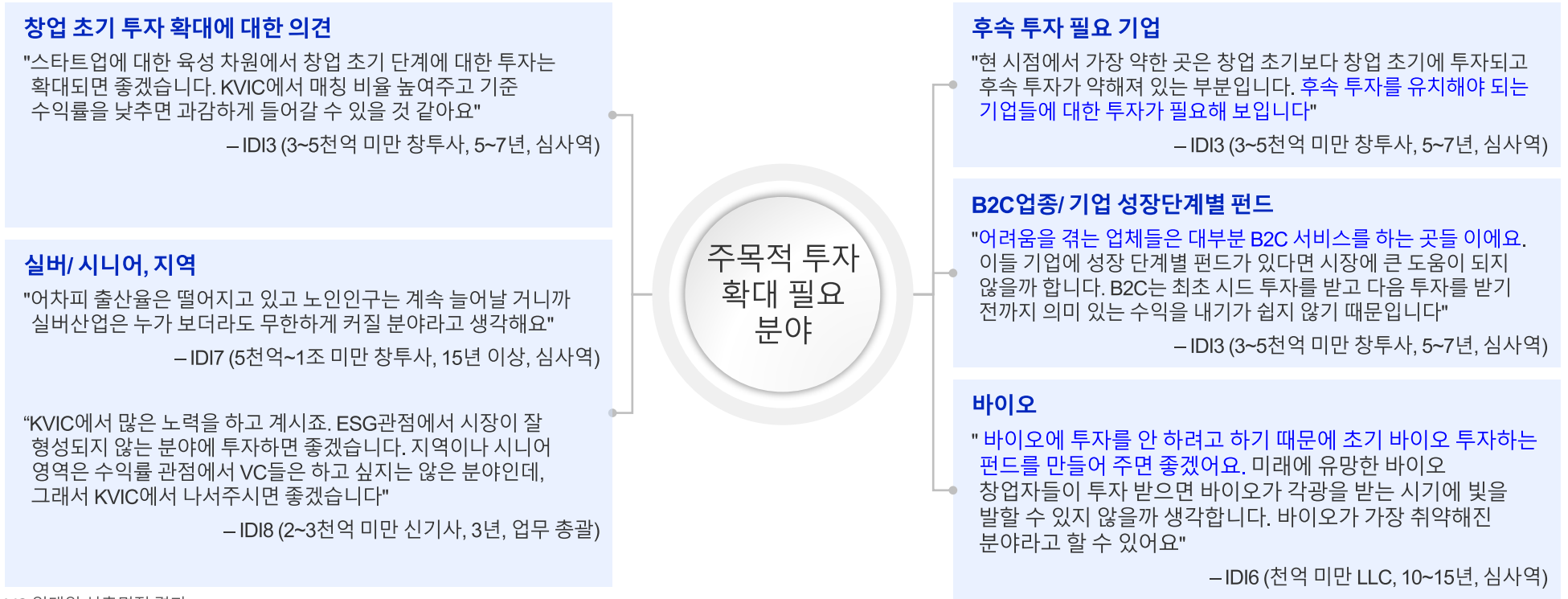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Qu. 한국벤처투자(KVIC)은 더 나은 벤처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미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취약 분야 또는 집중육성필요 분야(업종 기준)가 있을까요? 최대 3순위까지 선택해 주세요.

공익을 위해 주목적 투자 대상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 벤처투자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에 중요성이 대두되며, 모태펀드에서 매칭 비율을 높이고 기준 수익률을 낮춰 주기를 기대함

그 밖에 후속 투자, 기업 성장단계별 접근, B2C 업종, 실버/시니어, 지역에 특화된 펀드, 바이오 분야의 투자 확대 필요성이 언급됨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10대 초격차 분야 중 투자 확대 필요 분야

10대 초격차 분야 중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AI, 친환경/에너지, 로봇,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 밖에 미래 모빌리티, 양자 기술 등도 응답됨

빅데이터/AI는 1조 이상 대형 VC와 시리즈 B단계 선호 VC, 친환경/에너지는 엑셀러레이터와 천억미만 VC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응답함
시스템반도체는 LLC, 업무총괄, 시리즈 A 선호 VC의 응답비율이 더 높으며, 미래 모빌리티는 신기사 들의 응답비율이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빅데이터/AI | 19.7 51.2 | 52.1 | 54.8 | 49.2 | 44.3 | 47.8 | 54.9 | 56.1 | 45.3 | 46.4 | 61.4 | 63.0 | 50.4 | 44.1 | 50.5 | 63.8 |
| 친환경/에너지 | 14.7 43.0 | 40.3 | 39.7 | 37.7 | 59.8 | 43.4 | 37.3 | 48.2 | 48.0 | 42.7 | 38.6 | 7.4 | 52.2 | 32.2 | 37.1 | 27.7 |
| 로봇 | 9.9 33.8 | 34.0 | 34.2 | 29.5 | 36.1 | 34.3 | 34.0 | 32.4 | 37.8 | 31.8 | 32.7 | 40.7 | 33.3 | 32.9 | 38.1 | 34.0 |
| 바이오/헬스 | 14.1 32.1 | 30.7 | 26.0 | 26.2 | 38.5 | 28.2 | 35.9 | 38.1 | 35.1 | 30.1 | 22.8 | 37.0 | 32.0 | 29.4 | 26.8 | 34.0 |
| 시스템반도체 | 12.5 31.8 | 33.2 | 42.5 | 39.3 | 15.6 | 32.3 | 39.2 | 22.3 | 19.6 | 41.0 | 34.7 | 55.6 | 27.6 | 36.4 | 44.3 | 40.4 |
| 우주항공/해양 | 8.9 27.8 | 29.9 | 30.1 | 26.2 | 23.8 | 29.8 | 23.5 | 27.3 | 24.3 | 30.1 | 29.7 | 22.2 | 26.8 | 28.7 | 27.8 | 31.9 |
| 미래 모빌리티 | 7.0 27.7 | 25.2 | 27.4 | 42.6 | 27.0 | 27.1 | 24.2 | 33.1 | 27.0 | 24.3 | 32.7 | 14.8 | 25.4 | 30.8 | 25.8 | 17.0 |
| 양자 기술 | 6.6 18.2 | 19.7 | 16.4 | 26.2 | 13.1 | 19.1 | 20.3 | 13.7 | 16.9 | 20.9 | 21.8 | 11.1 | 17.5 | 23.1 | 21.6 | 12.8 |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4.3 16.2 | 16.7 | 19.2 | 4.9 | 18.9 | 17.7 | 15.0 | 13.7 | 18.2 | 19.2 | 12.9 | 3.7 | 16.7 | 19.6 | 17.5 | 8.5 |
| 차세대 원전 | 2.3 9.2 | 8.8 | 4.1 | 9.8 | 11.5 | 10.8 | 7.8 | 6.5 | 13.5 | 8.8 | 6.9 | 11.1 | 9.6 | 11.9 | 8.2 | 8.5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10대 초격차 분야에 대한 의견

VC들은 10대 초격차 분야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야로서 의미 있고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할지 고민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야

"언급되는 초격차 분야들은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기술도 그렇죠. 인터넷 패러다임에서 모바일 패러다임으로 왔고, 이제 AI 빅데이터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패러다임으로 약간 실패한 것 같지만 양자 기술도 그쪽에서 뭔가 파생되는 패러다임이 나올 것 같아요. **미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분야들에 대한 투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모빌리티도 거기서 파생되는 기반 기술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 IDI1 (1조 이상 창투사, 3년, 심사역)



초격차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

"10대 초격차 분야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분야들은 주로 빅데이터, 친환경, 로봇,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모빌리티 등이 있는데, **이 분야가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분야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결론이 나오는 양자 기술 같은 경우는 아직 기초연구 단계입니다. **과연 투자 확대를 늘리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 IDI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출자자 모집 시 출자 경쟁의 심화와 외부 출자의 축소가 가장 큰 어려움이며, 그 다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나타남

창투사와 시리즈 A 선호 VC, 펀드 운용 규모 3천억~1조 VC는 출자경쟁 심화를, 액셀러레이터는 각종 규제 적용의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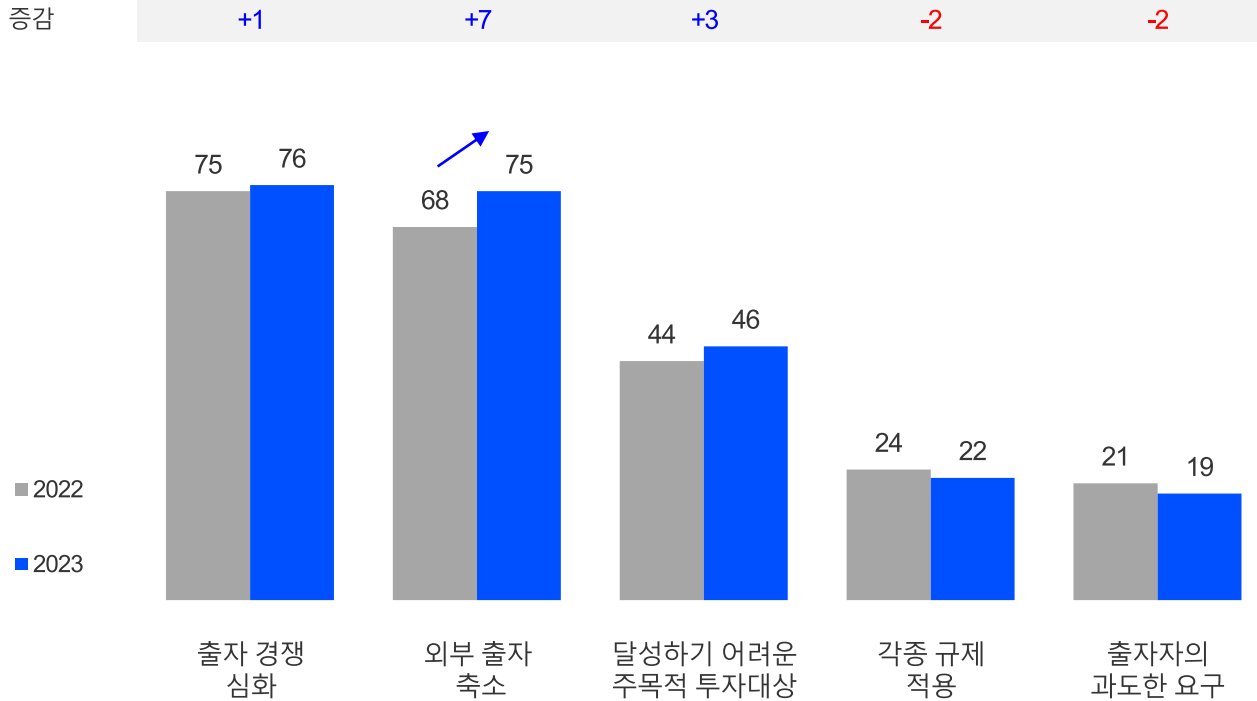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 출자 경쟁 심화 | 38.1 75.7 | 81.9 | 76.7 | 80.3 | 59.8 | 76.8 | 78.4 | 69.8 | 67.6 | 82.4 | 81.2 | 70.4 | 73.7 | 76.9 | 84.5 | 80.9 |
| 외부 출자 축소 | 34.4 74.6 | 74.8 | 75.3 | 80.3 | 73.0 | 78.7 | 75.2 | 63.3 | 79.7 | 77.4 | 76.2 | 74.1 | 76.3 | 83.2 | 77.3 | 68.1 |
| 달성하기 어려운 주목적 투자 대상 | 11.6 46.3 | 45.2 | 56.2 | 50.8 | 38.5 | 49.7 | 42.5 | 41.7 | 41.2 | 49.8 | 50.5 | 51.9 | 43.0 | 51.7 | 56.7 | 38.3 |
| 각종 규제 적용 | 6.3 22.3 | 20.0 | 16.4 | 21.3 | 31.1 | 21.3 | 20.3 | 27.3 | 21.6 | 20.1 | 20.8 | 25.9 | 21.1 | 19.6 | 20.6 | 25.5 |
| 출자자의 과도한 요구 | 5.5 19.4 | 18.9 | 20.5 | 16.4 | 18.0 | 18.0 | 17.0 | 25.9 | 16.9 | 16.7 | 19.8 | 22.2 | 19.7 | 16.8 | 14.4 | 17.0 |
| 기타 | 1.2 2.9 | 3.0 | 6.8 | 0.0 | 2.5 | 1.9 | 5.9 | 2.2 | 4.7 | 2.5 | 2.0 | 3.7 | 3.9 | 3.5 | 2.1 | 0.0 |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 연도별 추이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은 출자경쟁심화와 외부 출자 축소가 작년 올해 모두 높게 응답된 가운데, 외부 출자의 축소는 22년 대비 큰 폭으로 응답이 증가함
은행권과 대기업들이 자체 투자부서나 CVC를 만들면서 외부 출자를 축소하는 것이 VC들에게는 출자자 모집으로 어려움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음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던 은행권의 경우도 내부 자체 투자부서를 많이 만들었고, 대기업들도 대부분 CVC를 많이 만들면서 외부 출자가 대폭 줄었어요.
결국, 은행권이나 대기업들이 자체 VC를 만들면서 외부 출자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VC들은 출자자 모집의 어려움을 더더욱 겪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는 보기항목이 상이하여 연도별 추이 비교를 하지 않음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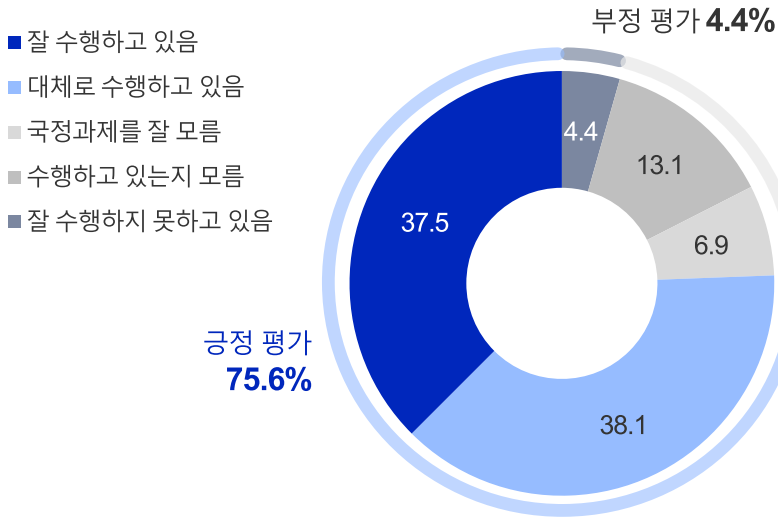
Qu. 출자자 모집시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대 3순위까지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 고려 정도

KVIC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76%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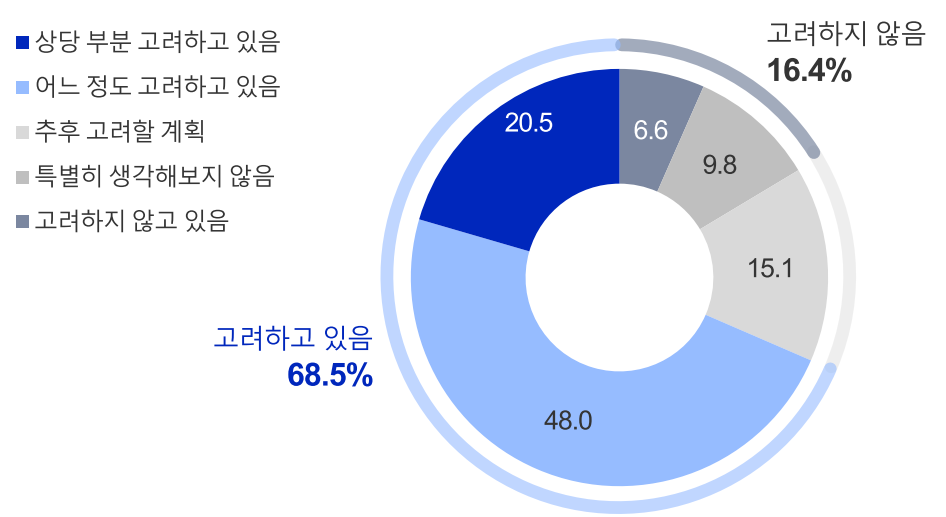
VC들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 정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남

KVIC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 평가



"타 LP가 수익목적으로 주로 출자하는 것과는 다르게 KVIC은 취약분야 등 돈이 안되는 분야에도 출자, 초격차 펀드 조성 등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VC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정도



"국정과제를 고려를 안 할 수 없죠. 정부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해서 정부 과제를 많이 내면 그쪽의 스타트업들이 정부 과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자금 상황이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Base : 전체 응답자 (N=654), Unit : %]

KVIC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 평가

KVIC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75.6%가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펀드 운용 규모 1조 이상의 대형 VC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모태펀드 출자경험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유경험 | 미경험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356) | (95) |
| 대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38.1 | 39.5 | 35.6 | 37.7 | 36.1 | 38.1 | 36.6 | 39.6 | 36.5 | 40.2 | 33.7 | 37.0 | 39.5 | 39.9 | 35.1 | 27.7 | 38.8 | 40.0 |
| 잘 수행하고 있다 | 37.5 | 37.3 | 39.7 | 37.7 | 39.3 | 40.3 | 34.0 | 33.8 | 41.2 | 36.8 | 41.6 | 25.9 | 33.8 | 38.5 | 43.3 | 51.1 | 40.4 | 34.7 |
|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4.4 | 4.4 | 4.1 | 6.6 | 4.1 | 4.7 | 3.9 | 4.3 | 6.8 | 3.8 | 2.0 | 7.4 | 5.3 | 5.6 | 3.1 | 0.0 | 2.8 | 7.4 |
| 수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 13.1 | 11.8 | 11.0 | 14.8 | 14.8 | 10.8 | 17.6 | 14.4 | 9.5 | 14.2 | 12.9 | 18.5 | 15.8 | 11.2 | 7.2 | 14.9 | 12.1 | 10.5 |
| 국정과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6.9 | 7.1 | 9.6 | 3.3 | 5.7 | 6.1 | 7.8 | 7.9 | 6.1 | 5.0 | 9.9 | 11.1 | 5.7 | 4.9 | 11.3 | 6.4 | 5.9 | 7.4 |
| 긍정 응답 | 75.6 | 76.8 | 75.3 | 75.4 | 75.4 | 78.4 | 70.6 | 73.4 | 77.7 | 77.0 | 75.3 | 62.9 | 73.3 | 78.4 | 78.4 | 78.8 | 79.2 | 74.7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기타 응답 1% 미만으로 제외,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응답, Unit : %]

VC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 정도

VC들의 벤처투자생태계 관련 국정과제 고려 정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69%로 높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모태펀드 출자경험이 없는 VC에서 높게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모태펀드 출자경험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유경험 | 미경험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356) | (95) |
|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 48.0 | 48.5 | 42.5 | 57.4 | 44.3 | 47.2 | 45.8 | 52.5 | 39.9 | 47.3 | 51.5 | 63.0 | 39.5 | 53.8 | 55.7 | 42.6 | 50.3 | 43.2 |
| 상당 부분 고려하고 있다 | 20.5 | 21.1 | 26.0 | 14.8 | 21.3 | 22.1 | 19.0 | 18.0 | 25.0 | 20.9 | 18.8 | 11.1 | 21.9 | 18.9 | 18.6 | 29.8 | 22.8 | 18.9 |
| 고려하고 있지 않다 | 6.6 | 6.6 | 4.1 | 3.3 | 9.0 | 6.9 | 7.2 | 5.0 | 8.8 | 7.5 | 3.0 | 7.4 | 9.2 | 4.9 | 5.2 | 6.4 | 4.2 | 13.7 |
| 추후 고려 할 계획은 있다 | 15.1 | 13.4 | 16.4 | 11.5 | 18.9 | 13.8 | 17.0 | 16.5 | 17.6 | 13.8 | 13.9 | 11.1 | 20.6 | 12.6 | 7.2 | 8.5 | 14.9 | 14.7 |
| 특별히 생각해보지 않았다 | 9.8 | 10.4 | 11.0 | 13.1 | 6.6 | 9.9 | 11.1 | 7.9 | 8.8 | 10.5 | 12.9 | 7.4 | 8.8 | 9.8 | 13.4 | 12.8 | 7.9 | 9.5 |
| 고려하고 있음 | 68.5 | 69.6 | 68.5 | 72.2 | 65.6 | 69.3 | 64.8 | 70.5 | 64.9 | 68.2 | 70.3 | 74.1 | 61.4 | 72.7 | 74.3 | 72.4 | 73.1 | 62.1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기타 응답 1% 미만으로 제외,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응답, Unit : %]

KVIC 모태펀드 출자 긍정적 영향 요소

KVIC 모태펀드가 출자에 미친 긍정적 영향에 대해 타 LP에게 펀드의 신뢰도 제고, 펀드의 목표금액 결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높게 나타남
 또한 운용사의 신뢰성 제고, 기존 LP 외 추가투자자 유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높음
 모태펀드 출자 경험이 있는 VC의 경우 타 LP에게 펀드의 신뢰도가 제고되었다는 점을 긍정적 영향 요소로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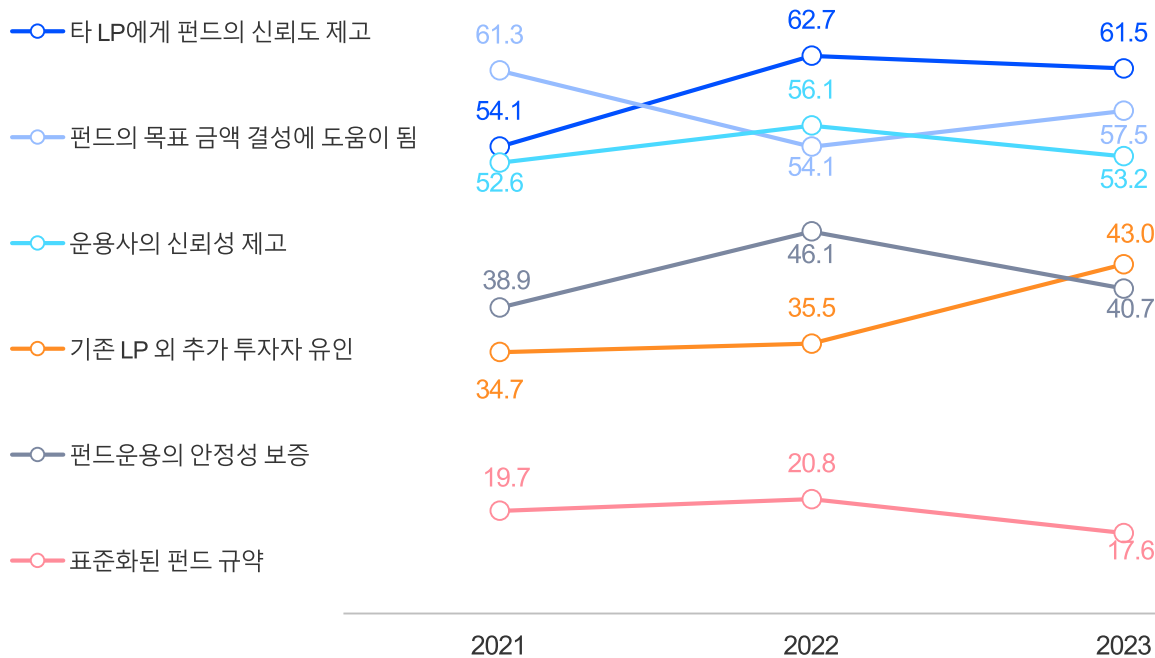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모태펀드 출자경험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엑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유경험 | 미경험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356) | (95) |
| 타 LP에게 펀드의 신뢰도 제고 | 20.9 61.5 | 61.9 | 78.1 | 55.7 | 50.8 | 58.0 | 66.0 | 65.5 | 58.1 | 62.3 | 58.4 | 63.0 | 60.5 | 64.3 | 58.8 | 51.1 | 68.5 | 56.8 |
| 펀드의 목표 금액 결성에 도움이 됨 | 30.1 57.5 | 59.7 | 52.1 | 50.8 | 59.0 | 60.5 | 59.5 | 47.5 | 60.8 | 61.5 | 62.4 | 37.0 | 57.9 | 58.7 | 63.9 | 68.1 | 59.8 | 57.9 |
| 운용사의 신뢰성 제고 | 15.3 53.2 | 51.5 | 64.4 | 57.4 | 50.0 | 53.6 | 51.6 | 54.0 | 51.4 | 49.8 | 61.4 | 59.3 | 54.8 | 46.9 | 57.7 | 53.2 | 55.3 | 49.5 |
| 기존 LP 외 추가 투자자 유인 | 12.1 43.0 | 44.4 | 43.8 | 47.5 | 34.4 | 45.9 | 46.4 | 31.7 | 41.2 | 46.9 | 51.5 | 44.4 | 46.9 | 45.5 | 47.4 | 40.4 | 40.2 | 54.7 |
| 펀드 운용의 안정성 보증 | 13.9 40.7 | 38.9 | 39.7 | 36.1 | 45.9 | 40.1 | 36.6 | 46.8 | 42.6 | 39.3 | 34.7 | 33.3 | 38.6 | 44.1 | 34.0 | 36.2 | 43.8 | 34.7 |
| 표준화된 펀드 규약 | 5.7 17.6 | 17.0 | 13.7 | 23.0 | 20.5 | 16.6 | 12.4 | 25.9 | 14.2 | 16.7 | 15.8 | 7.4 | 13.2 | 16.1 | 18.6 | 17.0 | 16.6 | 15.8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기타 응답 1% 미만으로 제외,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KVIC 모태펀드 출자 긍정적 영향 요소 연도별 추이

KVIC 모태펀드의 긍정적 영향으로 타 LP에게 펀드의 신뢰도를 제고와 기존 LP 외 추가 투자자 유인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임
VC들은 모태펀드로 인해서 우리나라 벤처 투자 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고 선진화되었다고 평가하며, 모태펀드 출자는 타 LP들에게 신뢰를 주어 투자자 모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KVIC이 국내 VC라든지 스타트업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벤처투자 재원의 한 40~50% 이상은 모태펀드에서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태펀드로 인해서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 자체가 많이 활성화되고 선진화됐어요. 모태펀드는 타 LP들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KVIC 모태펀드 출자 부정적 영향 요소

모태펀드 출자의 부정적 영향으로는 투자 분야의 제한, 각종 규제 적용, 투자조건의 보수화, 과도한 사후관리 순으로 높게 나타남
 모태펀드 출자 경험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없으며, 액셀러레이터와 기획/관리직에서 과도한 사후관리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모태펀드 출자경험 | |
|-----------|-----------|-------|------|------|--------|-------|-------|-------|----------|-------|-------|----------|----------|--------|--------|-------|-----------|------|
| | | 창투자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유경험 | 미경험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356) | (95) |
| 투자 분야 제한 | 24.2 42.8 | 43.6 | 42.5 | 41.0 | 39.3 | 42.5 | 49.7 | 36.0 | 39.2 | 45.2 | 51.5 | 44.4 | 48.7 | 38.5 | 46.4 | 40.4 | 44.4 | 47.4 |
| 각종 규제 적용 | 15.0 38.5 | 38.6 | 31.5 | 44.3 | 41.0 | 38.1 | 37.9 | 40.3 | 37.2 | 37.2 | 42.6 | 33.3 | 39.0 | 36.4 | 41.2 | 31.9 | 35.4 | 44.2 |
| 투자조건의 보수화 | 11.6 36.9 | 35.9 | 31.5 | 42.6 | 41.0 | 36.2 | 38.6 | 36.7 | 39.9 | 36.8 | 35.6 | 25.9 | 41.2 | 35.0 | 30.9 | 34.0 | 34.3 | 42.1 |
| 과도한 사후관리 | 13.0 32.9 | 29.6 | 26.0 | 36.1 | 43.4 | 30.7 | 30.7 | 41.0 | 37.8 | 23.8 | 37.6 | 25.9 | 36.4 | 21.7 | 30.9 | 29.8 | 30.9 | 32.6 |
| 수익률 저하 | 3.1 8.7 | 9.0 | 12.3 | 8.2 | 5.7 | 9.9 | 7.2 | 7.2 | 9.5 | 9.2 | 6.9 | 14.8 | 10.5 | 11.2 | 4.1 | 6.4 | 7.9 | 11.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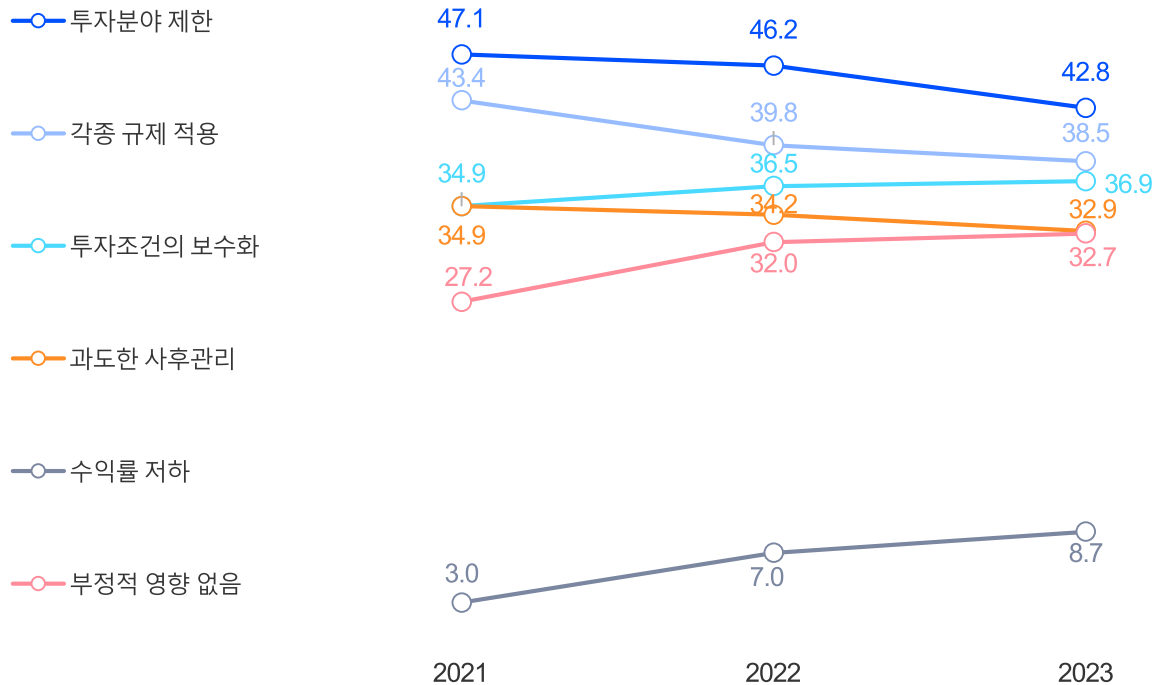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기타 응답(3순위 누계 1.2%): 대평 VC 풀림 현상, 규약상 제약 등

[Base: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Qu. 한국벤처투자(KVIC)의 모태펀드 출자 여부가 펀드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큰 순서대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KVIC 모태펀드 출자 부정적 영향 요소 연도별 추이

KVIC 모태펀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투자분야 제한, 각종 규제 적용, 과도한 사후관리라는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고,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응답과 수익률 저하라는 응답이 3년 연속 상승함



"투자분야의 제한이나 규제 적용은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도 과거보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함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약분야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태펀드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KVIC의 벤처 투자 시장 기여 요소

KVIC에 대해 '안정적인 벤처투자 재원의 조달'로 벤처 투자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음

그 다음으로 민간자금의 벤처기업 투자 유인 > 취약 분야의 투자 활성화 > 집중 육성 필요 분야 발굴 및 투자 연계라는 기여 내용이 높게 나타남

| | 전체 | 기관특성 | | | | 담당업무 | | | 선호 투자 단계 | | | | 펀드 운용 규모 | | | | 모태펀드 출자경험 | |
|--------------------|-----------|-------|------|------|--------|-------|-------|-------|----------|-------|-------|----------|----------|--------|--------|-------|-----------|------|
| | | 창투사 | LLC | 신기사 | 액셀러레이터 | 심사역 | 업무 총괄 | 기획/관리 | Seed | 시리즈 A | 시리즈 B | 시리즈 C 이상 | 천억 미만 | 천억~3천억 | 3천억~1조 | 1조 이상 | 유경험 | 미경험 |
| (Base) | (654) | (365) | (73) | (61) | (122) | (362) | (153) | (139) | (148) | (239) | (101) | (27) | (228) | (143) | (97) | (47) | (356) | (95) |
| 안정적인 벤처투자 자원 조달 | 40.8 66.7 | 69.0 | 72.6 | 54.1 | 59.8 | 67.1 | 72.5 | 59.0 | 66.2 | 70.3 | 69.3 | 66.7 | 68.9 | 70.6 | 64.9 | 70.2 | 72.2 | 70.5 |
| 민간자금의 벤처기업 투자 유인 | 9.2 39.6 | 34.5 | 47.9 | 47.5 | 41.0 | 40.3 | 44.4 | 32.4 | 42.6 | 40.2 | 44.6 | 37.0 | 42.5 | 44.1 | 39.2 | 34.0 | 41.3 | 44.2 |
| 취약 분야의 투자 활성화 | 10.1 33.8 | 34.2 | 30.1 | 39.3 | 33.6 | 31.8 | 40.5 | 31.7 | 33.8 | 36.0 | 30.7 | 37.0 | 34.2 | 32.9 | 42.3 | 23.4 | 36.5 | 29.5 |
| 집중 육성분야 발굴 및 투자 연계 | 9.8 29.8 | 27.7 | 39.7 | 39.3 | 28.7 | 33.7 | 31.4 | 18.0 | 33.1 | 30.5 | 40.6 | 25.9 | 30.7 | 34.3 | 37.1 | 31.9 | 29.5 | 26.3 |
|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5.2 21.3 | 24.4 | 16.4 | 14.8 | 21.3 | 15.7 | 17.0 | 40.3 | 17.6 | 17.2 | 13.9 | 7.4 | 15.4 | 15.4 | 15.5 | 23.4 | 23.0 | 18.9 |
| 펀드규약 및 절차 개선 | 5.0 20.6 | 22.5 | 12.3 | 18.0 | 20.5 | 19.1 | 19.6 | 25.9 | 18.2 | 20.5 | 20.8 | 7.4 | 18.4 | 21.0 | 18.6 | 19.1 | 22.2 | 20.0 |
| 연기금들의 출자 유입 | 3.7 18.5 | 19.7 | 15.1 | 24.6 | 14.8 | 19.3 | 17.0 | 18.0 | 17.6 | 18.0 | 20.8 | 22.2 | 18.4 | 18.2 | 17.5 | 23.4 | 17.1 | 25.3 |
| 국내 벤처투자시장 정보 제공 | 5.8 15.3 | 16.2 | 9.6 | 9.8 | 16.4 | 14.1 | 14.4 | 19.4 | 14.2 | 13.8 | 10.9 | 29.6 | 15.8 | 9.1 | 15.5 | 19.1 | 12.1 | 14.7 |
| 문화/특허 등 특수분야 투자 확대 | 2.8 13.1 | 12.1 | 23.3 | 18.0 | 9.8 | 16.6 | 9.2 | 8.6 | 14.9 | 14.2 | 14.9 | 11.1 | 13.2 | 18.9 | 12.4 | 10.6 | 14.0 | 14.7 |
| 글로벌 신인도 제고 | 2.9 7.8 | 8.8 | 6.8 | 3.3 | 8.2 | 9.1 | 6.5 | 5.8 | 10.1 | 6.7 | 8.9 | 11.1 | 9.2 | 8.4 | 7.2 | 6.4 | 8.4 | 8.4 |
| 투자자 보호조항 개선 | 0.8 4.7 | 4.1 | 5.5 | 1.6 | 6.6 | 5.2 | 3.9 | 4.3 | 6.8 | 5.0 | 3.0 | 0.0 | 6.6 | 3.5 | 2.1 | 6.4 | 3.1 | 3.2 |
| 글로벌 투자네트워크 확대 | 0.8 2.6 | 3.0 | 2.7 | 0.0 | 2.5 | 2.8 | 1.3 | 3.6 | 2.7 | 2.5 | 1.0 | 3.7 | 3.1 | 0.7 | 3.1 | 2.1 | 2.0 | 1.1 |
| 해외 벤처투자시장 정보 제공 | 0.9 2.3 | 1.9 | 1.4 | 0.0 | 4.9 | 2.5 | 2.0 | 2.2 | 4.1 | 2.5 | 0.0 | 0.0 | 3.1 | 0.7 | 1.0 | 6.4 | 1.1 | 0.0 |

전체 응답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 (80% 신뢰수준), 기타 응답 1% 미만으로 제외, 3순위 누계로 Sorting, 박스 내 수치는 3순위 누계 값임

[Base : 전체 응답자 (N=654), 3순위 누계 응답, Unit : %]

KVIC 모태펀드 벤처 투자 시장 기여 내용

KVIC의 모태펀드의 기여 내용은 벤처 투자 생태계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과 소외된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임

벤처 투자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

"KVIC이 2005년에 만들어지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국내 대기업 주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
벤처기업이 설 자리가 없었는데 모태펀드가 많은 벤처기업들이
탄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KVIC을 벤치마킹해서 계속 다양한
출자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자체가
활성화되고 선진화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 ID12 (1조 이상 창투사, 5~7년, 심사역)



소외된 취약 분야에 대한 투자

"KVIC이 중심이 돼서 출자를 시작했잖아요. 펀드도 많이 만들고요.
지금까지 잘 해온 것 같아요. 수익적으로도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지금은 좋아진 것 같고요. 중소기업 진흥과 수익 두가지 목표의
밸런스를 잘 잡고 간다고 생각해요. KVIC이 취약분야에 계속
투자하려고 노력하시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KVIC에 대한 개선 기대 사항(1)

KVIC에 대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모태펀드 규모의 유지 및 확대', '투자확약서 제도에 대한 재검토', '투자금 소진율 가점 제도의 개선', '정성지표의 반영' 및 '정량 평가 기준에 대한 재점검', '펀드 청산 기간 연장제도의 도입'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모태펀드 규모 유지/확대

"올해 초 KVIC이 출자를 축소하면서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민간 펀드에 돈을 댈 만한 기업이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수익성만 추구하는 펀드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KVIC은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출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 규모가 줄어들면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될 기업들에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 ID18 (2~3천억 미만 신기사, 3년, 업무 총괄)

투자확약서(LOC) 보다는 앵커역할에 집중

"시장이 좋을 때는 LOC가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KVIC이 펀드 결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스탠스로 앵커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좋은 VC를 뽑는 데 더 집중해주면 좋겠어요. 자꾸 도덕적이지 못한 플레이를 하는 경쟁사들이 유리한 포지션을 갖게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정성 지표의 반영

"정책 펀드인데 수익성만 위주로 보는 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성 지표들을 많이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해요. 퍼포먼스를 중요하게 보고 사후 관리도 투자의 질을 보았으면 합니다"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취약 분야 펀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모태는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걸 매해 똑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해 투자 사업 공고를 따로 하지 말고, 적어도 내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길 바래요"

- ID13 (3~5천억 미만 창투사, 5~7년, 심사역)

"특정 섹터 펀드가 나온 후,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져 주시면 관련된 섹터가 계속 생겨날 수 있어요. 재창업펀드도 어느 해에는 있다가 없어져서 실효성이 없어요. 예전에 VR펀드들도 포기하는 순간 그 산업 영역 자체가 소멸되었거든요. 산업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라면 계속 유지되면 좋겠어요"

- ID16 (천억 미만 LLC, 10~15년, 심사역)

"지금처럼 취약 업종은 기존 수익률을 더 낮게 잡고 출자 비율은 높이는 것을 계속 해주시되, 펀드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취약 업종은 단기보다는 롱텀으로 해야 성과가 나오니까요"

- ID12 (1조 이상 창투사, 5~7년, 심사역)

취약분야 펀드 운용 VC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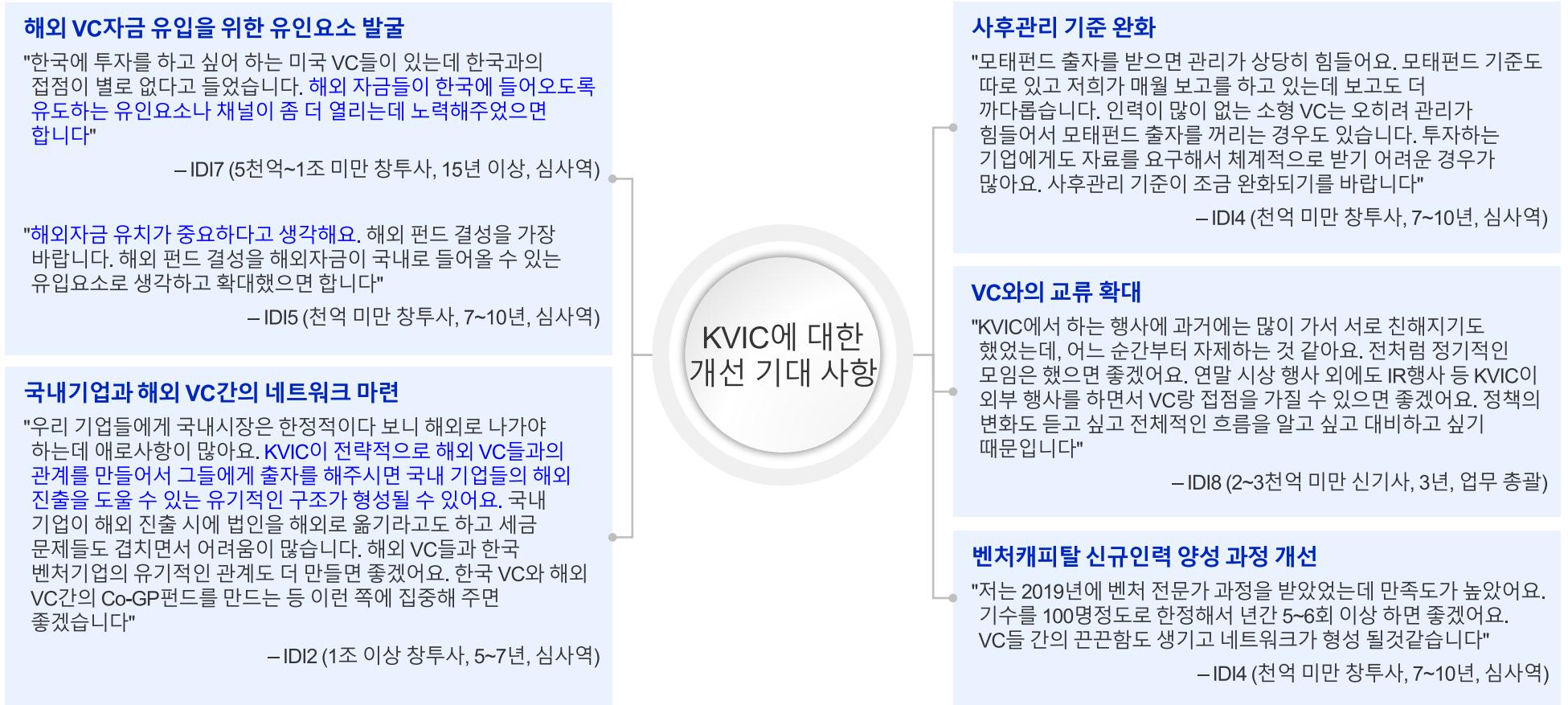
"KVIC은 취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공익만을 추구하기에는 수익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밸런스가 중요할 텐데 취약 분야를 정말 중요하게 키우려고 한다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지속 투자해야 하고, 취약분야 펀드를 운용하는 VC에 대해서 출자사업에서 불리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ID17 (5천억~1조 미만 창투사, 15년 이상, 심사역)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KVIC에 대한 개선 기대 사항(2)

KVIC에 대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사항으로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로 유입할 유인요소의 발굴, 국내기업과 해외 VC간의 네트워크 마련, 취약 분야 펀드에 대한 꾸준하고 안정적인 운영, 취약 분야 VC에 대한 평가 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등이 나타남



VC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

데이터의 새로운 미래, 오픈서베이

E ask@opensurvey.co.kr

www.opensurvey.co.kr